



1

주 체 88 (1999)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8(1999)년 제 1 호

(루계 제 615 호)



◆◆◆◆◆◆◆◆◆◆ 차 례 ◆◆◆◆◆◆◆◆◆◆

설날의 축원	3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4
새해와 함께	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8
조선의 새해	8
새해의 첫아침에	9
하늘이 울리는 송가	11
쾌속으로 달린 승용차	12
세상에 부럼없어라	14
랭천골	22
오늘의 대홍단	23
시인과 시대정신	24
아침은 빛나라 (외 1 편)	29
길이 흐른다	29
천연돌사진	30
당과 총대	32
시대의 요구가 잘 구현된 또하나의 성과작	33

조국과 함께 있는 사람들	37
장군님 따르는 한생각.....	44
시가의 천만리	45
분옥이의 이야기	46
대동강의 풍경	47
단떼의 애착심	54
용기백배 전진하겠습니다	55
새해는 모든것이 시작이다.....	55
두번째 불무지	56
로동계급의 새 모습을 그려내겠습니다	66
풍성한 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새 세기를 마중하겠습니다.....	66
다시본 모습.....	67
성 돌	77
호랑이를 탄 도적.....	78
기쁨에 넘쳐나는 간다.....	79
복수는 총으로만 하지 않는다	79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	80

설날의 축원

김영길

설날이 오니
멀리 전선길에 찍어가시던
숫눈길우의 첫자욱을 생각합니다
또 한해 조국이 가야 할
강행군의 보폭과 걸음새를
앞장서 새겨주신 장군님의 첫걸음

이렇게 이어오셨습니다
준엄한 세월의 폭풍우를
한몸으로 다 맞받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최후승리로 힘차게 내짚으신 그 걸음걸음

세기의 첫기슭에서 높이 든 붉은기들
세기의 마지막언덕까지
더 높이 더 힘차게 휘날려주시며
《적기가》의 노래소리
공훈합창단의 노래로 되울려주시며
수천리 헤쳐오신 눈보라길이며
수만리 쉬임 모르신 전선길이며

떠오릅니다
불타오릅니다
예지의 눈빛이 헤아려 빛내주신
북방 먼 자강땅
그 불굴의 모습이
성강의 봉화가

시련 많던 백두의 병기창인듯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높이
웃으며 락원을 창조해가는
대흥단벌의 그 숨결
가슴가슴에 이어주시고
신념과 락관에 타는 그 불길
온 나라에 지퍼주신 장군님

어려웁니다
뜨거움에 눈시울 젖어웁니다
사나운 추위와 무더위속...
넘으신 험한 령과 벼랑길
진창길에 빠져

몸소 차를 밀며 헤쳐가신
이 나라의 높고낮은 산밭이며
굽이굽이 령길이며

시간에 시간을 이으시며
동부산악의 밤길을 달리시고
서해 최전연의 고지우에서
뜨는 해를 맞으시며
췌기밥의 때식도 번지신 길!
차중의 쪽잠도 잊으신 길!

아, 심혈의 그 자욱자욱
쌓이신 로고우에
사회주의성새는 불패로 다져지고
만난역경을 뚫고
조국은 거연히 솟아
강성대국의 위용을 펼치는가

인민은 존엄높이 긍지높이 웃습니다
세상은 소리높이 환호합니다
경사로온 9월의 그 아침
우리 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그이를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축원의 레포런듯

오, 우리의 첫 주체위성
《광명성1》호가 날아올라
불멸의 혁명송가가 흐르는 하늘가에
조선의 기쁨이 꽃피고
영광이 빛발쳐 넘칩니다

아아 승리한 이 조선!-
태양의 빛으로
우주만리에 그 이름 빛발치는
새해의 이 아침
광활한 새 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이 기쁨 이 영광 무궁토록
세월이 영원토록
삼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나라의 국력을 세계최강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불멸의 건국업적에 토대하여 민족번영의 최성기를 펼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은 이미 울렸다.

100프로 자체의 힘과 기술, 연료와 자재로 개발한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발사, 온 세계를 진감시킨 이 경이적인 사변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는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주었고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었다.

참으로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위력의 과시로 되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 인민은 못해낼 일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힘찬 생활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이 추켜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 창조와, 건설의 구호이다. 이 혁명적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놓여있다. 적들의 반사회주의적음모와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 경제봉쇄 책동으로 하여 모든것-원료와 자재, 식량 등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가는 길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속에서 더욱 억세게 다져진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이 있고 우리 당이 알심있게 키워낸 우수한 기술자, 기능

공의 대부대가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받들어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이 실현되고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이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리라는 신심드높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담보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따라 강계정신으로 오늘의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거세찬 진군에 발맞추어 이들의 투쟁에 힘과 용기와 노래를 주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 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천만시련이 겹쌓여도 반드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펼쳐나선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을 그린 작품들을 사상에술적풍격이 높게 창작해 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닌 인간들이며 당의 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충신의 전형들이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심으로 받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가 낳은 이러한 긍정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이들의 형상을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기 위한데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집중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들끓는 실천투쟁속에

서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혁명적애정문제를 보여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강성대국건설에서 제기되는 생산기술적문제는 새로운 인간문제의 해명으로 지향되고 귀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아무리 의의있는 생산기술적문제라 하더라도 인간문제해명에 필요한 경향이나 사건으로 취급되고 종속되어야 한다.

주체의 문예이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주체사실주의문학에 있어서 생산기술적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풀어 보기 위한 전제와 조건을 지어줄뿐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우리의 일부 작품들을 보면 생산기술적문제가 전면에서 나서는 인간문제가 그에 깔려 재미없고 따분하며 독자들에게 큰 예술적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창작경향은 어디까지나 환경과 성격, 생산기술적문제와 인간문제의 호상관계에서 성격과 인간 문제를 위주로 보지 않던 과거 낡은 창작방법의 잔재라고 말할수있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한편의 소설과 시, 극작품을 써내도 참신하고 생동한 인간문제, 인간성격형상을 중심에 놓고 그를 형상하기 위한데 사건과 생산기술적문제를 종속시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명작들을 써내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또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원형의 생활에 기초하여 깊이 파고들어 잘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지펴올리신 성강의 봉화따라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벽찬 로력투쟁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락관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가 앞당겨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도 끝까지 완성될수 있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키워진 우리 인민의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지닌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을 밝고 뜨

겁게 안겨오도록 형상하기 위하여 거창한 현실에 몸을 잠그고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앞장에 서서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벌리는 원형의 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하며 체험을 잘하고 사색을 무르익혀 시대가 낳은 새로운 인간성격을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생활의 진실을 그린다고 하여 인간생활을 현상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그림에 있어서도 미래를 앞당겨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미를 부각시키는데 귀착시켜 오늘의 일시적인 난관을 보여주어야지 난관 그자체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생활을 어렵게 그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부 작가들은 생활적진실을 그린다는 미명하에 난관과 애로 그자체만을 전면에서 놓고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양상을 어렵게 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생활의 희열을 왜소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본질보다 현상 그대로를 그려내는 사건기록적라렬에 불과한것이며 더 나아가서 문학작품의 인식교양적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문학은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정치를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혁명적락관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어 번지고있으며 이 거세찬 진군은 바야흐로 도래하는 21세기의 광명한 미래와 잇닿아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하여 현실을 뜨겁게 공감하고 그것을 밝게 그리는데 모를 박고 생활을 랑만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아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내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또한 창작에서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기법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이 실현되면 세계의 앞장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이룩되게 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문학의 다양한 형식과 창작기법으로 반영하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이들의 형상을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기 위한데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집중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들끓는 실천투쟁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청년남녀들의 혁명적애정윤리문제를 보여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강성대국건설에서 제기되는 생산기술적문제는 새로운 인간문제의 해명으로 지향되고 귀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아무리 의의있는 생산기술적문제라 하더라도 인간문제해명에 필요한 경향이나 사건으로 취급되고 종속되어야 한다.

주체의 문제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주체사실주의문학에 있어서 생산기술적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풀어 보기 위한 전제와 조건을 지어줄뿐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우리의 일부 작품들을 보면 생산기술적문제가 전면에서 나시고 인간문제가 그에 깔려 재미없고 따분하며 독자들에게 큰 예술적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창작경향은 어디까지나 환경과 성격, 생산기술적문제와 인간문제의 호상관계에서 성격과 인간 문제를 위주로 보지 않던 과거 낡은 창작방법의 잔재라고 말할수있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한편의 소설과 시, 극작품을 써내도 참신하고 생동한 인간문제, 인간성격형상을 중심에 놓고 그를 형상하기 위한데 사건과 생산기술적문제를 종속시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명작들을 써내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또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원형의 생활에 기초하여 깊이 파고들어 잘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지펴올리신 성강의 봉화따라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벽찬 로력투쟁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락관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가 앞당겨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도 끝까지 완성될수 있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키워진 우리 인민의 새로운 성격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

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지닌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을 밝고 뜨겁게 안겨오도록 형상하기 위하여 거창한 현실에 몸을 잠그고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앞장에 서서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벌리는 원형의 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하며 체험을 잘하고 사색을 무르익혀 시대가 낳은 새로운 인간성격을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생활의 진실을 그린다고 하여 인간생활을 현상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그림에 있어서도 미래를 앞당겨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미를 부각시키는데 귀착시켜 오늘의 일시적인 난관을 보여주어야지 난관 그자체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생활을 어렵게 그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부 작가들은 생활적진실을 그린다는 미명하에 난관과 애로 그자체만은 전면에서 놓고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양상을 어렵게 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생활의 희열을 왜소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본질보다 현상 그대로를 그려내는 사건기록적라월에 불과한것이며 더 나아가서 문학작품의 인식교양적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문학은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혁명적락관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어 번지고있으며 이 거세찬 진군은 바야흐로 도래하는 21세기의 광명한 미래와 잇닿아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하여 현실을 뜨겁게 공감하고 그것을 밝게 그리는데 모를 박고 생활을 랑만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내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또한 창작에서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기법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이 실현되면 세계의 앞장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이룩되게 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문학의 다양한 형식과 창작기법으로 반영하며 인민

의 지향에 맞는 특색있는 구성수법과 참신하고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탐구하여,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감정과 미학적요구에 상응한 문학작품을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혁명적량만주의의 우수한 창작수법과 과장 및 환상 수법, 의인화와 예술적 비유 등 전래의 우수한 문학창작기법들과 형상수법들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학작품형식들을 적극 찾아내고 완성시켜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고무추동할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새해가 밝아왔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주체88년!

올해에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해냄으로써 20세기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새해와 함께

리 석

가슴에 안고있던 소원도 더해지고
심장에 새기고있던 념원도 뜨거워지는
새해
우리의 새해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세기의 위인
김정일장군님
그이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이여

이 땅에 흘러온
반만년의 력사여 물어보자
우리처럼 복받은 인민
지구가 생겨 이 세상 어디에
그 언제 있었는적 있었던가

사상의 위인
령도의 위인
풍모와 위인
이런 절세의 위인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모셨던 일 있었던가

오늘의 이 감격
기쁨에 겨워 흐르는 이 땅의 세월
행복에 젖어 이어지는 조선의 새해

백두산천지의 물결도 설레여라
동서해 푸른 물도 노래하여라

이 세상 열백번 변한다 하라
검은 구름 몰아오고
황색바람 아무리 기승부려보라
세기의 위인을
당과 국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 세기를 마중하는 우리의 신심은 드높아라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당을 이끄시고
가장 위대한 군대를 이끄시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끄신
우리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이를 모시고
이제 무궁할 세월과 세월을 이어갈
위대한 우리 조국
우리의 앞날은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아,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를
김일성민족의 진두에 모신
위대한 태양의 나라
나의 조국 자주주의 강국이여
새해와 함께 길이길이 번영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나빌 아흐마드 무쓰라파

당신은 뛰어난 예지를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으로 온 세계를 비쳐주시는
하늘이 낸 천재

당신은 언제나
주체의 뜻 구현하시고
그를 빛나게 꽃피워주시거니
드높이 일떠서는 기념비적전물들도
길게 뻗어간 교량들도
당신의 위대성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수령님의 사상과 위대성을
이어받으시여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되시였거니
우리모두 당신의 사상 따라배우고

그를 신념화하옵니다
하여 우리모두 당신의 령도 따르고
원쭉치는 싸움에로 떨쳐나서렵니다

당신께서 계시여
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당신께서 계시여
래일의 행복이 있거니
당신 없이는
이 세상의 밝은 희망도 그려볼수 없을것입니다

아 당신은 참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가장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필자는 에짚트사람임)

조선의 새해

박 희 구

새해는
진정 새해는
내 조국에서 시작되어
온 누리에 펼쳐집니다

얼굴색은 서로 달라도
하나의 존경과 흠모로 설레며
조선을 향해
온 세계는 삼가 옷깃을 여밍니다

찬란한 향도의 해발아래
한껏 밝아진 지구의 억만 눈빛들이
일시에 우러르는곳은
조선의 하늘!
조선의 태양!

그 하늘
그 태양
가장 가까이 우러러 모시고
축원의 노래, 충성의 노래 드리는
우리 인민의 이 영광 이 행운

온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그 어떤 원쭉도 범접못하는
무적필승의 최대강국으로
신념의 상징인 사회주의등대로
조선은 빛나고있습니다

아,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하늘이시며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사랑과 진리의 빛발로
온 우주를 품어주십니다

은혜의 태양
우리 장군님 안겨주시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조선의 새해는
세계의 새해!
인류의 새해!

새해의 첫아침에

이 땅에 새해가 밝아왔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 새로운 비약의 해, 번영의 해로 빛나게 아로새겨질 뜻깊은 해 주체88년.

지금은 동이 트기전, 사위는 아직 어둠속에 잠기였지만 거리에는 새해를 맞은 기쁨으로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이 쉬임없이 흐른다.

여기 대동강가는 새해의 첫 해돋이를 맞이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차있다.

만수대언덕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고 그 길로 대동강가로 나와 새해의 해돋이를 기다리는 사람들.

해돋이!

이 세상 만물에 생을 주고 삶의 자양분을 주는 은혜로운 태양이 솟아오르는 시각.

해돋이는 언제나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게 한다.

해돋이를 기다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문득 백두산의 해돋이가 떠오른다.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는 조선의 해돋이이다.

백두산.

이 나라 방방곡곡에 줄줄이 뻗어내린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태고연한 밀림의 바다위에 거연히 솟아 천하를 굽어보며 서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우리 조국의 진정한 새 력사,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는 혁명의 성산백두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언제나 백두산을 조종의 산, 성스러운 산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 자고로 우리 조상들은 태고적부터 백두산을 그 누구도 쉬이 오를수 없는 신성한 산으로 여겨왔으며 백두산을 지킨다는 천지의 통신이 이 나라 겨레와 삼천리강토를 무궁토록 지켜줄것으로 믿어왔다. 하건만 백두산지맥이 뻗어내린 이 땅에서는 그 얼마나 오랜 세월 피와 눈물이 마를길 없는 수난의 력사, 비문의 력사가 흘러왔던가.

일제의 발굽밑에서 식민지망국노의 설움을 한탄하며 스러져 가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며 백두산에서 장엄히 솟아오른 주체의 태양.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일제 백만대군과 맞서 혈전을 벌리신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주체의 화불을 높이 추켜드신 그때로부터 사화산이던 백두산은 혁명의 용암을 세차게 내뿜는 혁명의 활화산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으며 어디서나 보이는 혁명의 성산, 영웅의 산으로 높이 솟아 빛나게 되었다.

일찌기 항일대전의 그날 정일봉마루에 오르시여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시며 백두산의 주인,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실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백수굴에 자리잡은 백두산 밀영에 처음 나오신것은 주체 25(1936)년 9월이었다.

백두산밀영에 나오신 그 이튿날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을 사령부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대원들은 사령부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조금 있으면 백두산의 해돋이가 시작되겠는데 우리 함께 해돋이 구경을 하자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일시에 환성을 올리였다.

얼마나 보고싶어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백두산의 해돋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대원들을 이끄시고 밀영의 뒤봉우리로 오르시였다. 기묘하면서도 장엄한 기상에 넘친 봉우리(오늘의 정일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봉우리의 정점에 거연히 서시여 소백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도 바라보시고 서서히 밝아오는 동녘하늘도 바라보시며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조국의 산발들을 부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쩔줄을 모르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에 려명이 시작되누만.》

그러시고는 조선의 려명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 ...백두산의 해돋이가 시작되었소. 조선의 해돋이가 말ियो!》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에 이끌리우듯 백두산의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거대한 용암이 불타는듯 백두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백두산의 해돋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침해를 뵈없이 바라보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얼마나 장쾌하고 아름다운 해돋이요. 저 해돋이에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맹, 순결한 마음이 비껴 있다고 말할수 있소. 저것이 바로 조선의 기상이요! 백두산의 해돋이는 조선의 해돋이요!》

이윽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아아한 산발들과 끝없는 밀림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백두산에 조선혁명의 뿌리를 튼튼히 박고 혁명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산의 주인,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일봉마루에 서시어 바라보신 백두산의 해돋이, 조선의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에서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이룰 떨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향도할 미래의 태양으로 백두산정 정일봉에 찬란히 솟아오른 태양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어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영원히 빛나는 혁명의 성산, 조종의 산으로 솟아 빛나게 되었다.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남달리 사랑하시며 백두산에서의 해맞이를 즐겨하신다. 주체65 (1976)년 7월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시기 위해 일군들과 함께 이른새벽에 백두산에 오르신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었을 때는 아직 사위가 어둡속에 묻혀있었다.

《우리 여기서 백두산의 새벽공기를 마시며 해돋이를 기다립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뒤짐을 지시고 천천히 가시니였다.

드디어 아침노을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득히 펼쳐진 밀림의 바다를 넘어 끝없이 뻗어간 조국의 산발들, 실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령봉과 기암절벽들에는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퍼졌다. 점차 그 색깔이 짙어지며 하늘땅이 온통 불타는듯하였다.

《아침해가 솟아오릅니다. 백두산에서 보니 아침해가 참 묘하게 솟아오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동녘하늘을 바라보시었다.

백두산의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노을이 불타는 구름너머로 태양이 두둥실 솟아오르는데 휘날리는 맹기같이 한줄기의 구름이 아침해

를 휘감아 신비롭고 장엄함을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빨간색노을과 그 우에 있는 노란색노을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습니까.》

백두산의 해돋이 구경은 정말 좋습니다. 해금강의 해돋이 구경도 좋다고 하지만 그 맛이 백두산의 해돋이구경과는 다른것입니다.

한줄기의 구름이 아침해 한가운데를 휘감았는데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진정 이글거리는 쇠물같이 사품치는 해솟는 바다의 열정도 있고 기암절벽에 부채산같은 해발을 뿌리며 솟는 산중해돋이의 락관도 있으며 황금나락 설레이는 전야에서의 해돋이와 같은 정서와 향기도 풍기는 백두산의 해돋이야말로 절경중의 절경이었다.

일군들이 모두 황홀경에 잠겨있는데 주인을 모시고 해돋이를 맞이한 백두산이 천지조화를 일으켰다. 금시에 지척을 분간할수 없이 짙은 안개가 서리였다. 잠시 정적이 깃드는가 싶더니 좌-바람이 일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산정에 부딪쳐 산산이 부서지면서 눈사태처럼 천지에 쏟아져내렸다. 수정같이 맑은 천지가 물결을 일으키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아침해발이 백두령봉에 거연히 솟아있는 장군봉과 향도봉부터 맑게 비치었다. 그 빛발이 부채살처럼 퍼지면서 온 누리에 비쳐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환히 웃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의 모습은 그대로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빛과 열을 뿜는 태양의 모습이었고 그의 미소는 그대로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비껴있는 자애로운 해발이었다.

송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몇해전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시며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우리 나라는 참으로 맑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아침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려명도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해불은 반드시 저해발처럼 어두운 남녁땅과 지구상의 온 누리에 비쳐갈것입니다.

백두산에서 밝아오는 조선의 아침은 백두산과 함께 영원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우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담긴 장군님의 말씀.

그것은 곧 백두산을 떠나 있을수 없는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의 장엄한 선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진정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수령님 백두산에 계시던 모습으로 영생하시고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빛나는 오늘이 있고 무궁번영할 래일이 있는것이다.

백두산, 이 세상에 명산으로 불리우는 이름있는 산들이 많지만 우리의 백두산처럼 위대한 위인의 존함으로 세계의 절정에 솟아 빛나는 그런 혁명의 생산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우리 장군님 사랑하시는 백두산의 해돋이.

그 장엄한 기상에는 백두산을 그대로 닮으신 우리 장군님의 기상과 담력, 배짱과 열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기상과 담력으로 우리 조

국은 중중첩첩한 온갖 만난을 박차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장군님의 그 배짱과 열정으로 우리 인민은 광명한 미래를 띠고 하며 가는 길 험난해도 그 길을 웃음과 노래로 헤쳐나가고있는것이다.

드디어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새해의 첫 해돋이.

푸르른 동녘하늘가에 노을이 붉게 타오른다. 온 누리를 물들이는 그 노을을 배경으로 태양이 솟아 오른다.

백두사의 해돋이로 시작된 새해의 첫아침, 백두산과 함께 영원할 조선의 아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는가 찬란한 해발이 온 누리에 퍼져간다.

본사기자

하늘이 울리는 송가

최영화

하늘이 송가를 울린다
저 무변광대한 공간에
은은히 울려퍼지는 선률
그 선률을 안고
별들이 설레인다
은하수가 설레인다

하늘이 낸
두 장군님의 불멸의 송가를 싣고
불을 뿜으며 그 하늘로 날아오른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반아안은 충격이 우뢰를 안은것만 같아
내 잠들수 없는 이밤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눈끝 닿는 저기 어딘가를 돌고있을
우리의 영웅위성을 그려보며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느라만

하늘이 울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그 친근한 선률들이

별빛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듯
흘러내려 밤의 고요를 흔드는듯

아, 하늘이 생겨 처음으로
하늘에 장중히 울리는 혁명송가
그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노래!

바라보는 하늘이 저리도 아름다움은
우리 장군님 보내신
《광명성1호》 위성을 환영하여
못별들이 송가선률로 하늘교향악을 울리고
은하수 기슭에서 견우직녀가 그 선률에
하늘춤을 펼쳐놓은탓이리니

좋은 밤이여
기쁜 밤이여
저 혁명송가는
벗들에겐 환희와 삶을 주고
원썩들에겐 공포와 죽음을 주는
혁명의 노래
하늘이 영원히 울려갈 불멸의 송가여라



쾌속으로 달린 승용차

주체 64(1975)년 정초 어느날 새벽이었다.

하늘의 못별들도 조을고 산천의 모든것이 얼어붙은듯 정적속에 잠긴 심심야밤에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평양으로 달리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해지구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어느 한 속소에 이르신것은 새벽 2시가 다되었을 무렵이었다.

일군들은 속소에 도착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 오늘밤은 여기서 쉬어 가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침 첫 시간까지는 평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 길로 굳이 떠나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맨 앞차에 탄 한 일군은 온 하루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느라 잠시의 휴식도 없이 보내신 그이의 건강이 넘려되어 장군님께 차안에서라도 잠시 쉬시기를 말씀드렸다.

운전수도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차를 조심조심 몰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계를 보시더니 운전수에게 속도를 좀더 높이라고 하시였다.

차는 얼마간 속도를 더 내여 달렸다.

일군은 운전수가 지내 속도를 높이는것이 아닌가 걱정하였다.

그러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좀더 빨리 갈수는 없습니까.》

《예, 이상은...》

《그래도 좀더 속도를 높일수 있겠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굳이 속도를 높일것을 요구하시였다.

하지만 운전수는 그이상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상의 속도를 놓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던 일군은 운전수의 소행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밝힐인데다가 간밤에 내린 눈때문에 이이상 속도를 높이면 안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쩔수 없으신듯 가방에서 문건을 꺼내여 펼치시였다. 그러시다가 일군을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로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늘 문건을 가지고다니면서 차안에서

도 보군합니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차안에서 문건을 자주 보시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다고 가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수는 없지 않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력은 샘물과 같아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흘려보낸 시간은 영영 보충할수가 없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낄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낄줄 모르는 사람은 일목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었다.

인간생활이란 시간속에서 흘러간다.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성실성도,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도 흘러가는 시간속에서 생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

하기에 시간이 빨리 가서 안타까와하는가, 시간이 가지 않아서 안달이 나 하는가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과 놀고먹는 사람을 가르는 척도의 하나이기도 하다. 시간을 아낄줄 모른다면 그를 어떻게 일목심이 있는 일군이라고 하겠는가.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며 인간생활에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 귀중한 시간을 아끼며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잠시후 자신께서는 어렸을 때 쉬임없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보면서 한초가 한시간이 되여줄수 없을가 하고 간절히 바라군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수령님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면 지금은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위해 여전히 간절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뭐라고 더 말씀드릴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일본일초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한두번만 체험하지 않은 그였지만 그 순간에 받아안은 감동은 참으로 컸다.

아마 운전수도 같은 감동을 받았는지 속도를 좀더 내였다. 어둠에 잠긴 산천이 어둑어둑 스쳐지나갔다. 일군은 차창밖을 바라보며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그래, 이 속도가 다요?》

《예, 최대속도입니다.》

운전수의 대답이었다.
차가 얼마쯤 더 달렸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펼쳐 드셨던 문건을 가방 속에 넣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운전수동무, 나와 자리를 바꿉시다.》

《아니?!》

운전수는 더 말할것 없고 일군도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짐짓 심중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업을 그만큼 했는데도 통하지 않으니 별수 없지 않습니다. 나는 아침 출근시간전으로 사무실에 나가야 할 사람이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수밖에...》

운전수는 어쩔바를 몰라 하며 속도를 더 높여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아니 동무에게야 그럴 권리가 있지 않소. 나 역시 동무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결 부드러우신 어조로 줄음도 가실겸 운전대를 잡아 보자는것이니 넘려말라고 타이르시였다. 잠시후 운전좌석에 앉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운전을 하시였다.

아니나다를가 차가 속도를 내었다. 속도계의 바늘이 120이라는 수자를 넘어서서 바르르 떨더니 다시 눈금을 몇개나 더 넘어섰다. 차창밖의 가로수들이 그 형체를 알아볼수 없이 그저 획획 순간에 뒤로 물러가곤하였다.

고속도로도로도 아닌지라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 진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너무 속도를 내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속변을 밟으신채 왜 그리 겁이 많은가고, 혁명을 하자면 위험한 길도 헤쳐가야 하고 필요하다면 모험도 해야 한다, 나는 위험한 일을 피하고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큰일하는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통조로 말씀하시기에 일군은 전쟁때라면 저도 위험을 가리지 않겠지만 평화로운 날에 사고를 치면... 하면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일없소. 운전은 내가 자신있소.

앞이 캄캄하여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 보십시오.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그래도 출근시간전에는 평양에 들어설수 있습니다.》

《물론 출근시간까지야 가겠지요. 그러나 나는 출근시간 훨씬 전에 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까지의 통조와는 달리 신중하신 어조로 자신께서는 일찌기 사무실에 나가 밤사이에 제기된 일들을 알아보고 긴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

씀을 이으시였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일과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런데 내가 일요일에 천지에 나갔다가 그것을 어긴다면 다른 일군들도 지방에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늦게 나와도 되는것처럼 생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그러면 또 아래일군들속에서 별치 않은 리유로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어기는 현상들이 나타날수있다, 이렇게 되면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무규률적인 현상들과 투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자각적이며 성실한 사업기풍, 혁명적투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일군은 그때에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시간을 앞당기시며 수백리 밤길을 주름잡아 달리시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단 세워진 제도의 질서, 규률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생명으로 보시기에 자신께 스스로 높은 요구를 제기하시며 실천적 모범으로 일군들을 이끌어주시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 일군은 앞을 주의깊이 살펴보며 나타나는 정황을 말씀드리곤하였다.

승용차는 어둠을 헤치고 쾌속으로 달렸다.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까마득히 떨어져 불빛마저 희미해졌다.

운전대를 틀어쥐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앞에 나타나는 정황을 미리 알려주니 마치 우리가 함께 운전하는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 언제나 이렇게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함께 헤쳐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력사의 이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올렸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달려온 그 길은 일군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혁명의 행군길이었다.

어둠을 헤치고 쾌속으로 달린 승용차.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며 우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체자로서 레사롭게 맞고 보내는 일분일초를 어떻게 아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주는 수많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평양학생소년궁전 창립 35돐에 드린다-

명준섭

어디냐 내 어릴적
꽃잎같이 작은 발자욱 찍어가던
대리석층계는

어디이나
하얀 피아노건반을 고르며
청고운 목소리 터치던
불밝은 무대는

내 이제는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때없이 오르노라
장대재언덕이며

그러면
파-란 소조원증 받아안고
너무 좋아 쿵쿵 뛰던
그날의 소년이 된 마음
대리석기둥에 두발을 부비며
걸어온 그날들을 추억하나니

오 장대재여
돌기돌기 세월의 년륜에
서른다섯해를 새긴 이 아침
내 너의 언덕에 올라
못잊을 자욱자욱을
쓸어보고 안아보며
삼가 이 시를 엮어 드리노라

×

벌써 동이 트는가
전나무 잎새엔 맑은 이슬이 구울고
어디선가 잠을 깬
비둘기들의 날개깃소리

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우리 수령님 여기 계시누나
오늘도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새 아침을 맞으시여라

새벽에도 이른새벽
우리보다 먼저
궁전에 찾아오시여
금방 소조실들을 돌아보고 나오시는듯

우리보다 먼저
아이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무지개 뿜어올리는 분수가 저너머
노을피는 새 아침을 맞으시는듯

사랑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지은 집
수령님 우러러 뜨거워지는 마음
삼가 옷자락 여미니

들려온다 삶의 기쁨이
붉은 기폭에 퍼덕이던 땅
유격근거지 하늘아래 울려퍼지던
그날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내 들어서노라
통나무귀틀집
아동단학교의
그 작은 트랙으로

그러면
다시금 뵈옵나니
아동단학교의
첫 개교식에 나오신 사령관동지
근거지 끝마다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어이하여 그이의 안광엔
뜨거운 이슬이 맺히셨던가

학교가는
부자집아이들을 업고 돌다리 건느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래우며
몽당치마에 얼굴을 묻던
이 나라 녀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는가

편지 한장 읽어줄 사람이 없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답답한 가슴 쥐어뜯던
이 나라의 캄캄한 밤을 안으셨는가

물어선 무엇하랴
그이의 심벽을 두드리며

파도치며 굶니는 천만생각
빼앗긴 조국
깃뽕힌 겨레의 절규여

통나무책상앞에 앉아
너무 좋아 웃음이 넘실거리는
더벅머리 아이들을 보시며
조용히 하시던 말씀

-아이들아-
이제 조국이 광복되는 날
너희들에게 새집을 지어주마
이 세상 제일 큰 궁전을 지어주마-

이렇게 안고 오시지 않았더나
아동단학교의 그 작은 트랙을
오늘은 이처럼 넓은
운동장으로 펼쳐주시고

아동단학교의
그 통나무기둥을 다듬어
오늘은 이처럼 억년 드놀지 않는
대리석기둥으로 세워주셨거니

부디 잊지 마시라
저 번쩍이는 은빛창문은
아동단학교의
그 작은 띄창

저 무리등에 명멸하는 불빛은
밤새도록 교과서를 쓰시며
등잔을 돌구시던
밀영의 그 불빛

오, 우리 수령님
빨찌산 군복자락에
아이들을 감싸안으시고
천신만고 달게 여기시며
백두에서 안고오신 집
아이들의 궁전이어

하기에 우리 장군님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여라
수령님의 력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시작되었다고...

×

해방된 조국
장대재언덕에 올리던
레배당의 종소리
어이하여 이 아침에도

나의 가슴에 울려오는것인가

이 장대재는
하느님이 정해준 자리라고
그 누구에게도 여기만은 내줄수 없다던
평양의 유명한 홍목사
무슨 사연 있어 그날에
우리 수령님을 찾았던가

광복성전의 20성상
풍찬로속하신 수령님
이제라도 잘 모시자고
불타는 겨레의 마음들이
산갈은 애국미로 쌓이는데

집터를 잘 골라야
나라가 흥한다고
그래서 홍목사
아뢰는 소원도 간절하여라

허나 우리 수령님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내온 애국미로
대학을 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재에는
이 나라 아이들의 궁궐을
멋있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오 항일의 혈전만리
피로 찾은 이 땅을
그대로 아이들의 왕국으로
미래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래서 해방된 이 땅엔
아이들의 궁전터전이 마련되고
건국의 희열에 받들리어
층높은 궁궐이 솟아올랐나니

누가 알았으랴
그 벽체들이
허리부러져 덩굴줄은
그 기둥들이 원썬들의 폭격에
양상한 철근토막으로 남아
부르르-치를 떨줄은

한줌 흙을 쥐여도
파편이 절렁이던 장대재
이 언덕우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서계시었으니
여기가 바로

아이들의 궁전을 짓던곳이라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던
수령님의 갈리신 음성이어

한걸음 두걸음
불연기를 헤치시며
수령님과 함께 우리 장군님
가신곳은 그 어디였던가

...

오랜만에 고요가 깃든
최고사령부의 밤
어디선가
밤의 심원을 아뢰는 소쩍새소리
창문을 흔드는 술바람소리

오 그밤에
우리 수령님 작전탁에 놓인것은
오래도록
몇번이고 보고 또 보신
아이들의 궁전 설계도였나니

그 무엇을 생각하신듯
수령님께선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우리 장군이 보아야
아이들 마음에도 들것ियो-

그날에
우리 장군님 안으신것은
승리한 조국의 래일
먼먼 앞날로 끝없이 내려쳐갈
조선의 미래

오, 미래여! 미래여
그대가 겪는 작은 아픔도
이 세상 제일 큰 아픔으로 안으시고
그대의 두볼에 넘치는 웃음도
이 세상 제일 큰 기쁨으로 펼치시며

그대의 맑은 눈동자에 담아주신
희망의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대의 머리우에 얹어주신
창창한 하늘은 얼마나 넓었던가

지금도 이 가슴엔
그 시절의 천리마가 네굽을 구르며 날은다
미래를 위해 걷고걸으시던
못잊을 길들이 물결쳐온다

재더미만 남은 이 땅
아버이수령님 얼마나 힘에 겨우셨으랴
공장으로 농촌으로

끝없이 이어가시던
현지지도의 길들이여!

내 눈을 감아도
재가루가 발등을 덮던
강선의 구내길이 떠오른다
폭탄웅덩이에 개구리들이 뛰어들던
청산리의 두령길이 파도쳐온다

조국의 북단에서 남단 한끝까지
수령님 걷지 않은 길들이 있었던가
그 길에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긋은날이 따로 없었다

오 그 길들에서
겹치고 겹친 로고를
내 어찌 다 말하랴
순간의 쪽잠으로
천날의 로고를 푸시던 수령님

꿈결에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던가
조용히 눈길을 드시여라
-라디오를 좀더 크게 켜시오-

때맞춰 울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우리의 아버지원수님
궁전을 지어주신대요
평양에 궁전이 일떠선대요

둥기당당 가야금에 실려
봄바람처럼 스며드는 노래소리 노래소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누만-
아 그이께서는
쪽잠마저 잊으시고 일어서신다
장대재언덕으로 오르신다

사람들이여
알고나 있었던가
휴식일의 하루
그대들이 아들딸들의 손목에 이 끌려
모란봉으로 대동강기슭으로
즐거운 걸음을 옮길 때

아슬한 건설장의 발판을
어떻게 오르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수령님 걸음걸음을 받들었는지

아시는가

수없이 고쳐그린 설계도를
다시금 다시금 보아주시며
아이들 가슴이 탁 트이라고
전망대까지 세워주시던
그 위대한 손길을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라
그러면 오늘도 들려오는
장대재언덕에 한그루 비술나무
천만잎새 설렁이는 소리

쨍! 쨍
얼어붙은 암반에 불꽃이 튀면
그날의 메질소리 들려온다
우리 장군님
무더운 여름날 목고채를 메시고
땀을 철철 흘리시며 뛰고 달리시던
그 모습이 어려온다

품어주고
가꿔주고
키워줄 그 미래앞에
설계가도 되시고
건설자도 되시던 **김정일** 장군님

서느러운 그늘을 던지는
비술나무밑에서 하시던 말씀
오늘도 이 가슴을 친다

혁명도 후대들을 위하여!
건설도 후대들을 위하여!
이 위대한 사상으로
우리 조국은 강대하고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한다고...

전하라 전하라 비술나무여
끝없이 흥치며 설레이며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

아, 내 또한 다 전하기엔
이 붓이 모자라누나
허나 나무람마시라
그 위대한 사랑을
천만시인이 합친들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

×

설날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대원수님 모신 설맞이
대리석궁전은

꿈결처럼 황홀하고
저 하늘의 은하는
흘러서 창문가에 드리우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설맞이 소나무에
오롱조롱 열두달을 걸어놓고
수령님 손목잡고 춤추던 그날은

내 한생의
먼먼길을 다 돌아보아도
그날처럼 즐거웠던 날은
아마도 없었으리

그날 수령님
얼마나 기뻐 웃으셨던가
-우리는 어렸을 때
천대받고 못살았지만
아이들이야 잘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온 세상이 부럽도록 말이요-

아이들이 매여드린
붉은넥타이를 보시며
십년은 더 젊어졌다고
만면에 담으시던 웃음

그 웃음이였다
개관식의 그날에
길게 드리운 테프를 꿇으시고
소조실 방마다 다 돌아보시며
-이제는 내 평생의 소원이 풀렸소-
천만시름 놓으시던 웃음

잊지 못해라
먼 나라 수반들이 올 때마다
꼭꼭 궁전에 나오시여
귀여운 아이들을 내세워주시던
한없이 친근한 아버이

수천수만의 아이들이
하루공부 마치고 찾아와
배운 지식 다져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이 집에는
아름다운 노래 흘러나오고
신비로운 과학의 열쇠도
넘치는 장수힘도 다 있어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없이
마음껏 일하게 되었다고

온 궁전에 넘치던 수령님의 웃음이여

오실 때는 그 미소를 안고오시고
가실 때는 그 미소를 두고가시던
우리의 아버지
언제 한번 이 집에 오시여
웃음을 건으신적 있었으리

허나 어느 가을날
그처럼
안색을 흐리신 그이
내 처음으로 뵈웠나니

붓을 달리기에 도 송구해라
한장의 《주의사항》
...비품을 손상시켰을 때는
그 학생이 변상한다...
수령님 눈길을 못떼시던 글줄이여

-장난세찬 아이들이
비품을 좀 손상시킨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이들 보고 변상하라니 말이 됩니까
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하겠소!-

오 이런 사랑이
그날만이었던가
알면서 받은 사랑
내 미처 모르고 받은 사랑은

그날도 그이께서는
현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고계시였다

수도의 밤거리
이제는 하나둘 불이 꺼지고
물안개를 뿌리며 달려가는
청소차의 발동소리도
저 멀리로 사라지고...

흔들리는 차안에서
보물인 수첩을
조용히 펼쳐보시는 그이

조선을 이끄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이의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있었던가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질수 있음
수예소조실의 전등을 교체 할것-

밤도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가고
늦어진 수령님의 휴식시간을 두고
서둘러 달리던 승용차
어인 일인가
미끄러지듯 멈춰선다

-궁전에 불이 꺼졌구만-
늘 수령님 모시고
동행하던 일군 말씀을 올린다
...수령님! 우리 아이들도
전기를 절약하느라고
불을 끈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천천히 차에서 내리시여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불이 꺼진 궁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여라

아이들의 소행이 기록하시여
생각도 깊으신가
밤바람은 가벼이
옷자락에 매달려 어리광치는데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자는것도
어린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소년궁전의 불빛만 보아도
하루피곤이 다 풀립니다-

쨍-가슴을 치는 그 말씀
일군들은 목이 꼭 메여오르는데
그리고 아프게
그리고 뜨겁게
그 말씀 받아안으시는 분
그분은 **김정일** 장군님

그밤으로
설계가들을 부르시여라
수령님 사랑이
밤에도 무지개다리를 놓으라고
꽃전등으로 수를 놓아
숫구치는 분수에 새겨주시여라

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노래
온 나라에 비껴가라고
장식등의 빛을 끌라
궁전 창가에도 걸어주시여라

어느 봄날엔가
우리 수령님 아이들 궁전에 나오시여

넓은 홀을 거니시며
조용히 부르시던 노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뽕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 노래
온 우주가 다 들으라고
궁전 처마우에도 빛내여주셨나니

세상에 부럼없어라
머리위에 왕관처럼 떠오고
만리창공을 향해 빛발치는 불빛이어

저 불빛이 아니더냐
우리 장군님
전선에서 전선으로
끝없는 현지도길을 이어가시던
승용차의 불빛은

저 불빛이 아니더냐
하염없이 함박눈 내리던 그밤
어느 산촌의 역두
장군님 밤을 새시던
려객차의 불빛은

그 불빛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조국이 자라고
미래가 자란다

오 불빛이어 불빛이어
소년궁전 불빛이어
너는 어느 세월
어느 한순간에도 꺼질줄 몰랐나니

너는 큰 가슴 들먹이며
마중오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이 행성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장군님 해발로 영원하리라

×

아이들도 어른들도
장대재언덕을 오를 때면
우러러 바라보는 창문들이 있어라

장군님 일보시는 당중앙창가

우리 장군님
창문을 여시다가도
제일먼저 바라보시는 집이 있어라
장대재언덕 아이들의 궁전
해빛밝은 창가들

그 언제나 흘러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속에 힘을 얻으시고
래일을 그려보시고
그래서 집무실도
소년궁전결에 정하신것은 정녕 아니던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때면
힘든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낮과 밤을 분과 초로 이어가시나니

래일을 위한 오늘에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락관의 의지
오늘만인 아니라
먼 래일에 가서라도 손색없이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불변의 의지

아 정말 만점짜리로
만경대고향집과 처마를 잇고
새 궁전이 솟아오를 때
이 나라 인민들은 얼마나 목메여 울렸던가

아껴 모은 돈으로
저 송도원기슭에
온 세상 아이들을 다 부르며
야영의 기발이 나뵈길 때
세계는 경탄했다

해수욕장의
그 좋은 하얀 모래를 두고도
더 좋은 금모래를 퍼주신 사랑

궁전창가에 맺혀 흐르는
한방울의 이슬을 두고도
이제 성애가 불리우면
아이들이 밖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덧창까지 달아주신 손길이어

그 창가에 이슬은 사라졌어도
때없이 우리 가슴에 맺히나니
그래서 때없이
가슴젖는 우리이거니

등을 보라 서를 보라
이 나라 방방곡곡
장대재언덕과 나란히 제일 좋은곳엔
소년궁전들이 높이 솟아
저 하늘의 달과 별을 휘어잡고

묘향산의 줄기마다엔
하얀 등산모 구름처럼 흐르고
굽니는 파도우엔
《소년호》 배고동소리
즐거운 교향악을 터치여라

절승의 명산도 아이들의것
명승의 기슭도 아이들의것
이 나라 명당자리는
모두 수령님 터를 닮으시고
우리 장군님 지어주신것

어찌 오늘날이라
먼먼 앞날까지 안고 사시는
위대한 인간 장군님 마음속엔
끝없이 번영할 조국과 함께
세계 1등급의 아동병원
아동도서관 아동백화점도
높이 솟아있나니

하기에 이 나라 아이들은
그이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
온 나라가 한마음
아버이로 받들어 모시는것이여라

장군님은 바쁘시다
장군님은 일감도 많으시다
우리의 살림도 돌보셔야 하고
사회주의도 지키셔야 하고

장군님은 바쁘시다
동란하는 세월의 격류속에
정의와 진리로
인류를 이끄셔야 하고
새 세기도 건설해야 한다

온 한해
일년 삼백에순다섯날
눈비에 젖은 야전복 마를새 없이
혁명의 최전선에 계시나니

후대들을 위하여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백두의 그날에
아이들을 품에서 놓지 못하시던
우리 수령님처럼

사나운 광풍이 몰아칠수록
더 뜨겁게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우리 장군님

그해 새해의 첫날아침
그날도 장군님께선
전선길에 서계셨여라

눈보라 눈보라
하늘땅을 휘감으며 몰아치는 눈보라
그 무슨 사색이
우리 장군님 심중을 울렸던가

장군님 마음이 가닿은곳은
련련히 뻗어간 산밭너머
아이들의 설맞이무대
조용히 울리는 그이의 음성이어

-설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령님이 그립겠소
나는 그애들을 생각하며
온밤 잠들지 못했소
동무가 내대신 찾아가
설날을 축하해주시오-

오 새해의 첫아침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두발을 구르던 어린 가슴들에
수령님의 사랑을 짝 채워주실 때
세제는 보았으리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수령님의 력사는 흐르고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장군님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나니

그 흐름속에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웃으며 가는
우리 인민을 보았으리라

최후에 웃는 승리자의 조선
새 세기에 찬란한 조선을
그 강성대국을 보았으리라

이 세상에서
슬하에 식솔이 가장 많은 우리 장군님
그 위대하고
행복한 미소를 보았으리라

내 다시금 듣노라
장대채언덕
그 옛날 레배당의 홍목사
마지막운명의 그날에
아들딸 손자들에게 남긴 소원을

너희들이 자라난 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
내 다시 환생한다면
조선의 하느님
그이 품에 환생하리라

이 어찌
홍목사의 소원만이였으랴
나도 조선의 아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가
이것은 국제야영의 나날에
그 파랑눈소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나니

내 아들딸들도
여기 궁전에 맡기고싶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싶어요
눈물이 글썽이던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
그전날의 한 녀교원의 피타는 목소리

그렇다 장군님의 품은
조선의 아이들만이 아닌
온 인류의 미래를
다 말아 키워주는
한없이 넓고넓은 사랑의 품

그 품이 있기에
동터오는 21세기는 이처럼 밝고
주체의 붉은 기폭은
희망의 노을이 되어
온 지구를 덮으리라

×

대동강가
해쫂는 이 아침
궁전의 창문들은
세계를 향하여 다투어 열리어라

아버이수령님
달려오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려는듯
환한 웃음 지으시며 두팔을 벌리시여라

저 훈장을 절령이는
영웅전사는
어느 설날엔가

수령님 옷자락에 매달리던
애어린 그 소년

꽃다발에 얼굴을 묻는 저 배우는
어느 화창한 봄날엔가
장군님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응석받이 그 소녀

내 다 알지 못해라
이 언덕을 내려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용맹떨친
영웅전사들은 그 얼마인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던
인민체육인 인민배우
교수 박사들은 또 얼마인지

노래하노라 평양학생소년궁전이며
그대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한생을 바쳐 쌓아올리신
거룩한 사랑의 탑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락을 누려갈 행복의 탑

수수천년
인류가 쌓아도 이처럼 못쌓을
사랑의 절정우에서
내 목청껏 노래하노라

세월의 한끝까지
태양의 빛으로 영원할 미래의 집
위대한 태양이 제일 가까이 빛나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궁전이며
로동당시대의 소년궁전이며
아! 아-

수령님 모시여
장군님 모시여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주체87. 9. 23)

랭천골

묘향산등산안내도를 보면 신향산지구에 상원골, 만폭골, 문수골, 천태골, 칠성골과 함께 랭천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안내도와 신향산지구지형도에는 이 랭천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면 랭천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이름과 더불어 묘향산사람들속에서는 흥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묘향산 하비로지구 옥천동에 있는 금강굴에서 산비탈을 두어 굽이 돌아오르면 그리 작지 않은 골짜기가 나진다. 바로 이 골짜기가 랭천골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무명의 골짜기였다.

어느해 봄 묘향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등산로정을 금강굴로 해서 형제폭포(오늘의 이선남폭포)로 오르는것으로 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칠성동천으로 난 평탄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금강굴로 해서 산비탈을 오르고내리면서 등산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멀고 험한 길을 택하시였다.

등산길에 오른 수원들은 후더워 오르는 가슴을 안고 천험의 산골짜기를 헤쳐갔다.

이날 등산길은 참으로 간고한 길이었다.

그이께서는 것처럼 간고한 등산길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어디에다는 안전사다리를 놓고 또 어디에다는 휴식장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등 등산길을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산비탈을 타고 비로문터에서 1.5키로메터 지점에 있는 금강굴에 올리가 본후 다시 산비탈고개길을 세번씩이나 넘자니 답사단성원들은 지칠대로 지치였다. 이날따라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입으신 등산복에도 땀발이 흥건히 배여있었다.

수원들은 벌써 몇번이나 그이께 휴식하자고 말씀드리였다.

《일없소. 조금만 더 가서 쉽시다.》

그이께서는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서 걸으시였다.

수원들은 바람 한점 불지 않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바람이라도 좀 불지.》

어떤 사람들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무더운 날씨

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얼마를 못가 나무그늘이 나지자 한 일군이 또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서 잠간 휴식을 하시고 떠나십시다.》

《조금만 참으시오. 좀더 가서 쉽시다. 자, 힘들면 내 손을 잡으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아래일군들을 내려하시여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찌는듯 무더운 날씨는 그들의 온몸을 땀으로 미역을 감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보다도 땀에 흠뻑 젖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잠시라도 휴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였다.

바람이라도 좀 불었으면 좋으련만 어찌나 물쿠는지 풀잎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얼마후 작은 등성을 하나 넘어서니 바위들이 듬성듬성 놓여있는 널찍한 장소가 나지였다.

안내자와 수행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기서 쉬고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먼저 《자, 여기서 땀을 들이고 잡시다.》 하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피로가 몰릴대로 몰린 일군들은 기뻐하면서 그이께서 앉으시자 저마다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골라 바위에 걸터앉았다.

너럭바위위에 앉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접이부채를 펴시고 그것을 두어번 흔드시였다.

바로 이때였다. 여적 바람 한점 불지 않던 골짜기에서 갑자기 나무숲이 설레이더니 차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늦게 도착하여 죄스럽다는듯이 서둘러 답사단성원들의 땀발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랭천바람이 불어오누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샹츠단추를 풀어 헤치시며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 향해 들어앉으시였다.

순간에 땀을 거두고 피곤을 쫓은 일군들은 점차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랭천바람이라니? 우리가 오르자마자 어디서 이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가.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이런 좋은 휴식장소를 아셨을까?)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조용히 떠있던 문개구름이 갑자기 뒤설레이였다. 그리고 온 골짜기의 숲이 짙-

썩- 소리를 지르며 가지를 흔들어들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가?
 수원들은 그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안내자에게 조용한 어조로 여기가 무슨 골짜기인가고 물으시었다.
 안내자는 아직까지 이 골짜기에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드리었다.
 《이런 아름다운 골짜기에 이름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묘향산에는 하도 아름다운곳이 많다니 이름을 미처 짓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좋은 이름을 달아줘야 하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서느러운 바람에 땀을 들이시면서 땀새동안의 등산 체험에 기초하시여 묘향산의 등산로정은 결론하시었다.
 참으로 이 이름없던 골짜기는 세기의 위인을 맞아 그이께서 등산 로정과 방법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유서깊은곳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땀발을 들이여드린 그 바람은 칠성동천에 있는 큰 룡이 그이의 덕망에 감동되어 조화를 부린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이들은 하늘이 감복하여 바람을 불게 하였다고도 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기한 부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조화를 부리시였다고도 하였다.
 하여간 그 령천바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있다.
 그래서인지 그이후 이 골짜기의 이름은 사람들속에서 스스로 령천골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령천골이라는 이름에는 천문지리에 능통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고장 사람들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김 우 경

오늘의 대흥단

박 영 학

오래간만에 자식의 집에 오신듯
 꿈만같은 사랑을 부어주신곳
 장군님 찾아주신 력사의 땅 대흥단은
 이 나라 복변의 한 기슭에 있던가
 가슴 몽클 젖어올라라
 소문도 없이
 기별도 없이
 그이 몸소 오셨던 그날
 집무실의 정원길을 다 아시듯
 장군님 모르시는 분장
 장군님 모르시는 길이 없었거니
 이칼술 설레이는 대흥단 유래비앞으로도
 이슬내린 탈전소의 구내길로도
 남먼저 앞장서 걸으시던
 어버이장군님
 작년보다 감자가 더 잘됐다고
 기쁨 넘친 미소도 지으시며

보내준 종자가 어떤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시며...
 서두수 물소리 정답게 들으시며
 발전소건설의 선구자들이라고
 사랑 담아 하시던 그날의 말씀
 오늘도 못잊어
 래일도 못잊어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이 계시고
 그이의 크나큰 가슴속엔
 언제나 대흥단이 꼭 차있나니
 사람들이여
 벽에 걸린 한장의 지도우에서
 사랑의 땅, 오늘의 대흥단을 찾지 마시라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대흥단을
 우리 장군님 펼치시는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에서 찾으시라

시인과 시대정신

-지난해 《조선문학》(1~6)호에 발표된 시작품을 두고-

강성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 우리 시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문화위업의 길을 따라 오늘 줄기찬 발전의 길을 힘있게 걷고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송가문학과 함께 건국 50돐을 맞이하는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노래하는 헌시들 그리고 다양한 전투가요들과 노동가요들, 생활적인 시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인민의 사상미학적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주체사가문학의 정수를 이루는 수령형상창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정시 《숫눈우에 첫자옥》(《조선문학》 3호, 신문경), 서정시 《수령님은 오늘도 별로 부르시네》(《조선문학》 1호, 박두천), 서정시 《영생의 기적소리》(《조선문학》 1호, 처창근), 서정서사시 《전선길의 3일이야기》(《조선문학》 4호 황성하, 박경십), 서정서사시 《사랑의 약속》(《조선문학》 2호, 리석) 등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새해 첫 시작
숫눈우에 첫자옥
멀리 전선으로 초소로 이어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

어깨우에 실린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떠메시고
가벼운 흰눈우에
무겁게 찍으신 그 자옥
(서정시 《숫눈우에 첫자옥》중에서)

우리혁명앞에 가로놓인 역경을 헤쳐나가는가 못헤쳐나가는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지켜내는가 못지켜내는가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두 어깨에 떠메시고 새해 주체87(1998)년의 숫눈길을 멀

리 전선으로 초소로 이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을 노래하는 시인의 호흡은 시에서 자못 긴장되어있다. 짙막한 운, 긴장한 툴, 높은 호흡은 시인의 사색의 깊이, 심장의 박동의 세기를 잘 말하여준다.

시인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거룩한 품모를 형상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요란한 수사학적인 표현에 의거하려 하지 않았다. 시인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험로역경을 헤쳐가며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는 장군님의 형상을 무겁고 거룩한 자옥, 거기에 깃든 심리분석에 강한 력점을 찍고있다. 이 시에서 새해 첫눈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것인가. 그러나 거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자옥은 진정 무겁고 거룩한것이다.

아, 봄은 오리라
봄이 오고 눈은 녹으리라
허나 그 자옥은 지워지지 않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장장 력사우에 빛나오를 그 자옥

시인은 시의 결구에서 끝내 자기의 주정을 소리높이 터치고있다. 봄은 진실로 웃것이다. 봄은 오고 얼어붙은 눈은 녹아버릴것이다. 그러나 이 강행군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 첫새벽에 숫눈길을 헤치시며 거룩하게 찍어나가신 그 위대한 자옥은 력사와 함께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빛날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인이 찾은 하나의 귀중한 시적발견이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과 독자들에게 말하고싶은 귀중한 진리가 있으며 우리같은 호소가 있다.

자그마한 시적계기와 서정적발견을 통하여 우리 시대와 우리 조국, 아니 온 력사를 일반화한것, 이것이 서정시가 보여준 주요한 성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자면 무엇보다 먼저 작가 자신이 옳은 사고관점과 사고방식, 미학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작가들이 견결한 사상과 순결한 량심을 가지는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고 위력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내외원썹들의 준동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우리 조국, 우리 사회주의는 그야말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다. 이것은 붓을 쥔 작가들에게 정치사

상에서나 미학상에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나의 량심은 순결한가, 깨끗한가? 사상이나 도덕에서 심지어 정치생활에서 티끌만한 결함이 없는가? 이것은 오늘 강행군시기 최후돌격전에 들어선 시대가 량심의 붓을 쥔 우리 작가들에게 심장을 두드리는 강렬한 호소이다. 순결한 량심, 견결한 사상, 이것은 강행군시기 우리 시대가 우리 작가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고고성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는 서정서사시 《전선길의 3일이야기》(황성하, 박경심)에서도 감명깊이 느껴볼수 있다.

《숫눈우에 첫자욱》이 짙막한 서정시의 형상속에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새해의 숫눈길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깊은 사색과 뜨거운 정서속에 형상하였다면 서정서사시 《전선길의 3일이야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초소를 시찰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최고사령관과 우리 전선초병들, 나아가서 인민들사이에서 맺어지는 혈연적관계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인것과 서사적인것의 유기적결합, 사실주의적인것과 량만적수법의 통일, 이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먼저 비약과 함축, 생략과 집중의 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장군님의 전선시찰과정을 3일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집중시키고있으며 그것을 다시 더 나아가서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병사들과 인민들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그리움으로 빨강게 무르익은 붉은 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적형상을 발전시키고있다.

최고사령관과 감 한알
그것은 너무도
나란히 할수 없는 작은 이야기

허나 그것은
그 어떤 무장력에도 비길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불패의 힘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심장의 열
이 세상 가장 그윽한 인간의 정

그것은 땀해야 땀수 없고
가를해야 가를수 없는
최고사령관과 병사와 인민이
혈육으로 맺어진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대명사

아 감 한알
사나운 폭풍에도 격랑속에도
천만의 가슴속에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에 따로 없이 무르익는

조신의 감
그것은 김정일장군님품에 운명을 맡긴
인민의 마음이었다!

그것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도 바꿀수도 없는 사랑의 불씨였으며 믿음의 열화였으며 강렬한 인간적정이였다.

서정서사시 《전선길의 3일이야기》는 조국과 수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넘쳐나는 우리 시대, 우리 생활에 대한 훌륭한 사랑의 서사시이고 우리 젊은 녀류시인들이 낳은 열정의 분출이며 불덩이였다.

우리 시문학은 최근 또한 탄생 선뎡을 맞는 우리 공화국과 그 업적을 노래하는 서정시창작에도 적지않은 주목을 돌리였다. 서정시 《조국이 부르는 소리》(《조선문학》 1호, 최승철), 서정시 《나는 궁지높은 세대》(《조선문학》 2호, 김병두), 서정시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조선문학》 5호, 문용철), 서정시 《마지막 한발》(《조선문학》 1호, 박호범), 서정시 《영웅에 대한 생각》(《조선문학》 5호, 박웅전) 등은 이에서 좋은 시사를 보여주고있다.

조국이여
너는 력사가 모여 파도치는것
선렬들이 우리에게 해불을 넘겨준
엄숙한 투쟁의 터전
죽어도 못버릴 인생의 전호
너는 사람마다 창조의 선물안고
후손들을 마중가는 도도한 흐름이어라

진정 조국은
민족의 거창한 집단예술
대를 이어 다듬는 인민의 궁전
거기 구경군은 설자리 없나니
사람마다의 참다운 이름도
한생의 충성우에 지어지더라
(시 《조국이 부르는 소리》중에서)

시인은 조국을 단순한 산천경계로나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고향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다. 시인은 조국이란 더 나아가서 선렬들이 후대들에게 넘겨준 준엄한 투쟁의 터전이며 죽어도 버릴수 없는 인생의 전호이고 사람마다가 창조의 열매를 안고 후손들을 마중해 가는 력사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격조높이 웨치고있다. 그러므로 거기엔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군이나 건달군들이 설자리가 없으며 사람들의 참다운 이름은 오직 한생의 창조적인 로동, 한생의 충성우에서만 지어진다는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있다.

서정시 《조국이 부르는 소리》는 작가가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돌입한 준엄한 그날의 시점에

서서 창조와 로동, 투쟁을 찬미하며 허풍과 안일, 건달을 징계하는 준렬한 고소장으로 되고있다.

안일과 해이, 허풍과 건달에 대한 끝없는 증오, 창조와 열정, 충성과 로동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이것이 강행군의 오늘 최후돌격시기에 시인이 우리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조국에 대한 순결한 량심이였으며 견결한 시대정신이였으며 드높은 사상이였다.

오늘의 조국, 그것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하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바로 시인들이 견결한 사상과 관점, 립장에서 조국을 새롭게 느끼고 음미하고 받아들이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드높은 혁명정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혁명적군인정신, 당과 수령의 은덕에 꼭 보답하고야마는 순결한 량심과 혁명적의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량만과 혁명적락관주의,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린 작가들에게 말하는 시대정신이며 시이다.

서정시 《조국이 부르는 소리》가 강행군시기의 현시점에 서서 조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독자들에게 깨우쳤다면 서정시 《나는 금지높은 세대》는 암흑과 광명의 두 시대를 걸어온 오랜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한 커다란 금지와 자부를 소리높이 웨치는것으로 되고있다.

실생활로 확인되고 심장으로 체험된 진실한 감정,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금지높은 민족적자부심과 금지감은 이 작품의 정서적핵으로 정수로 되고 있다.

...

하나 이 땅 아닌 다른곳에서
나의 생의 몇백년으로 다시 시작된대도
수령님 품에서 맞고 보낸 행복했던 날과 달과는
절대로 아니 바꿀
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한
금지높은 세대다!

시인은 결구에서 흥분에 넘쳐 숨결을 가늠하지 못하며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토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한 로동계급의 끝없는 금지와 자부, 이것은 억제할수 없는 시인의 행복한 절규였다.

지난해 우리 시인들은 또한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 행복하게 된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로써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특히 젊은 시인 문용철의 농촌에 대한 두 서정시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와 《미래를 아껴》는 지금 이채를 띠고 독자들속에서 광범하게 읽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

하여 눈부시게 변모된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사랑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한폭의 잘그려진 조선화에 취한 듯한 질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침이면 실실이
뜯김을 피워올리는
마당가의 그 두엄내
싫지 않게 말아보았습니까?
햇서리에 곱게 익은 빨간 감
제손으로 따랐습니까?
네 고향은 농촌입니다-

고향별 이골에서 저골까지
온통 곡식이 자랐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동네분들 걸싸 손이 자래운
강냉이바다 와술렁거림소리가
아직도 내 귀전에 가까운
어릴적 나의 추억입니다

마치 독자들의 심장깊이 묻는듯한 이 첫 시행의 물음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것인가! 이 시는 첫 시련부터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농촌마을의 아침과 저녁 즉 《아침이면 실실이/ 뜯김을 피워올리는/마당가의 그두엄내》 그리고 화음이 잘 어울리는 《뜨락또의 동음소리 황소의 영각소리》를 조형적인 시각적형상을 거쳐, 때로는 음악적인 청각적형상에 의거하여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

풀언덕에 덩구는 송아지의 무리속에 끼우면
잘도 어울릴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오래에 높이 쌓은 짚더미에
근두박쳐 뛰놀다가도
분이네 할아버지 발구름에
와 들새처럼 텅기여 달아나던 그 시절은
오늘도 웃습니다

밥짓는 저녁연기 자욱하고
창문마다 반짝반짝 불켜지던 그 저녁
우유같은 달빛속에
함초롬히 고개숙인 비이삭
시집가는 철이네 누나같던 그밤은
정말 어느 화가에겐가 부탁하고싶었습니다

시인은 독자를 눈앞에 놓고 그와 친절히 농촌의 생활과 풍경에 대하여, 어릴적 소꿉놀이 동무들과 이웃에 대하여 오손도손 담화를 하며 화답하는듯이 시를 엮어나가며 그들모두를 시의 생활과 서정속에 깊이 잠기게 하고있다. 시인은 종횡무진으로 시적

환상을 자유로 펼치면서 때론 독자들을 하늘높이 끌어올리며 그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가하면 때론 농촌의 거뭇한 흙과 방에 차분히 끌어내린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농촌의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다 보게 된다.

시인은 결구에서 못내 참고 참으며 누르고 누르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아 비내리는 가을 이 저녁
못견디게 그리던 우리 수령님
풍년이 든 그 들길에 뒤집짚고 서계실것 같아
이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수령님과 류별나게 정깊은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

수령님과 우리 사회주의농촌사이에 맺어진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뉴대관계를 얼마나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표현한 훌륭한 시구인가! 수령님과 류별나게 정깊은곳 바로 그곳이 내 고향의 농촌이라는 시인의 철학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은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수 없는 시인의 젊은 한생의 귀중한 체험에 의하여 획득된 더없이 귀중한 열매였다.

또 바로 이것이 이 시의 기본핵이고 종자이며 독자들에게 시인이 말하며 하소하고픈 사상적핵이었다.

구수하면서도 진한 흙냄새나는 언어표현들, 민족적정서와 그윽한 향수, 인민적인 은유와 형상수법들은 이 시의 독특한 긍정점을 이루고있다.

이 긍정점은 다음의 서정시 《미래를 아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시문학은 오늘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시의 양상들을 개척하는데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고있다. 풍경시 《칠보의 노래》(《조선문학》 3호, 리영삼), 산문시 《조국이여 앞으로 앞으로!》(《조선문학》 8호, 한원희), 우화 《<대통령>의 박식자랑》(《조선문학》 3호, 정춘식) 등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이 모든것은 오늘 전진하는 우리 주체시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우리 시작품에는 이와 같은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드시 극복하고 시정하여야 할 결함들도 없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하나는 우리의 일부 시들이 시인이 체험한 진실한 서정, 생활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시를 꾸미고 분석하며 때론 리상화하는 그것이다.

사실주의 시문학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체험문학이며 체험된 감정을 토로하는데 있다.

그때만이 우리의 시는 독자들에게 뜨거움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시는 결코 말을 꾸미는것이 아니다.

시는 심장에 새겨지고 간직된 생활감정, 생활적 진실을 꾸밈없이 정직하게 토로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시작품의 글줄 하나하나는 시인의 순결한 심장과 량심의 토로로 되어야 하며 정직성, 순결성, 진실성을 떠나선 서정시 하나하나의 구와 문맥을 생각할수 없다.

기자를 사회여론의 대변자라고 이르면서도 작가들을 사회량심의 대표자라고 하는것은 바로 여기에 리유가 있다. 순결한 량심, 맑고 깨끗한 심장을 사소한 가식이 없고 감춤이 없이 인민앞에 하나하나 하소하며 토로하는것이 바로 시이고 시인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에는 체험된 생활감정을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시를 인위적으로 꾸미며 장식하는 시 아닌 작품도 때로 보게 된다.

이러한 결함은 지난해에 발표된 일부 새해 축시작품들에서도 느껴볼수 있다. 새해 새 아침을 노래하면서 이미 독자들에게 의하여 알려진 일반적인 시구나 은유를 대치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 시인에 의하여 개성적으로 발견되고 체험된 시작품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시작품에서는 시인의 웨침이나 높은 호소는 있으나 시인의 심장의 뜨거움이 없으며 생활적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문학의 진실성을 높이는 데서 또하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시적발견을 정확하게 하며 개념화의 사소한 결함을 없애는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시적계기를 정확히 찾고 시적발견을 진실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시적계기가 정확한가? 시적발견이 진실한가 하는것은 그 시가 독자들에게 뜨거움을 안겨주고 불씨를 심어주는가 아닌가 하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심장으로 안겨진 시는 논리적으로 발견된 시보다 강렬하게 독자들의 심장에 안겨지는 법이다.

물론 논리적인식과 미학적인식, 개념적인식과 형상적인식은 호상 대립되거나 분립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호상 통일되고 련관속에 있으며 생활인식에서 하나가 다른것을 보충하는 관계속에, 련관속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서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인식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호상 작용하는것과 같이 창작에서도 이성적인것은 절대로 정서적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창작에서 이성적인것과 정서적인것과의 그 어떤 모순과 대립을 주장하는것은 본질상 현실에 대한 인식의 두 단계의 호상 작용과 통일을 거부하는 경험주의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주의예술에서는 예술가의 형상적사유과정에서 이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이성주의를 반대

하는 동시에 감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감성주의도 배격하며 오직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통일을 인정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하는데서 이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의 호상련관 나아가서 형상적사유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의 호상관계를 명철하게 밝히시었다.

인간은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성과 함께 감성의 도움을 받는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감성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는데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인간은 세계를 과학과 논리, 개념을 통하여 그 필연성과 본질, 진리에 도달한다면 인간은 또한 예술과 형상을 통하여 생활의 다양성과 풍부성, 그 진실에 이르는것이다. 진정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까다로운 논리에만 의거한다면 인간생활은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할것인가? 인간은 객관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생활을 논리적으로 인식할뿐아니라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향유하며 미적으로 파악하는것이다.

논리적사유에서는 일반적이고 본질적이며 필연적인것만이 추상화된 개념속에 반영된다면 미적인식에서는 필연적인것, 일반적인것, 본질적인것이 오직 구체적이고 감성적이며 개성적인것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체험인식되는데 중요한 특성이 있다.

정서적으로 체험인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반영인식된것이라면 그것은 미적양양, 정

서적양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진정한 예술적형상과 시작품에 이룰수 없다.

물론 시에서는 이성적인것, 논리적인것을 절대로 배제할수 없다. 시는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며 이성적인것과 감성적인것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우리는 형상적사유과정에서 이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이성주의를 반대하는가 하면 동시에 감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감성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통일만을 주장한다.

서정적이면서도 철학성이 깊은 시, 섬세하고 정서적이면서도 생활과 인간, 시대와 인민에 대한 사색깊은 시, 이것이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시문학에 새로운 높은 비약을 요구하고있다.

우주에 대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단번에 쏘올린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과 힘은 얼마나 위력하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성국가의 대렬에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참말로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이다.

바로 우리 조국, 우리 당, 우리 인민은 우리 시문학앞에 새 보폭을, 새로운 전진의 비약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바로 이 시대의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사명이 우리 시인들에게 주어져있다. 시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이 시대적사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아침은 빛나라 외 1 편

김 송 남

눈시울 젖어오는
뜨거운 감사를 안고
내 바라보노라 조국의 새 아침을
흰눈엀은 산굽이 멀리
하얗은 사연안고 이어진 길
무수한 교장들을

푸릿한 새벽
터오는 먼동
저기 멀고 먼 최전방초소길을
아니면 그 어느 마을길을
우리 장군님 조용히 걷고계시리

다 보이는듯싶구나
아버이 따뜻한 그 미소
그 미소 첫 해살처럼 받아안으며
잠을 깨는 강산이
잠을 깨는 온 조국땅이...

건뚫 불어오는 청신한 바람
산중초소의 전호가에도
잊지 못할 그 아침을 되새겨주고
하늘 가득 일어서는 진한 노을도
강철로에 비껴들어 쇠물로 녹고
새로 도는 수차에 전류로 흐르는데

지금은 정녕 어디 계실가
인민의 마음 다 안으시고
찬바람 앞장에서 헤치시는 길
따르며따르며 한생을 따르면서도

그 길의 한끝은
내 다 몰라, 알수가 없어

허나 이것만은 내 아노라
어디에 계시건 이런 새벽이면
아버이수령님과 마음을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의 경건한 첫 일과를
물으시며 들으시며 굳히시는 새 결심같은
불덩이 해가 솟는 벽찬 이 순간을...

아, 내가 사는 이 땅우에서
태양과 태양이 만나는 시간이며
영생하시는 수령님 미소
우리 장군님 미소로 더 밝아져
첫 해살로 뿌려지는 조선의 아침이여!

고맙구나 이런 아침은...
내 마음 감사에 젖으며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나니
이 아닌가 행복은 이 아침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나날 우리의 모든 달과 해들
이 세월을 사는 우리의 벽찬 삶

어디에 또 있으랴
태양복에 밝고밝은 이런 아침이
김일성민족의 아침
김정일장군의 아침
세계의 영원한 미래가 함께 열려오는
아, 조선의 아침은 빛나라!

길이 흐른다

길이 흐른다
사람들이 흐른다
눈바람에 흑-흑-
날리는 더운 입김
거름배당 거름밀차 렬을 지었다

때마침 이 길로
천천히 달려오는 야전군용차
우리 장군님 그안에 계시는데
길이 흐른다
강행군의 더운 숨결이 흐른다

고난이 무어나
노래로 웃음으로 이어지는 발걸음들
차길을 비켜서는 사람들속에
신통해라, 한 너인의 희한한 꿈이야기
장군님을 만나뵈온 간밤의 꿈이야기...

어이 젖어드시는가
차창너머 달리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차를 멈추고 내려서시여
한사람한사람 다 안아주고싶으시여
그이의 음성은 뜨겁게 울리여라

...얼마나 좋은 인민입니까
이런 인민들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아, 길이 흐른다
혼연일체의 위대한 승리가 흐른다
장군님과 함께
인민이 가는 이 길에
그날 아직 눈바람은 차겨왔어도
조국은 벌써 봄을 맞고있었다!

천연돌사진

신 경 애

계절의 자연적변화는 어쩔수 없는것이어서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었던 이 땅에 또다시 눈이 내린다.

21세기를 마중가는 20세기 마지막해의 첫아침에 맞는 눈이여서인지 아니면 애국렬사릉을 돌아보며 맞는 눈이여서인지 해마다 맞는 눈이건만 이날따라 류달리 많은 사색을 던져주는 눈이다.

높지 않은 평퍼짐한 산언덕에 자리잡은 려사릉은 소리없이 평평 내려앉는 흰눈으로 하여 하얀 은세계에 잠긴듯했고 그 눈속에서도 려사들의 돌사진은 우리를 반겨맞는듯했다.

오늘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하얀 눈우에 솟은 려사들의 묘비앞에 붉은 꽃을 놓고있다. 그들속에는 려사들의 가족, 친척, 친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갓 철들기 시작한 청소년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천연돌사진을 보며 려사와 함께 보낸 지난날을 회미해졌던 추억속에 더듬어보기도 했고 영생의 철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받아안으며 정숙한 자세로 한상한상 려사의 앞을 지난다.

이들속에 묻혀 돌사진앞을 지나는데 난데없이 옆에서 소곤소곤 속삭이는 귀속말들이 귀전에 들려온다.

《우리 할아버지 돌사진도 우리 장군님께서 보아 주셨다지요. 어머니, 그러니 할아버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거예요.》

렬사가죽종의 열대여섯살나보이는 사내애가 엄지손가락을 뽐아들고 어머니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었다.

《그럼, 할아버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신단다. 장군님께서 너의 할아버지를 너와 나만이 아닌 우리 인민들앞에, 려사앞에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 주셨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려사의 천연돌사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들의 소박한 속삭임을 들으며 돌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느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이 나의 온 폐부로 흘러들어 추위속에서도 내 가슴은 후터워만진다.

위대한 사랑의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지난해 9월 19일 생전의 모습으로 스스로없이 장군님의 품으로 달려오는듯한 려

사의 돌사진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떠올랐다.

릉에 안치된 려사들의 고향과 이름, 나이, 성격은 개성적이고 그들이 조국에 바친 공로와 우리 곁을 떠난 희생년도도 서로 각이하다. 그러나 그들이 안긴 품은 하나이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정력에 넘쳐 투쟁하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겨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지거나 회미해지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혁명선배, 애국렬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슴깊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정 또한 끝이 없는것이다.

오동진, 량세봉, 성시백, 박정호, 최동오, 김규식, 김옥성, 리기영, 심창완, 유원준...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사진을 보시고 이미 우리곁을 떠난지도 오랜 전사들을 모두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마지막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주시며 그들에 대해 추억하시였으며 이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다 바친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라고,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애국심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첫 려사로부터 마지막렬사에 이르기까지 수백상에 이르는 돌사진속의 려사들과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느라 이날 환할 때 오시여 밤이 깊어서야 려사릉을 내리신 사랑과 의리의 화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그이는 동지가 많으시고 동지를 위해 눈물도 많이 흘리신분이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의 운명을 돌보셔야 할 바쁘신속에서도 세상을 떠난지 수십년이 되여오는 전사들의 이름과 성격적특징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값높이 추억해주시는 이런 위대한 령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 또 있으랴.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과 대해같은 믿음, 고귀한 의리와 은정이 쌓이고 얹혀 그 절정우에 려사들은 돌사진속의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것이며 죽어서도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행복한 인생들로 남아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의리의 시작은 과연 어디고 그 끝은 어디일까.

포근한 요람이 아니라 총포성 울부짖는 흑한의 백두밀영에서 탄생하시어 부모님의 남다른 혁명적 동지관과 동지적의리를 한몸에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일찌기 동지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혁명의 첫걸음을 떼시고 혁명을 이끌어오신 아버지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 동지들에게 자신의 정을 사심없이 깡그리 바치신 백두의 녀장군의 인생철학을 그대로 터득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우리가 일생을 두고도 깨닫지 못할 동지에 대한 뜻깊은 철학을 우리에게 시로 깨우쳐주시었고 그 신념의 자양분속에 혁명선배들과 애국렬사들을 존중하고 수많은 혁명전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값높이 세워주시는것이다.

동무여, 참다운 우정이란 무엇이라
가슴에 따로 둔 심장이 없는
비록 몸은 날날으로 되었어도
심장은 하나인 우리들의 녀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들의 녀이다, 우정은
조국을 떠나 가치없고
집단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성스러운 위업에 향한 충실성
그것으로 맺어지는 우리들의 녀이다

조국과 집단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고 수령이 개척한 성스런 혁명위업에 바치는 충실성으로 맺어지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전진시키실 비상한 의지를 안으셨기에 그이께서는 그로록 《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하시었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머나먼 전선시찰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도 《동지애의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것 아니셨던가.

그래서였구나.

지난해 4월 어느 한 기관의 연구사들이 개발한 새로운 돌사진기와 돌사진건본을 보시였을 때 이제는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자신의 소원을 풀게 되었다시며 제일 기뻐하시며 그것을 제일먼저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려사들을 위해 쓰도록 해주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위해 아꼈것이 없다시며 제일

좋은곳에 려사들의 반신상을 동으로 만들어 만년대계의 혁명렬사릉을 꾸려주신 그 사랑으로 애국렬사릉도 세우시고 그 사랑에 빈구석이 있을세라 이번 에 또다시 세월의 년륜에도 부식되지 않는 천연화강석 돌사진에 려사들의 모습을 새겨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해주시였으니.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선배들과 려사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는 정녕 무한대하다.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출하에서 자라난로혁명가들, 혁명전사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사랑하는 전사들이 결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시고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비내리는 수천리 밤길도 사품치는 강물도 단숨에 헤쳐오시여 조의도 표시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시는 사랑과 의리의 극치를 펼쳐놓으시였다.

돌사진! 이것은 혁명선배들, 애국렬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 열화같은 혁명적동지애, 혁명적 사랑과 의리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그 산아인것이다.

돌사진속의 려사들이여, 죽어서도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는 그대들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들이나.

눈길들어 바라보라.

20세기초엽에 사회주의 첫 포성이 울려 강대하던 나라에서는 수령의 위업을 옹계 계승하지 못해 제국주의를 타승한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 사회주의를 건설한 선배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훈장들이 몇푼의 팔라에 팔리우고있고 오랜 전쟁로병들과 선배들의 인격이 모욕당하고있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동지적 사랑과 믿음, 의리로 건설된 이 땅에서는 우리 려사들이 죽어서도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이 살고있는것이다.

진정 려사들이 그이의 품에 안긴 날은 있어도 그이 결을 떠난 날은 있은적 없거니 려사들은 이렇게 장군님의 품에서 영생하고있다.

정녕 장군님의 품속에서 그대들의 생의 한계에는 끝이 없거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장군님의 고결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세계, 이것으로 하여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과 의리로 어떠한 난관도 맞받아 물리치고 기어이 **김일성-김정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이 땅에 보란듯이 남들이 부러웁게 건설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그이의 사랑과 의리로 뭉친 하나의 대가정, 하나의 대집단으로 온 세계가 우러러 보는 강성대국의 주인으로 될것이다.

가벼이 날리는 눈꽃을 받으며 사내에는 할아버지의 돌사진앞에 소담하게 피여난 빨간꽃을 드리고

렬사에게 맹세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충신이 되겠어요.》

그의 맹세에 화답하는듯 돌사진속의 렬사는 이렇게 우리모두에게 속삭이는듯싶다.

사랑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의 뒤통까지 합쳐 솟눈과도 같이 순결한 량심으로 더 잘 받들어모시라고, 그 길에 나만이 아닌 후손들의 미래가 꽃펴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21세기의 밝은 앞날도 있는것이라고...

눈은 여전히 평평 쏟아지고있다.

하나 돌사진과 주고받는 마음속대화로 하여 내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크나큰 세계에 젖어있고 그에 따르는 보답의 맹세, 충성의 맹세로 불타고있다.

뿔을 내리는 나의 심장은 더 크게 쿵-쿵- 박동을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그대로 닮아 보다 더 깊어지고 강대해질 조국의 모습을 그리며 조국 위한 길에 이 한몸 렬사들처럼 서슴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바치리라.

당과 총대

류 동 호

맑고 푸른 내 나라 하늘아래서
두손에 소중히 받쳐든
마치와 낫과 부의 기발
뜨거운 기록에 스민 붉은 선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 멀리 백두산에서
우리 당의 첫 닳을 올리실 때
아버이수령님 이 붉은 기발의
억년 드눌지 않는 기대로 삼으신것은
총대, 총대가 아니었던가

혈전만리 헤쳐도 총대로 헤치고
불바다를 건너도 총대로 건지며
고난의 언덕넘어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총대만은 순간도 놓지 않고
력사의 그 모진 시련 이겨낸 당이여

자욱자욱 그대 걸어온 길 새겨보니
그 길은 피어린 총대의 력사
사랑만을 받으며 행복만을 누리며
내 따쫓이 안겨자란 그대 품은
어머니의 품만이 아니었구나

폭풍세찬 혁명의 소용돌이속에서
그대의 따뜻한 어머니사랑이
무엇으로 그리도 변함없고
그대의 영원한 승리가
무엇으로 담보되는가를
붉은기가 나에게 깨우쳐주누나

천만자식을 키운 어머니품은

끝없는 사랑을 주며
차디찬 눈비바람 막아줄수 있어도
오, 정녕 그것만으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기에
당이여, 그대 보검으로 거머쥔 총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던가
그대의 총대보다 더 강한 무기가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 높이 드신 총대
조국을 위하여 장군님 펼치시는 총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행복을 창조하며
강성대국을 세워가는 우리 당의 총대여

그 총대가 있어
이날까지 나의 집 창가는
그 어떤 포연에도 그슬리지 않았구나
아침마다 노래부르며 학교로 가는
량볼 붉은 내 어린것들의 고운 웃음이
다름아닌 이 총대우에 받들려있었구나

놓으면 순간에 노예가 되고
틀어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총대는 이 하늘아래 꽃피는 행복
총대는 이 땅우에 밝아오는 미래
오, 우리 당의 총대는
위대한 **김정일**식정치의 영원한 승리

총을 들고 시작한 주체혁명을
총대로 완성해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여
총대없는 당을 나는 몰라라
당이 없는 총대를 나는 몰라라

시대의 요구가 잘 구현된 또하나의 성과작

-장편소설 《믿음》에 대하여-

리창유

장편소설 《믿음》(김정길 작)은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닌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비교적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하여 소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성강의 봉화 따라 다시한번 천리마의 대고조를 힘차게 일으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수령님께서 지닌 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근저에는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놓여있다. 수령, 당, 대중이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본질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어버이수령님과 혁명전사간의 혈연적인 믿음,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그 절대적인 믿음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이 태어나고 그 숭고한 믿음속에서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활의 진리를 형상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긍정적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해명하려 하였다. 얼핏 보면 이러한 형상과제는 너무나도 범박한 사회정치적문제의 제기로 간주될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시대의 절박한 인간문제로 승화시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보임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미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느낄수 있게 하였다.

작품의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공업화와 기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한 1960년대 전반기에 어느 한 조선소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천톤급이상의 배를 무어내는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주인공인 령포조선소 기사장 최주식을 비롯한 세대 기술자들과 오랜 제관공인 김석홍, 새 세대로 동계급들인 윤재수, 박성임, 김찬, 강은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천톤급이상의 배무이를 1~2년안으로 완공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바쳐 억척같이 일한다.

천톤급이상의 배무이는 단순히 그러한 배를 한두척 못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어내야 할 대형선박건조의 발판을 닦는 선박공업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였고 일대 전환점이였으며 혁명이였다. 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노동계급과 지식인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시였으며 그들의 높은 창조적열의를 믿으시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던것이다.

하지만 선박공업관리국의 국장인 강준호를 비롯한 일부 일꾼들은 현재 큰 배를 못는 일을 《시기상조》로 여기고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에 사로잡혀 노동계급의 새로운 결심을 묵살해 버리거나 지어는 음으로 양으로 반대해 나서기까지 한다. 게다가 노동계급내부에 교묘하게 잠입한 부직장장 홍학주며 그의 처 오매월 등 적간첩놈들은 이 거창한 배무이작업을 파괴하려고 간악하게 책동한다. 때문에 천톤급이상의 배무이 완성작업은 날카로운 사상투쟁과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하여 소설에서 배무이완성작업은 단순히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생산기술적문제로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의리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느냐 하는 새로운 인간문제의 해명을 위한 형상과제로 제기되였다.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해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생활과 성격을 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으며 생산기술적문제는 이러한 인간 생활과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정황과 전제로 주어지게 함으로써 인간학적견지에서 작품의 사상주제를 인간문제의 해결로 깊이있게 천명할수 있었다.

우리는 주체의 문예학적견지에서 작품창작은 생산기술적문제를 지나치게 끌어들이지 말고 새로운 인간문제를 설정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원칙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열렬히 주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아직도 왕왕 생산기술적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따라서 따분하고 지루한 기술실무적이야기며 새로운 생산기술적문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에 인간문제가 파묻혀 인간관계를 심화시키지 못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로동계급을 형상함에 있어서 생산 기술적문제를 떠난 순수 인간관계만을 설정한다면 거창한 사회주의대전설과 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되는 사업과 생활의 무대를 배제하게 되며 따라서 인정세대적인 이야기에 접착시켜 시대의 전형-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풍모를 다면적으로 그려낼수 없게 된다. 이것은 특히 생활을 다면적으로 분석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그려보이는 장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서 극히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생산기술적문제는 장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인간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정황과 계기들에서 인간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시대적화폭으로 그려져야 하며 인간성격리상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편소설 《믿음》은 천톤 급이상의 배무이완성작업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거창한 생산기술적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설정되고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의리로 보답하려면 어떻게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인간문제해명으로 이야기가 즐기치게 뻗어있으니 이 인간문제에 생산기술적문제가 종속되어 형상의 신도를 훌륭히 담보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이 따분하고 지루한 생산기술적문제 서술을 탈피한 비결이 있고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시대정신이 맥박치게 그리면서도 예술적풍격을 비교적 잘 담보한 주되는 성과의 비결의 하나가 있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사상주체적 요구의 견지에서나 혁명적수령관의 구현문제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화한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포조선소의 지식인과 로동계급과의 전일적인 화폭속에서 감명깊이 형상하기도 하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인공 최주식을 외국에 보내어 불치의 병을 시급히 치료받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장면과 같이 독자적으로 형상하기도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고매한 인간적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최주식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때부터 연고관계에 있는 인물이며 따라서 그의 성장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과 밀착되어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설정은 영포조선소의 역사를 밝혀냄에 있어서나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보일수 있는 전제로 되고있다.

새 민주조선 건설로 온 나라가 들끓던 주체 37(1948)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포조선소 로동계급이 첫 강철선을 무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조선소 현장에 내려오시여 이곳 조선공들이 무는 배를 몸소 돌아보신다. 이날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만족하시여 《이 배가 하늘에서 내려왔소, 땅에서 솟아났소.》라고 하시면서 배 이름을 친히 《신흥호》라고 달아주신다.

이날 이 배의 진수식에서 김책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최주식의 아버지인 최한무가 조선소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일성위원장께 드리는 맹세문》을 낭독하였다. 최한무는 이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녔고 늘 아버지수령님께 맹세 다진대로 큰 배를 못기 위한데 마음을 쓴다. 그는 전쟁때 군함을 못다가 적기의 기총탄에 맞아 운명하면서도 전선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거들랑 조선공이 되어 큰 배를 무어 아버지수령님께 맹세다진 자기의 결의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호랑이소대장》으로 활약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대학에 돌아갔고 그후 외국유학을 거쳐 어엿한 배무이기술자가 된 최주식,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책임기사로부터 《ㅎ》조선소 부기사장의 직무를 거쳐 영포조선소 기사장이 된 그는 늘 자기 가정과 자기자신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모지름을 쓴다.

그의 사업과 생활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 늘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신다.

주체49(196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수입자재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배를 못겠다고 토론하는 최주식의 결심을 누구보다 대견하게 여기시며 높이 치하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최주식을 우리나라 조선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영포조선소 기사장으로 보내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최주식동무를 기사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건 그가 소유한 기술이나 해박한 지식때문만은 아니요. 그의 아버지가 무으려다 못무은 큰 배를 아들이 못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큰 배무이과정을 통해 최주식동무를 유능한 선박일군으로 키워주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혁명동지로서 지녀야 할 의리가 아니겠소.》

아버지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얼마나 뜨겁고도 한량없는것인가. 정녕 이 작품에서 수령과 전사의 인간적인 관계는 숭고한 의리와 참다운 동지애를 바탕으로 형성되고있으며 그것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관계로 주어져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품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인공 최주식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혁명적의리는 그가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전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었다 하시며 그를 국가수반들인 대상하는 외국병원에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을 신청하게 하시고도 안면있는 유능한 외과의사인 이싸프브가 수술을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 외국인의사에게 친히 전보까지 보내시는데서 가슴뜨겁게 감동적으로

형상되어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주인공 최주식과의 관계는 운명과 미래를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보호자와 전사,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혈연적 관계로 그려져 있으며 그것은 작품의 생리에서 뿔뿔히 뿔수 없는 유기적인 구성요소로, 하나의 《유기체》로 맞물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장편소설 《민음》에 그려진 아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는 혁명적수령관의 구현문제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 있다.

최근년간에 창작된 장중편소설을 비롯한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함에 있어서 주인공을 위대한 수령님과 안면이 있는 려고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특색있게 선정하고 작품의 생리에 꼭 맞물려 뿔뿔히 뿔수 없는 관계로 이야기를 펼쳐가지 않는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격식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년간에 창작된 적지 않은 장중편소설들에서는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직접 등장시켜 형상하고 있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에서 진실로 보된다. 그런데 일부 작품에 그려진 아버이수령님의 형상이 격식화되어 높은 예술적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작품의 이야기에 꼭 맞물려 생활적으로 깊이 있고 품위있게 형상하지 못한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편소설 《민음》에 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작품의 생리에 맞물려 있으며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 고매한 인간적풍모를 진실하게 생동하게 그려낸 점에 있어서 그리고 격이 높게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채를 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하여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이사랑과 믿음이 주인공 최주식을 비롯한 영포조선소 노동계급과 지식인들에게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성심을 낳게 하였고 거대한 창조의 세계를 개척하도록 하는 무비의 담력과 불굴의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낳게 한 원천으로 되었음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거든 사상에술적성과는 다음으로 주인공 최주식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최주식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에서 용감하게 적들을 죽여낸 《호랑이소대장》으로서 대를 이어 거듭되는 아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다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의 기술과 설비, 자재로 조선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하는 지식인이다.

그는 일단 결심한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내밀어

해내고야말며 사업에서 주도세밀하고 높은 요구를 제기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큰배무이를 하려면 구내도로부터 확장해야 하겠다는 것을 포착하자 최주식은 노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추운 겨울철에도 과외작업으로 공사를 해제켜 조선소구내를 번듯하게 정리하며 회의시간도 잘 준수하지 않는 일부 일꾼들의 나쁜 버릇을 제때에 고치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나간다. 또한 그는 큰 배무이를 위해 기능공이 곱절 요구된다는 것을 간파하자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강의에 출연하기도 하며 조선소에서 나간 기능공들을 모두 데려오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운다. 이러한 과정에 제기된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주인공 최주식은 선박공업관리국장을 비롯한 일부 지도일꾼들의 그릇된 일처사와 집요한 반대에도 주눅이 들지 않으며 적간첩놈들의 암해책동으로 술한 노력을 들여 설계한 도면이 잘못되고 당분간 기사장직무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그런 정황에서도 자기의 깨끗한 량심은 저버리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성실히 일해나간다.

지어 그는 외국에 나가 입원치료를 받는 그 기간마저 기술혁신을 위해 남모르게 고심분투하여 도장공들이 보다 좋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구상하고 완성해나간다.

그 과정에 그는 남모름 고민도 만이 하며 때로는 나약해지려는 순간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오랜 조선공인 김석홍과 같은 진짜배기로 동계급의 조언을 받아 자신을 부단히 수양해나간다.

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그의 아름다운 도덕의리와 지극한 충효의 바탕에 깔려있는 강의한 신념과 순결한 량심에 탄복하여 눈시울을 적신다.

작품의 주인공 최주식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그의 고상한 혁명적애정률리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화선에서 언약한 류선화를 두고 그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언약을 굳게 지킨다.

어지러운 가정주위환경과 오작 사고로 하여 탄광에 나간 아버지를 따라 조선소를 떠난 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류선화를 잊지 못해 로총각으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애오라지 그만을 기다리는 최주식, 선화가 아이까지 기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그를 찾아내고야말며 그 아이가 폭사한 이름모를 녀인의 아들이임을 알았을 때에는 더욱더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선화를 끝까지 찾아내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최주식, 그의 이와 같은 애정률리관은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주체형의 인간들의 고상한 애정률리세계로 빛난다.

주체형의 참된 인간의 고상한 애정률리는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며 영원히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데서 빛난다.

하지만 드물게나마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오해로 만회할수 없는 결과를 빚어낼 때도 있다. 이것은 처녀와 총각의 경우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애정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현상이지 보편적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맺어진 사랑은 이러한 우연적이고 특수한 현상을 궁극에는 타승하고야마는것이 생활의 대책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적지 않은 장편소설들에서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애정윤리 문제를 보여줌에 있어서 서로 맺은 사랑이 오해로 결렬되었다가 종당에 가서야 결합된다는가 큰 내용상 차이없이 한번 곡절을 겪다가야 결합되는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드문하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도식이며 이야기를 굴곡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고안된 꾸밈새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곡절이나 오해는 있으되 결렬과 결합과정으로만 이야기를 꾸미는 이러한 도식을 깨뜨리고 주체형의 인간- 청춘남녀들의 애정윤리를 독특하게 아름답게 그려내야 궁정인물의 성격도 보다 고상하고 품위있게 그려낼수 있다.

장편소설 《민음》에는 주인공의 애정윤리선 이외에도 조선소 노동자들인 윤재수와 박성임, 김찬과 강은주의 사랑이 비교적 특색있게 그려져 작품의 양상을 밝게 하고 궁정인물들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들의 성격과 애정윤리를 그림에 있어서 개개 인간들의 기질적특성을 잘 살리었으며 궁극에는 천톤이상의 배무이작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서로돕고 이끄는것으로 아름답게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장편소설 《민음》의 이야기가 밝은 양상을 띠고 즐기차게 흐르는것은 주인공 최주식과 류선화의 애정선을 포함한 세쌍의 애정윤리선이 서로 교차되고 이어져 사람들에게 밝은 색조와 량만을 안겨주고있으며 장과 장사이, 결과 절사이 그리고 절안에서도 작중인물들의 환희와 기쁨, 외로움과 슬픔, 성공과 모대김 등이 서로 교차되고 대조되어 이야기가 탄력있게 펼쳐지면서도 전반적으로 밝은 양상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장의 제목들인 《균렬》, 《감격》, 《위하는 마음》, 《한여름의 눈서리》, 《은정》, 《물은 굶을 따라》, 《겹으로 찾아온 기쁨과 마음의 그늘》등만 보아도 그러한 내용을 예측할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 사건의 무대를 속도감있게 이곳저곳으로 바꾸어가며 작중인물들의 생활을 다면적으로 펼쳐보인것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전제를 지어주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민음》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대체로 이렇게 지적할수 있다. 작품이 지난 시기 우리

노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은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인식교양적가치들 주고있는 것은 소설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미학적요구가 비교적 잘 반영되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따라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내기 위한 과감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투쟁에서 혁명의 전 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인간, 참된 충신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따라배워 그들처럼 사업과 생활에서 변심을 모르고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내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내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편소설 《민음》은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미학적요구를 비교적 훌륭히 반영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원형인물들의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실속있는 생활체험, 시대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이것이 작가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창작수준에는 비할수 없을만큼 우수한 작품을, 그것도 이렇다할 평가도 받지 못한 중편소설을 쓰던 수준에서 작가의 창작계열을 놓고볼 때 단번에 비약을 일으켰다고 말할수있는 장편소설을 써낸 성과의 요인들중의 하나로 되었을것이다.

물론 이 소설에는 부족점도 적지 않다.

그것은 소설의 구성을 놓고볼 때도 새롭지 못하고 이야기의 시작과 인간관계의 설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으며 예술적풍격의 측면에서도 설친부분이 허다하다. 이것은 작가가 앞으로의 창작에서 보다 깊은 탐구와 사색을 거듭할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피라는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높은 예술적경지에 오르라. 이것만이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할것이다. 작가는 앞으로 이 장편소설의 속편을 써낼 결심을 무르익히고있다.

창작에서의 비약, 그것은 시대의 요구에 보다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인간관계속에서 생활을 특색있게 꾸미는 구성의 묘미를 탐구해낼 때 그리고 작가의 개성을 잘 살려 표현 하나라도 새롭게 하려고 애쓸 때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이룩되게 되는것이다. 작가의 금후 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국과 함께 있는 사람들

남 대 현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나는 재작년 12월 한 달을 취재를 위해 일본에서 보내었다.

주체53(1964)년에 조국의 품에 안긴 내자신이고 보면 실로 33년만에 다시 밟아보는 일본땅이지만 너무나도 오랜 세월의 흐름과 또 너무나도 많은 변화로 하여 모든것이 그저 생소하고 새삼스럽게만 느껴졌다. 하긴 열일곱살의 철부지 소년으로 귀국선에 올랐던 내가 어느덧 선고개에 들어선 초로가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취재과정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가 민족의 넋을 지니고 조국과 함께 숨쉬고 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 가야 한다.》

반세기를 이역땅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억척같이 싸워온 1세 총련일군들과 미더운 상공인들 그리고 원썩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 있는 오늘도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고있는 2세, 3세 동포들...

그러나 이들을 만나 받아안은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사실들은 앞으로 써야 할 작품에 구체적으로 옮기기로서 하고 오늘은 취재의 여가에 만난 사람들, 총련문예일군들이며 어릴 때 같이 생활한 동창들과의 상봉에 대해서만 적어보려고 한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대로 나의 일본취재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반겨준 사람은 총련문예일군들이었다. 대체로 이미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한적이 있어서 서로 친숙해진 사람들이였으나 그래도 그들은 내가 《해방후 처음으로 일본에 온 조국의 소설가》라며 마치 《영웅》이나 《귀빈》처럼 대하면서 도착했을 때는 환영모임이요, 떠나올 때는 환송모임까지 차려주는데 어지간히 비위가 좋은 나였지만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도착한 다음날 도쿄의 변화가인 우에노에 있는 《도토리》라고 불리우는 음식점에 갔을 때였다. 근스무명이나 되는 문예인들이 문앞에서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주는데도 놀랐으나 《도토리》라는 간판뿐아니라 음식들까지도 《김치》, 《막걸리》, 《갈비탕》하는 우리 고유어 발음으로 표기된 식당

에 안내되고 보니 어쩐지 이역땅이 아니라 평양의 음식점에 들어선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더 놀라왔다.

《말 좀 하이소. 그래 조국에서는 어떻게 지냅니까?》

이젠 일흔이 넘어 대학강의도 주에 한두번만 한다는 1세기인 정화흠선생이 언제나처럼 검은테안경너머로 던지시 건너다보며 묻는 말이었다.

선생의 물음이 평범하기는 하나 이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문제일을 나는 짐작할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질때에도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던 사람들이였지만 조국에 무더기비에 태풍과 해일이 들이닥쳐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에는 한숨을 내쉬며 심각해지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조국의 소식은 바로 조국인민들의 생활이었다.

나는 조국의 형편,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어가고있는데 대해 그리고 이 《고난의 행군》에서 진격의 나팔수가 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활동에 대해 말하고 나서 재일작가들에게 보내는 조국 작가들의 동지적인사도 전하였다.

《그런데 왜 혼자 왔소? 온 일본땅이 들썩하게 여럿이서 같이 오지 않고 말이요.》

웃으면서 하는 문예동 서상각부위원장의 말이였으나 나의 머리속에는 은연중 우리 4.15문학창작단과 작가동맹의 여러 선배작가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무리 혼자 온것이 본의는 아니라 해도 못내 송구스러워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같이 왔으면 좋아하는 술 한잔 부어줄텐데 말이여. 어찌겠소. 할수 없지. 그래 요즘 동생은 어떻게 지내우? 영재말이요.》

언제나 조국에서 오영재선생하고 만나면 서로 자기 나이가 우이라고 싱갱이질을 벌리군하는 정화수선생이 말갈게 벗어진 대머리를 번쩍이며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오선생 부락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대꾸에 모두들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내가 일본에 간다니까 오선생이 최근 정선생이 무슨 <사건>으로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것때문에 조국에 있는 형이 몹시 걱정하더라고, 제발 적후라는걸 명심하고 아무일이나 덜렁덜렁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라고 하

더군요.》

《이것봐라! 형한테 제법 혼시다! 그새 버릇이 고약해졌는걸.》

웃음이 터졌다.

서로마다 안면을 익힌 조국작가들에 대한 문안이 시작됐다.

대학에 적을 두고있는 오향숙, 서정인, 김경홍동무들은 매해 문학부 졸업반학생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할적마다 창작지도를 맡아주곤하는 김청남, 한웅빈, 김청일, 변홍영, 강선규 작가들에 대한 안부, 김윤희, 오상홍선생은 박세옥, 박호범선생에 대해 묻고나서 《한사람은 멀끔한 <신사>고 한사람은 텅텅한 <농부>같은 걸모양처럼 시에서도 개성이 뚜렷하지만 신통히도 똑같은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두사람 다 <대주가>라고 하는바람에 또 폭소가 일었다.

일본에서 근 만부씩이나 재판되어 지금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영생》과 《력사의 대하》에 대해 알려주면서 그 필자들인 백보흠과 송상원, 정기종동무가 나이는 몇이며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묻는가 하면 시인들인 김만영과 황성하에 대해 그리고 요즘 《조선신보》에 련재되고있는 단편소설의 저자들인 로정법, 양해모 동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도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땐 뭐라고 어물어물 대답을 했지만 내가 속으로 통절히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왜 조국을 떠나기전에 우리 작가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더 많이 알아가지고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다. 후회는 늦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으나 그 말은 후회로 하여 교훈을 찾게 되고 교훈으로 하여 다시는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라고 할 때 내가 저지른 실책이 야말로 그 어떤 대가로도 다시 만회하거나 보상하기 어려운 그런 실책이 아닐수 없었다.

확실히 총련작가들의 조국에 대한 표상은 결코 조국의 어떤 풍경이나 건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 그것도 바로 조국의 작가들이었으며 작가자신들의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그러한것이였다.

그것을 나는 내가 조국을 떠나기 며칠전에 세상을 떠난 리호인동지에 대한 부고를 알리었을 때 더욱 절감했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후 귀국하여 《배고동소리》, 《나는 조선사람이다》, 《후대의 길》, 《시대의 념원》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중편을 쓴 리호인동지를 총련작가들은 자기들의 분신처럼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있었다.

내가 그의 가정형편이며 쾌활하고 부산스러우면서도 어떤 땐 어린애처럼 어린 감정을 지닌 다감한 성격으로 하며 나이는 예순이 넘었어도 모든 작가들에게서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데 대해 전한 다

음 우리 작가들이 그의 관속에 생전에 그가 것처럼 즐기던 장기를 같이 넣어주었다고 하자 모두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학동창생이 었던 정화수선생의 격식없는 조의사가 있었다.

《리호인동지는 우리의 마음을 안고 조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 동포들을 위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회주의건설에도 많은 땀을 바치었습니다. 우리모두 그가 못다한 몫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면서 그의 명복을 빕시다.》

한동안 승엄한 감정이 방안을 메웠다.

내가 총련작가들과 다시 자리를 같이한것은 취재를 끝내고 조국으로 떠나오기 이틀전이였다. 이번에도 근 30여명의 문예동맹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환송모임장소인 문예동청사에 모였었다.

환송모임을 내가 쓴 장편소설 《태양창가》의 창작경험을 발표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문예동 김정수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수 없었다. 사무국장이 문예동의 실지 주인인데다가 언제나 빈틈이 없고 일단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마는 검질긴 성미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어서 조금도 발뺌을 할수가 없었다.

나의 간단한 창작경험발표가 끝나자 사무국장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은 매 동맹원들이 자기의 창작결의를 피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느때와 다른것은 조국을 대표하여 온 작가동지앞에서 하는 결의라는것을 명심하고 책임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환송모임이 마치 무슨 회의장같은 분위기로 되는데다가 내가 일약 《조국대표》의 자격으로까지 부상되고보니 저도 모르게 몸가짐이 굳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수 없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수첩이며 만년필을 꺼내놓은 다음 자못 《조국대표》로서의 엄숙한 표정까지 지어보였다.

자기 창작도 중요하지만 끊어져가는 총련작가의 대를 이어놓는것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필생의 과제라며 그야말로 《죽은 보리알》이 되어 더 많은 짝을 키워내고야말겠다는 1세작가들의 결의에 이어 기둥이 되어야 할 자기들이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살림도 꾸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것이 부모의 임무인것처럼 창작도 어길수없는 의무로 여기겠다는 2세들의 맹세, 그런가 하면 《말은 곧 조국》이라는 아버지대원수님의 교시대로 조국일 받드는 심정으로 한달에 두편이상씩은 꼭 쓰고야말겠다는 3세, 4세들인 김윤희, 림수옥, 배계순, 신경훈동무들의 결의는 감동없이 들을수 없었다.

조국에서와 같이 조직적인 기구나 정연한 체계가 없을뿐더러 매 사람이 다 직업에 매여있어 현역작

가라고는 단 한명도 없는데다가 글을 발표해도 원고료 한푼 쥐지 못하는 이들이 어쩌면 글을 쓰기 위해 이리도 아글다글할까. 나의 생각은 곧 작가는 직업이 아니며 천부요,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말대로 이들이야말로 창작을 조국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자기들의 천부적인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 열렬한 애국자들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어느새 탁우에는 갖가지 음료들과 음식, 과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본래는 우리 점방에서 모임을 가지자고 했지만 일반손님들을 피하고 시간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여기로 택한겁니다.》

음식점을 경영하고있는 홍순련동무가 오늘을 위해 무료봉사에 나선것이였다. 사실 일본에서 점방문을 하루 닫는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모르지 않는 나로서 잠자코 있을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혹시 밀천 홀딱 녹이는게 아닙니까?》

《걱정마세요.》

눈부터 웃으며 하는 홍동무의 대답이였다.

《공짜가 아니니까요. 조국에 가서 다 받아낸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분위기는 흥거로와졌으나 나는 모임시작때부터 줄곧 관심을 가진 두사람에 대해서는 주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대학교 교원 리상민동무와 조선신보사 강태성부장은 그중 능력이 있는 중진인데도 창작이 드문 한편 오늘 모임에서 이렇다할 결의를 피력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분명 이 친구들이 이 자리를 그저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것을 눈치챈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서 다짐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국에서 받아온 작가동맹의 <과업>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조국대표》로 부상된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해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나는 《과업》이라는 말에 각별히 힘을 주었다.

《작가동맹 소설담당부위원장 김보행동지는 저에게 일본에 가면 리상민, 강태성 동무의 앞으로의 창작 결의만은 꼭 받아오라고 하면서 이것은 개별적인 부탁이 아니라 동맹의 <과업>이라는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몇해전 문예일군대표단으로 조국에 온 그들의 창작지도를 맡아서 한 부위원장이 두사람에 대해서 각별한 기대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던터였다.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듯 능글능글 웃으면서도 눈치만 힐긋힐긋 보는 그들에게 나는 다시 오금을 막았다.

《우선 이자리에서 자기의 결의를 표명하고 그 결의를 내 수첩에 그대로 적어주시오. 나도 분공을 수

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점점 난처한 기색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치며 패재를 올린것은 김성수사무국장이었다.

《신통합니다. 신통해요. 조국에서는 어쩌면 그리도 우리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압니까? 예?》

그의 말에 짹짹한 양념을 친것은 이들과 동기인 강명숙동무였다.

《잠이 있기만 하면 낚시질이요, 골프장이요 하더니 오늘에야 움작달작 못하고 걸렸구만요. 짜지, 짜.》

할수 없이 수첩을 받아친 그들은 쿵쿵 갑자르더니 번갈아가며 자기의 결의를 썼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들이 쓴 결의를 그대로 옮긴다.

애국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생각하고 래일도 생각하며 일본에 사는 우리만 쓸수 있는 글을 쓰고저.

강태성

일본에서 살았다. 썼다. 죽었다.

리상민

우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웃고 떠들며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쓸것을 다짐했고 서로가 더 큰 창작적성과를 안고 조국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했다.

일본체류기간 나의 취재며 생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이는 바로 대학 문학부 학부장 김학렬선생이다. 《조국문학을 일본에 소개 선전하는것도 내 임무지만 조국작가를 일본에서 잘 대접하는것도 내 임무》라며 선생은 그 다심한 성격대로 나를 마치 친동생처럼 각근히 보살펴주었다.

대학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교수, 박사로서의 집필과제도 있었으며 또 주에 한번씩은 일본와세다 대학과 외국어대학에 강사로 출연해야 하는 바쁜 몸이었으나 선생은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며 내가 지방에 취재갈 때에는 동행해주었고 지어는 부근에 있는 명승지까지 유람시켜주었다.

더우기 나는 학부장선생의 도움으로 주체 76(1987)년 인디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청년작가회의에 참가하여 서로 낯을 익힌 일본작가 호리우찌 료헤이와도 만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가하여 서로 낯을 익힌 일본작가 호리우찌 료헤이와도 만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10년전 인디아에서 만났을 때는 풀머슴처럼 외가다리로 길게 땀아늘인 머리태가 허리까지 치렁치렁해서 녀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젠 그 머리태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대신 입가장자리에 수염이 더부룩한 호리우찌였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그 《만발》한 수염을 내 뺨에 마구 비벼대고는 겨드랑이에 끼던 한권의 책을 내놓으며 수표부터 하라고 했다. 표지를 보니 서울에서 출판된 장편소설 《청춘송가》였다.

《어떻소. 이것만 봐도 이 호리우찌가 남선생을 잊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 원고료는 얼마나 댔소? 적어도 10만팔라는 잘 될텐데.》

내가 원고료를 받지 못했으뿐아니라 받기도 어렵다고 하자 그는 대뜸 눈을 뒤집었다.

《아니 지구촌의 막바지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네 팔에서까지도 내가 쓴 조박글에 대한 원고료를 그 다음날로 보내오는데 같은 조선땅에 있으면서도 원고료를 못찾다니?》

그는 아직도 한지맥으로 이어져있고 한피줄로 사는 민족이지만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분단의 장벽이 남북사이에 가로놓여있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서슴없이 나와 학부장선생을 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성격도 생김새도 호방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도 주량에서는 꽤 깊이가 있었다.

문득 나는 뉴델리교외에 있는 아크라의 힌두교사원에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두덜거리던 그의 모습이 되살아나 혼자 웃었다. 사원을 참관할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었는데 참관을 하고 나오니 그만 신발이 없어졌던것이다. 분명 그때도 그는 술에 취해있었다.

민주로조계렬극단의 극작가로서 활동하고있다는 호리우찌는 자기가 최근 무대에 올린 작품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나서 집안형편을 두고 말하다가 자긴 요즘 《자유의 무덤》에서 뛰쳐나온 《천사》로서 《천당》에서 살고있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마주보자 수입이 적은 자기에 대해 늘 불만을 품어오던 안해가 종내 집을 뛰쳐나갔다고 하면서 안해가 사라지자 자식도 제 갈길을 찾아가고 없는 빈집, 즉 《자유의 무덤》과 같은, 안해나 자식의 구속을 받지 않는 《천사》로서의 생활이 곧 《천당》이라는것이였다. 좋아서 하는 말인지 나빠서 하는 말인지 짐작할수 없는것은 둘째치고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자기 갈데로 간 안해라면 응당 반감이나 격분을 표시하겠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사소한 불만도 없어보였다.

《여기 있는 김선생도 아실테지만 일본에서 살자면 3고(高)가 갖추어져야 하지요. 키가 크고 로임이 많고 사회적지위가 높아야 한다는건데 그야말로 1고의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떤 녀자가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마치 자기같은 남편이 버림받은것은 응당하다는 말투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버린 안해에게 원한을 품을래야 품을수도 없다는 기색이여서 나는 불가사이한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다. 그래서 실례가 되는 말인줄 알면서도 한마디 비치고말았다.

《만약 그런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작품으로 써서 무대에 재현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일정한 사회적인의도 있을것 같은데...》

《그럼 작가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남편이 옳다고 해야 옳은가요, 아니면 안해가 옳다고 해야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활의 파도에 밀리어 함께 탄 배에서 뛰어내린 안해를 잘못했다고만 할수야 없지요. 응당 처와 자식을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남편이 제구실을 못하는데다가 안해에게도 자기 리상을 실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의무와 권리의 호상 반작용을 취급한 주제의 작품은 이미 범람하니까요.》

생활의 공부정이 그대로 작품의 공부정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쓰라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긍정으로 보지 못하는 호리우찌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니 보다는 공부정을 이해할수 없이 되버린 현실, 나아가서는 그런 생활이 응당하고 보편적인것으로 범람하고있는 일본이라는 사회에 대해 많은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편과 안해,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의무와 권리로 따지기에 앞서 부부가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가 되여 사회의 세포를 이루고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생활인가!

우리는 마주앉아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였으나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서 생활하고있다는 이질감을 피할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어쩔지 호리우찌에 대한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헤어질 때 여유가 생기면 평양에 꼭 한번 가겠다는 결심만은 믿어달라고 했다.

그밖에도 나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시절의 선생님들이며 조국에 자주 오는것으로 하여 서로 안면을 익힌 《조선신보》사의 기자들과도 만났다. 그러나 만난 사람들중에서 꼭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어릴 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과의 상봉이다.

누구나 일생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이 사춘기, 그것도 한창 철이 들던 시절에 대한 추억인것처럼 나 역시 다른 일들은 다 세월과 함께 루적되는 망각의 너울로 하여 빛이 바래여졌지만 열네댓살때 겪었던 일들은 마치도 하얀 인화지에 뚜렷이 정착된 사진처럼 뇌리속에 생생하니 찍혀져있다. 그것은 아마 모두가 어린 나이에 부모슬하를 떠나 한지붕아래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친형제처럼 지낸 기숙사생들이였기때문에 더한지도 모른다.

내가 일본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약속된 장소로 달려왔던것이다. 도쿄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 저 북해도와 삿포로에 있는 박동무와 윤동무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고 후쿠시마에 있는 김동무는 5시간동안이나 자동차를 몰아 상봉장소인 다카사키로 왔던것이다. 거의다가 30여년전 기숙사에서 헤어진후로는 처음 만나게 되는 얼굴들이였다.

《야- 대현이! 대현이가 옳구만, 영?》

《이제 누구야! 인수가 아니야, 박인수! 그런데 본

래 끼던 안경은 어쨌어? 아니 넌 찌비(꼬맹이) 일꾼이구나. 웬 키가 그새 이렇게 컸나? 정말 몰라보겠는걸. 이것 참!»

그야말로 머리가 허연 장년들이 순간에 《야》, 《자》 하는 철부지로, 33년이라는 세월이 《그새》라는 단 한마디말로 압축된 순간이었다.

처음엔 《그새》 서로 변모한 모습에 놀랐다가 그 놀라운 모습에서 어릴적 모색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웃어대다가 그 웃음을 통해 다시 갖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나 더욱 떠들어대지 않을수 없는 우리들이었다. 따져보면 《그새》라는 그 기간에 모두들 두세 자식의 아버지가 된것은 물론 어엿한 총련 일군으로 또 상공인으로 성장했으니 어찌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지 않을수 있랴.

다까사끼의 아늑한 온천려관을 숙소로 정한 우리는 곧 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 대학졸업후 취직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지금 하고있는 일에 대해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후부터 일관하게 총련 전임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조동무와 박동무, 아버지의 기업을 인계받았으나 《풍랑》에 부대끼여 《전복》되기까지 했던것을 피멍이 되어 겨우 살려놓은 주동무, 생계에 급급하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총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점점 동화되는 단계에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강동무, 두 자식이 다 딸인것으로 하여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곰》을 들여 《빛었》는데 그게 또 딸이었다는 김동무...

각이한 생활이 각양각색의 형태로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온 려관이 떠나가게 웃으며 떠들어댔다.

팬찮아요, 우리 기숙사생들은

갑자기 정동무가 손벽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당시 유행되던 일본노래에 기숙사생활을 내용으로 한 가사를 붙인것으로서 우리들이 즐겨부르곤 하던 노래였다. 우리는 하나같이 손벽을 치며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종소리에 깨어나고 종소리에 잠들어도
씩씩하고 건강하니 마음놓아요
다만 걱정은 배가 고포것
어머니 약간의 용돈만 보내주어요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눈앞에는 어느덧 잊을수없는 기숙사생활의 갈피갈피들이 주마등마냥 스치었다.

《생각나나? 화재가 날번 한 일로 해서 우리모두가 벌을 받던 일 말이야.》

박동무의 말에 우리모두는 하나같이 소리쳤다.

《생각나구말구.》

《발가벗기운채 운동장에서 벌벌 떨며 <말뚝기합>을 받던 일 말이지?》

《그때 기숙사위원장을 하던 그<구마(곰)>선배 꽤나 무섭기도 하더니.》

우리는 화재가 날번 한것이 누군가의 담배질때문이라는 《구마》의 판단밑에 전 기숙사생이 운동장에 몰리워 나와 벌벌 떨어야 했던 그 《사건》을 잊을수가 없었다.

《난 자네들을 만나면 이 말만은 꼭 해야겠다고 맘먹고있었네. 알겠나. 그건 내가 얼마나 열근하고 모자라는 위인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말한 박동무는 앞에 놓인 술잔부터 꿀꺽하고 비웠다.

《그때 <구마>가 운동장에 서있는 우리에게 뭐했는지 알아? <담배를 피운놈 나오라. 나올 때까지 벌을 세우겠다. 그러나 자기가 피었다고 말로 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래서 내가 매 사람앞에 다가가 손을 내밀테니 안피웠으면 그냥 잡기만 하고 피웠으면 힘을 주어 잡으라. 알겠는가? 그러면 관대히 용서하겠다.>》

박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과연 그런 일이 생각나 우리는 그의 비상한 기억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때 매 사람에게 손을 내밀던 <구마>가 내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네, 순간 난 당황해서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긴장했던탓인지 그가 내미는 손을 처음엔 그냥 잡았으나 어쩐지 미타한 생각이 들어 지그시 힘을 주어 잡았던말이네. 담배를 피웠으면 꼭 잡으라고 했는지 안피웠으면 꼭 잡으라고 했는지 그만 혼돈해버린거야. 글썄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에 있나? 그러자 나를 한참 마주보던<구마>가 내 귀에 대고 뭐했는지 알아? <음, 바로 네놈이였구나.> 하지 않겠어.》

《하하!》

《허허!》

우리는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자기 방으로 오라는 <구마>의 지시대로 그의 방에 갔더니 대번에 주먹이 날아들면서 눈앞에 불꽃이 번쩍하는거야.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고 내가 그만 착각을 해서 손을 잘못 쥐었다고 말하려는데 어쩐지 그 말이 나와야 말이지. 그런 말을 한대야 <구마>가 믿어주지도 않을거구. 난 그 일이 억울해서 밤새껏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네.》

우리는 어째서 박동무가 그때 일을 그리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희생적인 자백》으로 모두를 구원해준 그에게 뒤늦게나마 심심한 《사의》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때 그 <구마>가 지금 어디 있나?》

나의 물음에 박동무는 소리없는 웃음을 씩 웃었다.

《체육경기때마다 제일 성과가 좋은 우리 아모리현 체육협회 회장으로 일하는데 그를 만날 때마다 난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보상>을 요구하군하지. 그러면 그는 못이기는척 하면서도 꼭꼭 한턱씩 내군 한다네.》

《그러니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아내고있구만.》

주동무의 말에 또다시 폭소가 일었다.

자리를 옮겨 뜨뜻한 로션온탕에 몸을 잠근 우리는 동창들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동창들중에는 조국이 맡겨준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하와이로 돈벌이를 떠났다가 히로뽕중독자가 되어 돌아온 친구도 있었고 일확천금을 노리어 경마수가 되었으나 요즘은 무엇때문인지 말로부터 요트(경기용배)로 꼬리잡이한 친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하게도 빗독촉에 견디지 못해 몇해째 행방을 감추고있는 친구도 있었다.

일본이라는 오염된 환경이 웬만큼 정신을 차리고 자기단속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쉽사리 병균에 감염되고 만다는 사실은 만약 내가 그냥 일본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를 건너 사람이 그런것처럼 참말로 조국의 품에 안긴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확신을 나는 새삼스레 절감하였다. 그러면서 부모슬하를 떠난 어린 철부지를 품에 안아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애지중지 키워 내세워준 이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나는 나의 운명에 대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탕안에 황동무가 없는것도 알지 못했다. 긴요한 전화를 걸고 있다고 조동무가 알려주었으나 《이 친구가 또 시가고까에서처럼 <행방불명>이 된게 아니야.》

하는 누군가의 말에 모두는 곧 그때를 회상하며 킬킬 웃었다.

중학교 2학년때 학교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울 목적으로 나가노현의 시가고까에서 실상행군을 조직했었는데 행군도중에 황동무가 없어졌던것이다. 워낙 체질이 약한데다가 하루밤 꼬박 새우며 행군을 하다나니 지질대로 지친 그가 그만 눈길에서 벗어나 키가 넘는 웅덩이에 빠져버렸던것이다.

누구보다도 그를 두고 걱정한것은 우리 기숙사생들이었다. 화불을 켜들고 온 산판을 누비던 우리는 겨우 새벽녘에야 그를 찾았는데 우스운것은 눈구덩이에서 끌어낼 때까지도 그가 코를 끌며 자고있는 사실이었다.

《그런 눈속에 빠졌지만 지금은 혹시 저기 있는 혼옥탕(남녀가 동시에 들어가는 탕)에 빠져있는게

아니야? 어서 가보라구!》

누군가의 톤답이었으나 우리는 곧 웃음을 거두었다. 조동무가 요즘 직장문제때문에 그가 몹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였다.

《직장문제라니?》

같은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조동무의 말에 의하면 황동무가 얼마전 만팔을 일본 간호원양성소에 보냈다는것이다. 전임 일군치고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지만 세 자식이 다 학생인 황동무로서는 부득불 만팔을 직장에 보내어 얼마되지 않는 수입이지만 거기에라도 의존할수밖에 없는 처지라는것이다. 그런데 그 일로 하여 학교에서는 전임일군 특히 교육자가 자기 딸을 우리 학교가 아닌 일본학교에 보냈다는것으로 하여 교권문제가 논의된 끝에 황동무를 학교에서 제적하는 조치를 취했다는것이다. 그래서 실은 그가 이번 모임에 올 형편이 못되는것을 왔다고 한 조동무는 이 사실을 자기만이 알고있는 비밀로 붙여줄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것이였다.

나는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하여 딸을 일본간호원양성소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황동무를 학교에서 제적까지 한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가? 아무리 교권이 엄격하기로서니 그 교권으로 제적된 황동무는 필경 벌이가 나은 일본 회사나 기업으로 일터를 옮기게 될텐데 그러면 결국 딸과 함께 아버지까지도 우리 대렬에서 떨어져나가게 하는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렬에 남아있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나는 그가 방에 들어 올 때까지도 못내 무거운 기분이였다.

드디어 황동무가 벗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그의 얼굴에는 홍조가 어려있었다.

(직장이 해결된 모양인가?)

아니다나를가 그는 조동무의 어깨부터 털썩 때리는것이였다.

《확실히 오늘은 명절일세, 명절. 몇십년만에 우리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데다가 내 직장문제까지 해결됐으니 말이네. 방금 전화로 소장하고 합의를 봤네.》

그는 다짜고짜 자기의 잔에다 술을 붓기 시작했다.

《어딘데?》

조동무의 물음에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연구소야, 자연과학연구소. 총련출판회관안에 있는.》

(총련?)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교원으로 있다가 제적된 그것도 생활상 리유로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이 생활상 보다 유리한 일본회사를 택하기는 커녕

오히려 교원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못한 연구사로 들어가다니? 그러고도 저렇게 기뻐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에게 물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총련기관이란 말인가?》

《왜?》

그제야 그는 자기 사정을 내가 알고있다는것을 눈치챘는지 시무룩이 웃었다.

《그럼 내가 일본회사라도 갈줄 알았나? 물론 올라는데는 있네. 노력하면 꽤찮은데도 갈수 있고 그러나 그럴수야 없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굉장한 애국자갈네만 때를 맞아도 벌을 받아도 다른 길로 갈수 없는 이것이 이제 어쩔수 없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판일세. 안그런가, 조동무! 자 이제부터 마음놓고 실컷 마셔보세. 잔을 들게, 촉배!》

나는 커다란 충격을 이길수 없어 잔을 들어 통채로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러고나니 술때문이 아닌 그 어떤 류다른 격정이 찌르르 하고 가슴을 지지는 것이었다.

한발자국만 옮겨디더도 얼마든지 벌이가 나은곳으로 갈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문제가 서거나 책벌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시비조차 할수 없으려만 잘되나 못되나 자기 운명을 언제나 총련, 나아가서 조국과 떼어놓지 못하는 황동무, 그것은 자기의 생활이 어떻든 또 조직의 대책이 어떻든 늘 그보다 더 높은곳에 자리잡고있는 그의 애국에 대한 깨끗한 량심때문이었다. 시가고간의 눈구덩이에 빠졌다가 대오를 따라선것처럼 이번 역시 시련은 있어도 끝까지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는 앞으로 대오와 함께 힘차게 걸어갈것이다.

그런 황동무가 자랑스러웠다. 아니 그와 같은 친구를 가지고있는 내자신이 행복스러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네. 철웅이!》

온밤 우리는 자지 않았다.

30년만에 겨우 만났는데 래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오늘처럼 친구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뿐아니라 더는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기약없는 작별이 아쉬워 잠들수가 없었던것이다.

나는 주동무와 나란히 누워있었다. 중학시절 3년 세월을 기숙사의 한방에서 코를 맞대고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다. 내가 일본에 온다는 연락을 받자 이 이리난 온천지를 모임장소로 택한것도 같이있게 되는 하루반이라는 기일을 시간별로 쪼개여 다채로운 계획을 세운것도 지어는 옛날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이며 앨범까지 일일이 준비해 가지고 온것도 다 그의 세심한 성격과 남다른 인정에서 출발된것이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그가 나에게 일본말을 가르쳐주는 대신 내가 그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기로 약속했으나 서로가 한쪽 말밖에 모르는것으로 하여

할수 없이 《통역》이 있어야 했던 일이며 아침마다 늦잠꾸러기인 나를 깨워 스포트볼경기에 망라시키려고 베개머리에 앉아 《여, 제발 일어나라마.》하고 애원하다싶이 하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더우기 한 녀동무한테서 편지를 받았지만 일본글로 쓴것이여서 그에게 가지고 갔을 때 그가 편지를 보기도전에 펄쩍 뛰며 하던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알아? 타브레타야 타브레나! 너 이 처녀하고 같이 살래?》

남자에게 보내는 녀자의 편지는 다 편애편지라고 생각하는 시절이었으나 그는 편애편지만 받으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믿어 마지 않으리만치 순박했던것이다.

《그래 아이들은 다 잘 크나?》

《만팔은 벌써 시집을 보냈네. 멀지 않아 난 할아버지가 되지.》

《할아버지라.》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의 절반이나 되는 생활이 어느새 다음대에 이어지고있다는 새삼스러움에 놀라며 서로의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 조국엔 언제 오겠나?》

나는 조국에 귀국하여 보건부문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있는 그의 형을 생각하며 물었다.

《글쎄 잘하면 래년에 한번쯤이나 갈수 있겠는지...》

《왜 한번이라는데?》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내손을 꼭 쥐었다.

《사실 난 지금 몸쓸 병에 걸린 몸이라네. 혼자만 알고있게. 무슨 혈액병이라나. 자주 피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 회수가 점점 쫓아지고있지. 잘하면 몇년 살고 잘못하면 당장 급사할수도 있다는거야. 그래서 난 요즘 만이에게 기업을 맡을수 있게 수련을 주고있는 한편 한쪽으로는 인생총화를 하고있는셈이지. 남동무가 온 기회에 기숙사친구들이 한번 모이자고 한것도 그 총화의 한 형태라고할수 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태연할수있는 그가 놀라왔고 그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생명을 조국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보람있고 떳떳하게 보내려고 애쓰고있는 그가 더 놀라왔다.

자리에서 일어 나앉은 그는 담배를 꺼내물며 말했다.

《고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생활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네. 오늘따라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살고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구만. 사람이란 과연... 참! 한가지 부탁이 있네. 내가 이런 병이 있다는것을 조국에 있는 형님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거네. 그렇지 않아도 연구사업때문에 바쁘신 형님인데... 단지 내가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 형님이 놀랄수 있는데 그때 가서 내 몸에

이런 이상이 있었다는것을 말해달라는거네.》

《...》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에 대한 생각,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 아버지없이 살아가야 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50평생을 오로지 조국을 희망의 표대로 바라보며 애국의 한길을 따라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온 그의 한생에 대한 생각.

다음날 서로 헤어져야 할 역두에서였다. 주동무만 남고 모두는 도교로 올라가 거기서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겐 어쩐지 그의 운명에 대한 예고인양 불길하게 여겨지기만 했다.

나는 그의 두손을 잡았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잊지 않겠네. 청삼이, 부디 건강해서, 알겠나? 절대로...》

나의 목소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자 이거, 차표!》

내손에 차표를 쥐여준 그는 얼른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무엇을 잊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러가기라도 하는것처럼 종종걸음을 쳤다. 고개를 들고 어딘가 웃쪽을 쳐다보는 품이 눈에 고인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것이 험동했다.

《청삼이-》

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리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소리에 쫓기듯 넓은 역구내를 뛰다싶이 하여 벗어나 광고들이 늘어선 간판뒤로 홀 사라져버리었다.

도교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으나 나는 친구들과 마주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마지막말을 잊지도 못한채 뒤돌아서서 뛰어가던 주동무, 혹시 그 모습이 내가 보는 그의 마지막모습이 아닐까? 제발 그것이 그의 마지막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눈시

울이 젖어들어 건딜수가 없었다. 할수없이 옆칸으로 간 나는 조용한 객실 한쪽구석에 앉아 두손에 얼굴을 묻고 마음껏 눈물을 쏟았다. 지금도 그때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 이튿날 그는 이런 짙막한 글을 팩스로 보내어 왔다.

헤어질 때 눈물이 앞을 막아 인사도 제대로 못한것이 유일한 후회로 남는다. 상봉이 이토록 기쁘고 작별이 또한 이토록 슬픈줄은 몰랐다. 다감한 소년 시절 뜻을 같이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또 아무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정은 오히려 깊어진다는것을 절감했다. 종소리에 깨나고 보리밥을 먹으며 기숙사생활을 한 우리들은 모두가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임을 명심하자, 《청춘송가》, 《태양찬가》와 같은 작품을 더 많이 써주기 바란다. 조국의 형님에게 건강한 몸으로 있는 동생의 안부를 전해주기 바란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왔다 .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일본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 잊을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 쓰는 총서작품에 그 바람세찬 이역땅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역세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은 물론 탁류같은 세파속에서도 깨끗한 샘물같은 마음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친구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없는것처럼 나는 내가 만난 일군들과 동포들 그리고 친구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우리 조국이 그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와 함께 내 자신이 그들의 다심한 성의와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결의다지게 된다.

가사

장군님 따르는 한생각

김웅회

불밝은 창밖에선 눈비가 내려도
끝없이 깊어지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
오늘은 또 그 어디 험한 길 헤치시며
아버이장군님 찾아가실가 이어가실가
아 인민의 행복위한 그 한길에서
기쁨만을 안으시는 장군님생각

설명절 그날에도 눈보라 헤치시며
만경대 원아들을 찾으시던 우리 장군님
굽이굽이 자강땅의 험한 평도 넘으시던

그 걸음 이으시며 어디 계실가 어데 가실가
아 인민의 행복위한 그 한길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장군님생각

성강의 봉화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 걸으시는 그 길이 천만리라든
따르며 받드는 우리 마음도 천만리라든
아 인민의 행복위한 그 한길에서
영광만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생각

시가의 천만리

새해 주체88(1999)년, 21 세기와 상봉하는 해입니다.

어차피 오고야말 21 세기이지만 얼마나 큰 희망과 감격이 앞혀진 우리와 상봉입니까!

위대한 새 세기! 그 새 세기를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열정의 시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회를 찾은 우리 편집부는 리동수동무와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문: 사람은 나이로 살고 생을 마치지 않듯이 작가는 창작품으로 자기의 생을 남깁니다.

그런데 두 세기에 자기의 생을 남기게 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답: 예. 위대한 **김정일** 세기로 들어서는 우리 시인들의 심정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설레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세기의 작가! 이 부름속에 우리 시인들의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열도가 위대한 새 세기를 더욱 빛내이는 벗이 되고 열이 될 때 시인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할수 있지요.

문: 시인의 열도는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답: 일컬어 분노가 시민의 열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이며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현지도의 천만리는 그대로 우리의 시로 됩니다.

시분과위원회의 시인들은 지난해 정초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현지도의 자욱자욱에 자신들의 심장을 불태우며 따라섰습니다.

장군님 걸으시는 천만리는 우리의 천만리이며 우리 시의 천만리입니다.

저 멀리 북방의 자강도와 대흥단군, 성강으로부터 최전연초소의 인민군구분대들에 이르

기까지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는 현실체험의 나날에 우리 시인들은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진두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탁월한 령도력,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려는 인민의 불같은 맹세를 강한 감흥으로 받아안고 많은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시인 백의선, 류동호, 김만영, 김석천, 주광일, 김영택, 김철후 동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숫눈길을 헤치시며 자강도를 현지도하시였다는 보도를 접하자 즉시 강계시, 장강군과 성간군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사 《미래와 마주웃는 땅》(류동호), 서정서사시 《뜨거운 눈보라》(김철후), 서정시 《여기에 와보시라》(주광일) 등 20여편의 시와 가사를 창작하였습니다.

작품들에서 우리 시인들은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려가신 장강군 은정마을의 길가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난방화된 집에서 사람의 선물텔레비존을 보며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그 집 식구들을 부러워하자 소박한 안주인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여기서 살고싶다니 웅근 한개 도시를 건설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인들에게 《작가 선생님들이 전기화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부러워하니 선생님들이 지고갈수 있을정도의 상자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장강군의 전기를 넣어 보내드리지요.》라고 말하는바람에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웃었습니다.

이 랑만이 넘치는 웃음속에서 우리 시인들은 장군님께서 하라시는대로 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오늘날 고난의 천리길을 헤치면 래일에는 행복의 만리가 반드시 온다는것을 절감하였고 그 신념을 안고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꾸려가는 이곳 인민들의 참다운 애국심을 뿌듯이 받아안았던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로정을 따라 대흥단군으로 찾아간 조창재, 김석천, 박정애, 정은옥 동무들은 자신께서 직접 감자농사를 책임지시고 감자농사에서 끝장을 보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높은 뜻을 바로 시로 받아들인 우리 시인들은 실속있는 현실체험을 하면서 가사 《감자꽃이 피어날 때》(정은옥), 《백무삼천리벌의 설레임소리》(박정애), 《인사를 받아다오, 대흥단이여》(조창재), 《공산주의리상촌문이 열렸소》(김석천) 등 8편의 가사와 4편의 시를 현지에서 창작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장쾌하고 승엄한 해돋이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달받은 우리 시인들은 지난 10월 1일부터 근 1개월간 백두산답사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무두봉에서 백두산천지까지 왕복하면서 세 번째만에 세상에 다시 없을 백두산의 해돋이를 끝내 부감하였고 그 강렬한 느낌을 그대로 가

사 《붉은 파도》(김은숙), 《백두산의 해돋이》(박경심), 시 《백두산》(차영도), 《백두산의 불타는 새벽》(홍현양)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성강과 희천지구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구월산, 칠보산 그리고 최천연초소의 구분대들에 찾아가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인민적품모가 어려있는 그 거룩한 자욱자욱에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세기의 작가가 되는 우리의 본분이 있으며 새해에는 우리의 시가 작품들이 시대의 진군가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문: 고맙습니다. 새해도 총하짓는 날이 있겠지요?

답: 예. 그날은 21세기와 상봉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다시 만납니다.

답시

분옥이의 이야기

한 원 희

통문대굴은 꽃세계
굽이굽이 진주보석
아버이장군님 모시고
절승경개 한굴이 돌아드니

하얀 수염발 가슴에 드리운
종유석할아버지
기다린듯 바위벽에 서있네

해설원 분옥이 말씀드렸네
-장군님, 저 할아버지 종유석모습은
신선할아버지랍니다
장군님께 길안내를 해드리려
천년만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장군님은 반가운듯 바라보셨네
-신통하오
신선할아버지 모습 분명하구만
즐겁게 웃으시며 또 한굴이
이번에는 앵무새 종유석이

바위천정에 앉아있네

해설원 분옥이 또 말씀드렸네
-앵무새입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려 하건만
감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장군님은 호탕히 웃으시었네
-그래 그래
앵무새요, 애기앵무
나는 동무의 말을 그대로 믿겠소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분옥이의 가특한 마음
즐거운 웃음속에 받으시는 장군님
아 자연의 신비경 천연의 절경우에
인 민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 높이 솟아 빛나네

대동강의 풍경

엄성영

1

물위에 내려앉은 감빛 저녁노을이 거울조각처럼 반짝인다. 휘우듬히 뻗어간 호젓한 강안유보도를 따라 청춘남녀들이 산책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굳이는 강물에 목추김이라도 할듯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가지들이 가볍게 어깨에 와닿을 때면 손을 들어 말없이 등뒤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점점이 널린 긴의자에 앉아 기슭을 다독이는 잔물결을 바라보며 명상에도 잠겨있다.

《잉어다!-》

갑자기 강안의 고요를 깨뜨리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동쪽길을 따라 방직공장으로 걸음을 옮기던 오영민은 무춤 그자리에 멈춰섰다. 산책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일시에 소리난쪽으로 쏠렸다. 정말 가관이였다. 팔뚝같은 잉어 한마리가 강물우에서 비늘을 번쩍이며 마구 푸들쩍거리고있었다. 대령강녘에 바투 나왔은, 파뿌리 같은 수염발에 밀짚모자를 쓴 헌걸찬 로인이 낚시대를 머리위로 훌쩍 추겨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선것이다.

(숨씨가 팬찮은데!)

영민은 부지중 입속으로 뇌이였다. 다음순간 낚시꾼 로인의 장대한 키썰이며 낚시대를 다루는 품이 어딘가 펍 눈에 익은 모습이었다. 어느새 그는 동쪽아래로 성큼성큼 내려섰다.

《차, 그놈 뒤키로는 잘 나가겠는걸!》

어깨성을 이룬 구경꾼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미끼를 갈아댄 로인은 그게 뭐 대수냐는듯 물위에 천천히 낚시대를 드리우고있었다.

《로인님, 그새 건강하셨습니다까?》

오영민은 낚시꾼 로인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전에 아름다리 오동나무 몇그루를 사이두고 서로 이웃하여 살아온 최로인이 옳았다. 자신이 방직연구소 실장으로 소환되어 가기전까지만 해도 가끔이 대령강가에서 낚시꾼의 묘리를 일깨워주던 로인이다.

칠순나이를 바라보는 그는 아직도 허리가 꼳꼳하고 눈정기가 좋아 영민을 대뜸 알아보았다.

《아니, 임잔가! 어떻게 내려왔나?》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이 가볍게 놀라는 기색이더니 인차 반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예. 방직공장 공업시험소에서 새 기술 발명을 했다는 기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들은 모두 재간둥이라니!》

로인은 밝은 얼굴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듣고보니 대견한 모양이다. 그 겨를에 색동옷을 입힌 까부기가 물면에서 숨박꼭질하는것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오영민이 급한 소리를 질렀다.

《줄... 줄을 채십시오.》

《잉?!-》

로인은 재빨리 낚시대를 잡아채며 머리위로 들어 올렸다. 날과람있는 그 숨씨는 여전했으나 물밖에 꺼낸것은 빈낚시뿐이다.

《허, 조금만 헛판대 정신을 팔아두 일을 그르친다니! 어느새 미끼를 채가지고 도망갔군.》

로인은 고기를 놓친 아쉬움때문인지 아니면 미처 다 터득시켜주지 못한 낚시꾼의 묘리를 일깨워줄 심산인지 조용히 뇌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오영민도 못내 섭섭한 심정이였다.

《미끼까지 찬걸 보니 큰놈이 물렸던 모양입니다.》

《허허 놓친 고기는 다 크다고 한다니. 현대 실은 큰놈은 큰놈이었어.》

로인은 두눈을 끔뵈이며 소리내어 꺽꺽 웃었다. 오영민도 따라 웃었다.

《지금도 대령강에 고기가 많습니까?》

《많다마다. 이렇게 깊은 소엔 큰고기들이 육질거리지. 뭐니뭐니 해도 이 강에 기울인 임자 정성이 크다니!》

로인은 갑자기 말허리를 꺾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미출하게 다스려진, 반들반들하게 웃칠까지한 낚시대를 영민이앞에 내밀었다.

《왜 한번 낚아볼 생각이 없나?》

《아, 아닙니다.》

오영민은 서둘러 물러나며 가볍게 사양했다.

《급한 걸음인데군.》

《예. 공업시험소의 박인석동무를 만나봐야 하겠습니다.》

《그사람을? 이제?...》

뜻밖에도 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는것 같더니 손에 쥔 낚시대를 내려놓고 대령강의 상류쪽을 가리켰다.

영민은 어리둥절한채 눈길을 그리고 가져갔다. 대령강으로 흘러드는 자그마한 개여울을 지나 저쪽 후미진 강안에 버드나무숲이 우거져있었다. 아름답리 그루열에 여기저기 긴의자들이 놓였고 거기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두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인석기사가?...)

영민은 가볍게 놀렸다. 류달리 체소한 몸매에 목이 긴 그 젊은이는 틀림없는 박인석기사였던것이다. 평소에 말이 적고 아리잠직하면서도 어딘가 강단이 느껴지곤하던 그가 지금 처녀에게 뭔가 열정적으로 속삭이고있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처녀는 듣기만 하고.

그들의 발치에서는 잔물결이 쉬임없이 기슭을 다독이고 머리우에서는 버드나무가지들이 가볍게 흐느적이다.

영민은 입귀가 벅글썩해졌다. 저도 모르게 이 대령강가에 흘러보낸 자신의 청춘시절의 정회가 깊어지며 한결 마음이 흥겨워졌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가?)

영민은 그렇지 않아도 기별을 보내온 공업시험소 장한테서 인석이에게 참하고 똑똑한 처녀가 있으니 곧 짝을 무어줄 생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어찌하면 이번 기회에 그의 국수까지 먹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부죽한 얼굴에 빙긋이 미소를 짓는데 얼마앞 개여울락에서 갈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던 소녀애가 갑자기 급해맞은 소리를 쳤다.

《안야 안야, 그런게 안야!》

《체, 네 배만 철갑선인가 뭐?》

결에서 지켜보던 사내애가 무슨 생각이 동했는지 돌덩이며 흙덩이를 손에 잡히는대로 마구 개여울에 집어던진다. 한가롭게 떠가던 갈배가 금시 뒤집힐듯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한다. 소녀애의 얼굴은 금시 울상이 되었다.

《이녀석들, 조용하지 못할가? 물고기가 달아나.》

마침내 로인이 석심한 목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사내녀석은 그 엄포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되박이마를 쳐들고 씩웃 웃어넘긴다.

《심술쟁이, 강에 돌을 던지는건 나쁜애야!》

《흥, 흥...》

《저것 봐. 물이 흐르지잖니. 넌 대령강에 흙탕물이 흘러드는게 좋니?》

《...》

《그러지 말어. 내 너한테도 철갑선을 만들어줄게.》

《응 좋아, 다신 안그렇게.》

곧 화해가 된 애들은 언제 다뤘냐싶게 개울가 풀송그리에 종아리를 퍼더버리고앉아 다시 갈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허허 녀석들두...》

애들이 노는 모양을 지켜보던 로인은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웠다. 그리고는 영민의 웃자락을 가볍게 꼬당겼다.

《임자, 그냥 놔두라니. 오늘이야 일요일이잖나.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구. 임자가 좋아하는 잉어회를 듬뿍 쳐놓을테니.》

로인은 물속에 잠겨놓은 고기그물주머니를 반쯤 들어올렸다. 시누런 배때기를 드러낸 잉어들이 꼬리지느러미를 마구 휘두르며 철떡철떡 물장구를 쳤다.

《임자야말로 이 대령강의 잉어회를 먹을 자격이 당당한 사람이라니.》

《별 말씀을...》

오영민은 주위를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물새들이 깃을 치며 날아에는 대령강의 저녁풍경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이 대령강을 위해 바친 자신의 지난날이 감회깊이 돌이켜지며 박인석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가슴이 더욱 들레이기 시작했다.

2

신록이 짙은 공장구내길의 수삼나무들이 어느새 아침이슬을 말끔히 털어버린뒤였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넝쿨장미꽃의 감미로운 향기가 오래간만에 옛 일터를 찾아온 오영민의 마음을 한결 밝고 기쁘게 해주었다.

(박인석이 끝내 성공을 했던말이지!)

6년전, 자신이 방직연구소 실장으로 소환되어 가면서 후임으로 사업을 인계받은 그 박인석이 염색 오수정화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공교롭게도 방직설비의 고속화문제로 한달가까이 서부지구에 나가있다보니 뒤늦게야 기별을 전해듣고 부랴부랴 급한 걸음을 한 영민이로서는 반가운 가위에도 그가 어떻게 새로운 발명을 할수 있었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염색오수정화로 놓고 말하면 그래도 방직부문에서 물체가 환한 사람중의 하나로 알려져있고 그 권위와 발언권을 실천적성으로 담보하고있는 그는 이미전에 이 분야의 연구사업에 자기판의 중지부를 찍었던것이다. 이곳 공업시험소에 있을때 오수정화장을 차려놓고 화학직장 소속으로 정화작업반까지 꾸려놓다보니 염색오수가 대령강으로 흘러들 때는 맑은물로 정화된 다음이었다.

제다가 염색오수에서 갖가지 색감을 추출하여 재생리용할수 있는 시험까지 성공하고 보니 오수정화 때문에 더이상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굳이 미흡한 점을 찾아본다면 오수정화에 쓰이는 첨가물이 다소 값나가고 좀 귀한 편이라고 할가.

때문에 오영민은 박인석에게 사업인계를 할 때에 일종의 확신은 가지고 은근히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왕이면 큰걸 잡으라구. 나같이 쇠쇠한걸 붙잡

구 세월없이 고시랑거리지 말구.》

인석은 허심하게 받아들였다. 두해가 지나고 세해가 흘렀다. 그러나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공장에 한두번 다녀오는 과정에 그가 여전히 오수정화문제를 붙잡고 씨름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와서 구차하게 남위 일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았다.

《될성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너무 기대가 컸어.》

《달리기경기도 첫발자국이 중요하다는데.》

박인석에 대한 기대는 동료들속에서 자못 흔들리기 시작했다. 허나 오영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이 쟁개비 뚫듯할수야 없지!)

그는 자기류의 아량으로 사실을 넓게 이해하려고 했다. 멀리 뛰려면 한발 물러서는 경우도 있지않는가, 더구나 탄탄대로가 없는 과학탐구의 길에서임에랴!

다섯해가 지나고 여섯해가 잡혔다. 이제는 그도 동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웬일인가? 강단성이 소심성으로 변화된것일까?)

오영민은 마침내 박인석의 지나친 침묵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선협자로서 박인석이 연구제마를 놓고 톡 까맣혀 말해주지 못한 자신이 은근히 후회되었다.

(사람두, 하필이면 남들이 먼저 따먹고난 딸기밭을 뒤질건 뭐람!)

그러던 박인석이 마침내 오래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오수정화에서 새로운 《장훈》을 불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영민은 2층복도를 따라 공업시험소 사무실에 들어섰다. 널직한 방안은 예이제 변함없이 벽을 향해 책상들이 마주놓였는데 한 처녀가 책상에 마주앉아서 기술잡지를 뒤적이고있었다.

《인석동문 어디 갔소?》

《여.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민을 지켜보는 그의 얼굴에는 웬일인지 수심이 어려있었다.

《난 방직연구소에서 일하오. 처음보는 동무로구만.》

《아이 그렇습니까? 전 옥실이라고 해요. 분석공이에요.》

처녀는 이외에도 영민을 반색하여 맞았다. 박우물이 꽤운 동그스름한 얼굴, 시원스레 큰 두눈, 보매 첫눈에도 무척 참하고 복스럽게 생긴 처녀였다.

《인석동무의 연구사업때문에 오셨지요? 제기 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릴가요?》

《허허 놈두오. 내가 찾아가 만나지.》

오영민은 처녀가 자기의 용건을 말없이도 쉽게 알아차리는것이 놀라왔다. 그리고보니 눈석이와 류다른 사이인듯했다. 문득 엿저녁 대령강가에서 인석이와 속삭이던 처녀가 바로 이 옥심이까 아닌가 싶었다.

《그래 인석동무가 어떤 발명을 했는지 모르겠소?》

《오수정화에서 새로운 첨가제를 찾아냈습니다. ...》

영민은 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새 첨가물이 기술적요구로 보나 경제적유익성으로 바나 종전의 자기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작 자신이 왜 그런걸 찾아내지 못했을가 하는 아쉬움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늦어 찾아온게 아니요? 기별을 늦게 받다보니...》

오영민은 옥심이 권하는 의자에 앉으며 미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뜻밖에도 처녀의 입에서 가벼운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차라리 늦게 오시는편이 나았는지도 몰라요.》

《늦게 오는편이 낫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영민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다. 처녀는 대답대신 손톱여물만 썰었다. 해맑던 얼굴에 다시 수심이 비끼는가싶었다.

《인석동문 오수정화에서 새롭게 찾아낸 그 첨가물도입을 포기했답니다.》

《포기하다니? 그럼 새 첨가제에 의한 오수정화 시험이 실패했단말이요?》

오영민은 금시 눈이 둥그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아니랍니다. 성공도 훌륭한 성공을 했지만...》

처녀는 웬일인지 말끝을 맺지 못한채 침울한 표정을 띠었다. 동안이 지나서야 그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로서도 뜻밖이었어요. 글썄 새로운 첨가제의 원천확정문제로 대학에 찾아갔던 인석동무가 이틀만에 기가 폭 죽어서 돌아왔어요. 왜냐구 물었지요. 대답대신 바로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옥심동무, 참 미안하오. 이번 시험은 실패요. 다시 시작해야겠소.>라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룡말로 듣기에는 그 어조나 표정이 어찌도 침통했던지 전 웬 영문이나고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처녀는 잠간 숨을 돌려 쉬더니 다음말을 망설였다. 영민의 머리속에는 빨리 인석이를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솟구쳤다.

《인석동문 지금 어느 현장에 있소?》

《열관리직장에 가있습니다.》

《열관리직장에?...》

영민은 가볍게 놀랬다.

《예. 뭇도 모르는 사람들은 연구사업이 실패하자
자진 혁명화하러 내려갔다고 하지만 실은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 시험을 새로 시작했답니다.》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

오영민은 갑자기 쇠뿔둥이로 뒤통수라도 한대 얻
어맞은듯 눈앞이 아찔했다. 그것은 이미전에 자신
이 시험해본 방법이였다. 다소 값 나가는 지금의 첨
가물대용문제를 놓고 그 방도를 모색하던 나머지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시험을 해봤으나 아직은 그
전망이 묘연했던것이다. 더구나 탄재의 활성도를
높이려면 지금 쓰는 첨가물에 못지 않는 비용이 들
어야 하므로 제스스로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런데 오늘에 와서 인석이가 그 방법을 되풀이하다
니? 그것도 성공의 열쇠가 제손에 쥐여진 오늘에
와서...

오영민의 가슴속에서는 박인석에 대한 기대가 줄
지에 허물어져내리면서 점차 알지 못한 불안과 위
구가 커져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빨리 인석동무를 만나야겠소!》

《저와 함께 가시지요.》

두사람은 곧 문밖을 나섰다.

3

열관리직장으로 찾아가는 오영민의 머리속은 자
못 번거로웠다. 자기로서는 이미 종지부를 찍은 오
수정화방법까지 무시하고 어벌이 크게도 탄재에 의
한 새로운 오수정화방법을 시험하고있다는 박인석
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지, 더구나 자기의 새
로운 발견마저 제스스로 밀어버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 그 마음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지 도무
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다. 지금껏 동료들의 뒤소
리도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보란듯이 자기의 성과를 세상에 내놓아야 할때가
아닌가.

갑자기 보이라실의 로대우에서 호탕한 웃음소리
가 터져나왔다. 보이라를 보수하던 열관리공들이
땀을 흘리다가 누구의 익살엔가 웃음보를 터뜨린것
이다.

영민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인석은 보이지 않
았다. 옥심이와 함께 재처리장까지 돌아봤으나 그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영민은 마침내 맥을 놓고 낮익은 후연도앞에서
두릿두릿 주위를 살폈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자기
눈을 의심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몇발자국 앞
에 놓인 연도뚜껑이 저 혼자 들썩거리고있었던것이
다.

(혹시 누가?...)

영민은 눈이 등그래졌다. 아닐세라 간신히 뚜껑
을 열어젖힌, 검댕이로 매닥질한 웬 사나이의 머리
가 불쑥 우로 솟구쳐올랐다.

《아이, 어찌나?》

때를 같이하여 옥심이가 비명을 질렀다.

영민은 어망결에 사나이의 손을 잡아 우로 끌어
올리면서 대뜸 어성을 높였다.

《동무 정신있소? 여기가 어디라구...》

《아니 이게 누굽니까, 실장동지가 아닙니까?》

영민이 그를 호되게 닭아세우려는데 자기를 알아
본 상대방이 무작정 반가와했다.

《모르겠습니까? 제가 박인석입니다.》

《뭐라구?!...》

영민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꼭 무슨 놀림수예라
도 든것 같았다.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대구?...)

영민은 일을 그르쳐 놓고도 자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이 과연 인석이가 옳은가 싶어 다시한번 그를
살펴보았다.

검댕이로 매닥질한 길쭉한 얼굴, 소금버께가 허
영게 내뻗 검정작업복을 걸친 체소한 몸매, 팔소매
를 걷어올린 그의 자그마한 손에 쥐여진 목통에는
연도속에서 채취한 탄재가 담겨져있었다.

영민은 억이 막혔다. 그토록 커다란 기쁨과 믿음을
안고 찾아온 인석이를 이렇게 만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옥심동무, 실험을 부탁하오.》

인석이가 손에 진 목통을 처녀에게 내밀었다. 옥
심은 대답대신 꽃술처럼 들린, 류다른 매력을 자아
내는 긴 속눈썹을 살짝이 아래로 내려깔았다. 그리
고는 함박꽃무늬가 박힌, 눈덩이같이 하얀 손수건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처녀는 모처럼 만난 두사
람의 상봉을 방해하고싶지 않아서인지, 부탁받은
실험의 시간적촉박감을 느껴서인지 분석실을 향해
종종걸음을 놓았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인석이
가 영민이쪽으로 돌아섰다.

《실장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다니, 동문 오수정화에서 새로운 발견
을 하지 않았소? 헌데 그걸 포기했다니 어떻게된
영문이요?》

《벌써 들으셨군요.》

인석은 영민이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머
리를 숙이였다. 그가 새로운 첨가제에 의한 오수정
화시험에서 성공을 본것은 사실이였다. 무릇 과학
적발견이 다 그러하듯이 알고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리치의 비밀을 간직한 새 첨가물은 종래의것보다
훨씬 값죽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북부지구에 많이
매장된 그런 첨가물이였다.

공장에서는 인석의 성공을 곧 시험소의 연구성과

로 여기고 그에게 시간을 쪼개어 논문준비를 시키는 한편 여러명의 관계자들의 이름으로 발명권신청을 냈다. 방직연구소 오영민실장에게 기별을 띄운 것도 바로 그무렵이었다. 일이 될 때라 마침 이웃군에서 탐사대원들이 그 첨가물로 쓰이는 원료를 새로 찾아냈다는 소문이 난것도 거의 그무렵이었다.

인석은 집필중에 있던 논문을 덮어놓고 부랴부랴 탐사대로 찾아떠났다. 탐사대 대장과의 장시간에 걸치는 이야기 과정에 그는 자기의 연구사업에서 결코 간과할수 없는 하나의 실책을 발견했던것이다.

인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수정화에서 제가 발견한 새 첨가물은 최근에 알아보니 천의 염색의 질을 높이는데도 절실히 필요한것인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던말이요?》

오영민은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듣고보니 새 첨가물이 오수정화과정에서 그 어떤 부족점을 갖고있는것은 결국 아니잖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공업시험소에 처음 들렸을 때 욕심이가 왜 그리도 상심한 표정이었는지, 왜 그리도 자기를 반겨맞았는지 어렵잖이나마 짐작이 갔다.

《예. 그런데 맥을 놓고있는 저를 실장동지가 일으켜세웠습니다. 도와주었지요.》

《내가?...》

영민은 인석이 그 때아닌 룡담을 하는가 싶어 그를 의아스럽게 쳐다보았다. 고뇌와 탐구의 흔적인듯 불살이 빠진 얼굴은 몹시 지치고 파리해보이였다.

《전 실장동지가 인제하면서 주고간 시험일지를 보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시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박인석은 오영민의 시험일지에서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고 힘을 얻었다. 오수도 정화하고 보이라의 탄재와 버릴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도 막을수 있다면 맑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대령강의 물은 또한 얼마나 맑고 깨끗해질것인가! 그 맑고 깨끗한 강물속에서 팔뚝 같은 잉어, 붕어들이 떼를 지어 욱실거리리라, 그것을 낚시로, 그물로 건져내는 대령강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일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보탬이 된다면 무엇을 주저하랴.

그는 급히 착상을 무르익히고 시험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제 시험설계서입니다. 짬을 내서 한번 봐주십시오.》

인석은 품이 후렁후렁한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설계서초안을 꺼냈다.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 영민의 마음은 괴롭고 안타까웠다. 제 못했다고 하며 굳이 막아나서기도 난처하고 붙는 불에 찬물을 끼얹을수도 없는 형편이여서 잠시 망설이던 영민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깨닫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

다.

《그래 시험은 더러 해왔소?》

《예. 아직 결과가 시원치 못합니다.》

《그럼 새 첨가물에 의한 오수정화방법을 먼저 학술적으로 고찰시킬걸 그랬소.》

영민은 조용히 인석의 얼굴을 살폈다. 사실 그가 찾아낸 새 첨가제는 오수정화에서 제노라고 속치부해은 그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것이였다.

인석은 생각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첨가물이 염색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요하게 쓰이는 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것을 H정공업대학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허허 그 대학연구집단에서 염색질을 높일 새 방법을 연구한다더나...》

《웁습니다. 젊은 연구사가 이번에 성공의 문을 열었는데 우리 공장에서 먼저 도입하려고 합니다.

색깔고운 천이 쏟아져나오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제가 애써 찾아낸 새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더는 미련을 가질수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엔 실장동지라도 포기하고 말았을겁니다.》

오영민은 가슴이 띠끔했다. 그러나 타성이란 집요한것이여서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에 그냥 묻어둘수 없었다.

《인석동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발명인것만은 틀림없지 않소?》

《아닙니다. 국가가 덕을 보지 못하고 나라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발명이야 뭇때문에 필요합니까? 왼쪽을 뿔아 오른쪽을 고이고 오른쪽을 뿔아 왼쪽을 고이는 그런 발명말입니다.》

오영민은 진정이 넘친 그의 주장에 생각이 깊어졌으나 이미 자신이 겪어온 실패의 쓴맛은 되풀이시킬 마음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인석을 만나 명백히 선을 긋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 놓으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주책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당황하게 되는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게 느껴졌다. 영민은 그러한 자신이 화가 났다. 마침내 그는 인석에게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시험결과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을수 없었다.

《난 동무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할걸 권고하오.》

《예?!...》

두사람사이에는 낯덩이 같은 침묵이 흘렀다. 마침 열관리직장 로대우에서 박인석을 찾는 목소리가 울렸다. 영민은 무겁게 발걸음을 떼는 박인석의 뒤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4

영민은 하루종일 머리가 무거웠다. 인석이가 부탁한 시험설계서를 펼쳐봐도 그래, 오수정화현장을

둘러봐도 그래 그의 착상에 완벽한 대답을 줄수 있는 신중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덧 하루해를 넘긴 오영민은 혹시 그 어떤 실마리라도 찾을가 하여 현장 분석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분석실 문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인석동무, 생각을 한번 달리해보는것이 어때요? 이렇게 실험분석결과도 좋지 못한데...》

연구소 실장동지는 새 첨가제에 의한 오수정화방법을 높이 평가하고있지 않아요?》

옥심의 나직한 목소리가 열려진 창문에서 불빛과 함께 새어나왔다.

《이제라도 논문을 빨리 쓰세요. 연구소 실장동지에게 그 논문을 올려보내면 아마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거예요. 글세 사람의 한생애 그런 가치있는 발명을 몇번이나 할수 있겠대구 그래요. 제발 부탁이예요.》

옥심의 말소리는 점점 더 절절하게 울렸다. 이아기를 들어보신 분명 인석이 있을상싶은데 이윽도록 대답이 없다. 그때문인지 옥심의 목소리는 한결 원망에 가까웠다.

《아이참! 사람이 어쩔 그렇게도 고지식할수 있어요. 발명권을 신청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도 생각해줘야 할게 아니예요?》

《그만하오!》

갑자기 박인석의 갈린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사람을 잘못봤소. 난 남들이 뭐라구 해도 옥심동무만은 내 마음을 알아 주리라구 믿었소. 처음 한두마디 그런 말을 할적엔 지금껏 공들인 품이 아깝구 손에 쥔 새를 놓아주는것 같은 아쉬움때문에 그럴러니만했는데 인제 보니...》

인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리고있었다.

《옥심동문 오수가 정화되어 대령강으로 흘러드는걸 불적마다 무수 생각을 하군했소? 그 맑고 깨끗한 강물에 우리 사람들의 량심이 비껴있다는걸 생각해본적이 없소? 우리의 순결한 량심말ियो.》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물음이 오영민의 뇌리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섭섭하오. 누구보다 앞장에서 도와주던 동무의 마음이 이렇게 중도에서 흔들릴줄은 정말 몰랐소.》

《그런게 아니예요. 인석동무의 남모르는 수고아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게 가슴아파서...》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게대요?》

인석의 격한 목소리에 이어 처녀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사람들이?...)

영민은 분석실에서 흘러나오는 가벼운 흐느낌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동안이 지나서 인석의 한결 같았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옥심동무 미안하오. 난 한뼘을 그렇게 산 사람

인걸 어떻게 하겠소. 밤에 없으면 다른 연구사의 시험이나 방조하오.》

인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지 의자의 삐걱소리와 함께 옥심의 흐느낌소리가 한결 높아졌다.

오영민은 못올데를 찾되라도 한듯 긴숨을 내 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날아침, 영민은 공장으로 나오다가 현장 분석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옥심을 만나 실험 분석결과를 꼭 알아볼 생각이였다. 분석실에는 뜻밖에도 옥심이가 나와있었다. 시험대에 팔굽을 세우고 가볍게 그러쥔 주먹으로 턱을 고인 그는 명상에 잠긴듯 방안에 사람이 들어선것도 몰랐다.

《옥심동문 늘 이렇게 일찍 나오군하오?》

그제서야 자기를 수습한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의 얼굴은 몹시 당황하고 저어하는 기색이였다.

영민은 어제밤의 일이 문득 머리속에 떠올랐으나 사뭇 가무려버리고 험한 표정으로 물었다.

《실험분석치가 나왔소?》

《예.》

옥심은 시험대우의 분석표에 눈길을 준채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무척 심란하고 애처로운 표정이였다.

《실험이 잘 안되는 모양이군.》

옥심은 가볍게 숨을 호- 내긋더니 이번에 진행된 연도탄제에 의한 오수정화실험이 종전의 화실탄제에 의한 실험보다 그 분석치가 절반 나온게 없다는 것이였다.

영민은 그의 말까지 듣고보니 인석의 행동이 더욱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험분석표를 앞에 놓고 피로와하는 그의 마음도 충분히 리해가 되었다. 한편 그를 지금까지런 곤경으로 몰아넣고있는 인석이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머리를 들면서 저도 모르게 옥심이한테 측은한 동정이 갔다.

《원, 사람의 고집두!...》

《고집이라뇨? 아니예요. 그 동무가 하는 일은 고집이 아니랍니다.》

(아니 이 동무가?...)

오영민은 뜻밖의 부정에 금시 얼퍼름해졌다. 어느새 그 마음속을 읽었는지 옥심이가 은근한, 그러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동지, 전 인석동무의 시험이 꼭 성공하리라는걸 믿습니다.》

《뭘루?》

《그동문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장을 보기전에 절대로 물러서는 성미가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끈고 결바른 그의 마음이지요. 전 그런 순결한 마음들이 있기에 오수도 정화되고 대령강의 물도 언제나 맑고 깨끗해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녀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오영민은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찬 처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가닥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어제밤, 그렇게도 절절히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던 처녀가 분명 욕심이었던가싶었다.

《그게 진심이요?》

《진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만 땀뭉이를 했습니다. 실험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제가 그 동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려 보려고 했었으니까요. 분한 생각만 앞세우던 나머지...》

《분한 생각이라니?》

영민의 다급한 물음에 욕심은 가볍게 얼굴을 붉혔다.

《사실 인식동무가 하는 오수정화시험은 전에도 누군가 했대요. 그 연구사는 제가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평가 받을줄도 알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어느 중앙기관까지 소환되어 갔대요. 지금처럼 여지를 남겨놓고서도 말이에요. 인식동무는 지금껏 그 연구사가 남겨놓고 간 여지를 메웠고 마침내 자기의 연구성과가 빛을 보게 된 오늘에 와서는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기술자로서의 그를 몰리해하고있거든요. 실장동지라면 그래 분하지 않았어요?》

영민은 자기도 모르게 목덜미가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다. 좀 파장된 표현이긴 해도 이전의 그 연구사가 바로 코앞에 마주하고있는 자기라는것을 몰라주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영민이 자신도 지금껏 그런 사람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 모른다. 자그마한 성과에도 일반화의 표피를 씌워 국가에 얼마만한 리익을 주었다고 서둘러 요란을 피우며 나라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서 수없이 봐오지 않았는가.

만약 저 욕심이가 자기를 착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막밀어 치부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오영민은 자신의 지난날에서 어딘가 몇몇치 못했던 빈구석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맑은 물을 흐리우는 오수와 같이 여직껏 자기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그게 분해서, 누구도 타내지 않고 제혼자 아글타글 애쓰는 그게 분해서 인식동무의 가슴에 본의아닌 말로 못을 박았어요. 글썽 어찌면...》

말끝을 맺지 못하는 욕심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펴 돌았다. 영민은 그런 처녀의 마음을 달래일 수 있는 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본의아니었다면 찾아가 용서를 빌면 될게 아니요? 그쯤한 소리 듣고 뭘!》

《그럼 어제밤에...》

갑자기 욕심이가 놀란 눈길로 영민을 쳐다봤다.

《그렇소. 알고있소. 인식동무 리해하여줄거요.》

《아니예요. 전 그런 소리를 들어 싸요. 설사 리해

해준다고 해도 전 자신을 용서할수 없어요. 글썽 내가 뭐라구 그토록 순결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괴롭힐수 있단말이에요. 난, 난 자격이 없어요. 바보예요. 실장동지, 그렇지 않아요?》

영민은 대답할수 없었다. 가슴이 찡하고 눈곱이 달아올라서만이 아니었다. 모두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들인가. 인식의 진심에 욕심이가 정확되듯이 이미전에 자신이 그 마음의 거울이 되었던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했더라면 인식이 연도속에서 감동이가 되어 돌아치지 않았을것이고 지금처럼 욕심이가 눈물이 그렇하여 애원하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다니?...

오영민은 가슴아픈 자책을 안고 허둥지둥 분석실을 나섰다. 딱히 정한곳이 있어 내짚은 걸음도 그 누구를 만날 생각때문에 내짚은 걸음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발걸음은 열관리직장의 후연도쪽으로 옮겨지고있었다.

《실장동지,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후연도 저쪽에서 박인석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이 피였다.

《실장동지, 방도를 찾았습니다!》

인식은 얼퍼름해진 영민이 앞에 손에 쥔 종이말이를 펼쳐놓더니 설명을 시작했다. 그것은 탄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산소가 차단된 연도속에서 활성화된 탄재를 리용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방법이었다.

《됐네, 이 사람!》

영민은 인식의 잔등을 철갑 같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생각을 다 했나?》,

《그거야 이미전에 실장동지가 저한테 튕겨준게 아닙니까.》

영민은 인식의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다.

《원 사람두! 인젠 론문을 곧 쓰라구. 동무가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나.》

《예.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

《물론 염색과정에 나오는 오수도 정화하고 보이라의 버릴가스도 중화할수 있게 되었지만 깨끗이 정화된 물을 대령강으로 흘려보낼것 없이 제창 공업용수로 되돌려쓰고 제진한 탄재도 보조연료로 되살려쓴다면 장차 우리의 조국은 얼마나 더 풍요해지고 아름다워질것입니까!》

《뭐라구?!...》

영민은 자신의 사색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어딘가 머나먼 다른 공간을 흔들여 놓는듯한 목소리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문득 눈앞에는 대령강의 아름다운 저녁풍경이 떠올랐다. 물새들이 깃을 치며 날아에는 대령강, 팔뚝같은 잉어를 낚아내던 낚시군로인의 모습이며 갈배를 만들어 줄에 띄우던 조무래기들의 모습... 보이라굴뚝들이 치솟은 여기

방직공장에서 왜 갑자기 대령강의 풍경이 떠올랐는지, 강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고평을 치는지 그는 스스로 놀라우면서도 자못 놀랍게 이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그 모든 풍경들이 지금따라 못건디게 자신을 유혹할 뿐이었다. 진정 대령강의 풍경은 어찌하여 그토록 짙은 향토적 정서를 자아내며 자기의 마음을 그러잡는 것일까?

영민은 비로소 그것이 인식으로 하여 환기된 자신의 소중한 감정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조용히 입속으로 뇌어졌다.

(충심!-옥에는 비록 티가 섞일 수 있어도 내 나라, 내 조국의 만년대계를 가꾸는 국토관리사업에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결바른 마음! 순간의 사색도 행동도 오직 조국과만 잇닿은 그 애바른

마음! 결국한 그 마음에 무엇인들 정화되지 않을 수 있으랴! 자신은 왜 진작 이런 충심으로 조국을 받들고 빛내일 생각을 못했던가.)

오영민은 지금껏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다고 소리치면서도 적지 않게 자기만을 위해 급급해온 지난날을 심심히 뉘우치며 지금 자신의 시험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도 새로운 눈으로 재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실장동지, 인젠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아무렴!》

오영민은 박인석의 신심이 넘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충심에 떠받들려온 조국의 모습, 래일의 조국을 보고있었다.

세계작가일화

단테의 애착심

단테를 한마디로 특징지으면 그는 봉건제도의 종말을 알린 중세기 마지막 시인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시대의 기원을 알린 최초의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살았던 단테 알리기에리. 이탈리아나 그 밖의 서유럽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이름과 성을 쓸 때 이름을 앞에 쓰고 성을 뒤에 쓰며 그를 부를 때에는 이름이 아니라 성을 부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보카치오》나 《셰익스피어》, 《플로스토이》 등은 모두 성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사람들은 특별히 존경하는 저명한 인사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단테는 그들속에서 이름으로 불리우는 특전을 지닌 시인이며 정치활동가였다.

단테의 생활과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그가 일생동안 마음속으로 사랑한 베아트리체라는 여자였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난 것은 9살때였는데 그후 9년이 지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두번째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때 단테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일생동안 그에게 자기의 모든 정열과 사랑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단테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베아트리체가 25살의 애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단테는 그후 10년간이나 타락한 생활속에서 한숨과 비분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일생동안을 베아트리체에게 바치기로 한 단테의 정열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그는 자기의 작

품인 서사시 《신곡》에 신적인 지혜의 화신으로 베아트리체를 등장시켰다.

무려 17년간에 걸쳐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이 서사시를 창작하였으며 그 창작의 나날에 언제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베아트리체에게 순결한 정열과 사랑을 바쳤던 것이다.

단테는 어려운 정치적환경과 곤난한 생활속에서 작품을 썼기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심도 특별히 강했다.

한번은 단테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대장쟁이가 망치를 두드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 노래인즉은 바로 단테가 쓴 시를 가지고 만든 것이었는데 대장쟁이는 가사를 제멋대로 고쳐부르고 있었다. 단테는 아무 말도 없이 대장간안에 성큼 들어가 무드기 쌓여있는 철물들을 닥치는대로 거리에 내던졌다.

뜻밖의 일에 대경실색한 대장쟁이는 《나야 대장사를 하고있는데 너는 왜 남의 물건을 못쓰게 만드느거냐?》 하고 펄펄 뛰었다.

그러자 단테는 《자기 물건이 귀중하면 내것도 귀중히 대해주어야지.》 하고 말했다.

대장쟁이가 《이놈, 내가 언제 네것을 못쓰게 했단말이나?》라고 하자 단테는 《너는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내가 만든대로 부르지 않고있다. 나의 장사는 시란말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기의 생활과 작품에 대한 애착심이 남달리 강했던 단테 알리기에리는 중세문학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하고 인문주의문학의 도래를 예고한 공적으로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용기백배 전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인류력사에 격동적인 사변들과 빛나는 승리로 엮어진 가장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은 세계가 우러르는 백두의 천출명장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민족의 강대성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인 해, 인류가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맞이한 불멸의 사변들로 충만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벅차고 격동적인 새해 주체88(1999)년. 희망도 포부도 맹세도 큰 류다른 새해.

이 새해에 나는 어떤 글을 쓸것인가?

어떤 발견과 주견이 있는 글로 문학을 선도하는 데 이바지할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시대의 지향과 숲결이 맥맥히 흘러넘치는 열정적인 문조로 무게있는 평론을 써내지 못한다면 내가 선 대오의 한 위치는 사실상 빈것이나 같을것입니다.

조국번영의 역사적봄우뢰가 이 땅을 뒤흔들 력사의 새해는 너무도 여리고 무력한 저의 가슴에 활력을 부어주고 대담성을 키워주어 시대의 상상봉에로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였습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받들고 전민, 전군이 보란듯이 강성대국건설에로 진격의 함성 드높이 총돌격, 총진군하는 오늘 저도 그 격동적인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작품창작을 적극 선도하는 힘있는 평론을 써내겠습니다.

또한 한편의 글을 써도 작가의 참신한 시도와 발기를 민감하게 찾아주고 적극 조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평론을 써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의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열과 재능, 작품에 대한 애정을 짝그리 다하여 피라는 사색과 탐구로 창작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풍만하고 알찬 창작적열매로 문학에 적극 이바지하는 인민의 사랑을 담은 평론가가 되려고 합니다.

평론가 김 해 월

새해는 모든것이 시작이다

갖 서른이 되어 그렇게도 소원이던 작가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 어려웠던 한해였건만 강행군길우에서 조국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신심과 열정에 넘쳐 갈망의 붓에 나의 목소리를 시원히 적서본 주체87년이였다.

그래도 아직은 무엇인가 모자라는것만 같고 세상을 향해 터친 나의 목소리는 생각했던것보다는 너무도 작다.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높았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보다 참신하지 못한 나의 시어에, 보다 높뛰지 못한 나의 심장에... 그래서 때없이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몸부림쳐 살아온 한해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나는 우리의 노래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절감하였다.

강제와 성강, 황철과 희천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은 그대로 노래였으며 노래와 함께 폭풍을 뚫고 내 조국이 전진하고있었다.

우리가 써내는 한편한편의 노래들은 인민의 생활속에서 밝은 웃음으로, 싱싱한 활력으로 되고있었으며 날에날마다 역센 신념을 안겨주고있었다.

하거늘 새 세기의 태양을 머리우에 이고 희망과

영광으로 솟아오른 주체88년, 강행군길을 다그쳐가는 내 조국이 다시 기적의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갈 새해를 마추한 나의 가슴은 벅차만진다.

이 새해에 젊은 시인이여, 너는 무엇을 해야 나는가?

생각은 깊어만간다.

우리 장군님이 바라시고 우리 인민이 바라는 훌륭한 노래를 쓰자면?...

그런 노래는 어디서 태여 나는가?!

두말할것없이 그곳은 우리 장군님 가시는곳이며 성강의 봉화가 타오르는 온 나라 전투장 그 어디나 이리라!

거기에 내 심장을 언제나 가까이 대고 살자.

장군님의 의도가 비끼고 장군님의 정서가 숨쉬는 혁명의 노래를 위해 새해의 첫기슭에서부터 나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다. 새해는 모든것이 시작이다.

해돋이도 시간도 나의 노래도...

시인 주 광 일

두번째 불무지

정철호

생물연구실 실장이며 교수, 박사인 림태모의 왼쪽 눈섭우에는 손톱눈만한 크기의 자그마한 허물이 있었다. 어떤 날카로운 끝에 찌조은것이 분명한 그 허물은 40여년전 송남청년탄광 개발 청년돌격대시절에 갱안에서 암반에 이마받이를 하는바람에 생긴것인데 그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송남기념》으로 일생 남았다는것이다.

그 허물이 실장의 부드럽고도 선이 굵은 얼굴 전체에서 그리 튀어나는것은 아니였지만 언제부터인지 실의 굵은 연구사들속에서는 그 《송남기념》이 실장의 심리를 표현하는 《신호등》이란 말이 돌아갔다. 그도 그럴것이 실의 전반적인 연구사업이 얼음판에 박밀듯이 전진할 때에는 잘 알려지 않는 허물이였지만 실장이 분격하는 순간에는 꺼매지는 얼굴빛에 반하여 하얀 빛을 띠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쉽사리 쏟아 놓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동문 그림 오늘 의 강행군대오에서 어느 위치에 서겠소?》 하고 물을 뿐이다. 하지만 그 희끗희끗한 눈섭우의 《송남기념》이 희여진것을 본 연구사는 그 어느 비판무대에 올라섰을 때보다 더 잔등이 화락하니 젖어 내리고 뼈아픈 자책속에 분발하는것이였다.

최근에 와서는 림태모실장의 그 《신호등》에 《불》이 켜지는 일이 퍼그나 드물어졌다. 시느러운 초가을의 미풍이 불어 들고 전국과학기술축전이 막을 내린 이즈음에는 그 넓은 이마의 주름살마저 피여오르는 훈훈한 기쁨에 가뭇없이 녹아버리는것 같다.

오늘 아침도 사업포치를 끝낸 림태모는 접수실에서 들고 올라온 편지들과 잡지들, 통보서들 가운데서 편지들만을 하나하나 골라내며 흐뭇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수북이 쌓인 편지들중 대부분이 걸봉에 《미생물연구실 연구사 임송주동무앞》이라고 씌여져 있다.

엽주의 농촌기사장에게서 온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도의 농업과학연구소들의 주소가 적힌것도 있고 연백벌 청년분조장의 이름이 곱게 적힌 편지에서는 금시라도 구수한 흙냄새가 피여오르는 것 같다. 보나마나 그 편지들은 모두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출품되였던 임송주의 미생물비료연구성과를 두고 보내온 축하와 감사의 글들일것이다. 며칠전 송주한테 들렀다가 읽어본 이런 편지들의 구절이 떠오른다.

《...연구사동무의 미생물비료는 미생물배양능

력을 종전보다 2.5배나 높인것으로 하여 단연 세계적수준에 올라섰으며 동시에 질소고정균과 린분해 세균배양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됩니다. 동무가 열어놓은 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우리는 연구사동무에게 감사를 드리고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믿어 지지 않아 반대도 했습니다만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한 지금 연구사동무에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은 쌀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애국미로 삼가드리자고 결정했습니다. 그 애국미를 올리는 날 우린 선생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꼭 오셔야 합니다.》

림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섰다.

여름내 무성했던 백양나무의 잎새들이 누릿누릿한 빛을 띠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하나 둘 물속을 헤엄치듯 떨어져내리고 있었다. 가을이다.

사람마다 한해의 로정을 돌이켜보게 하는 총화의 계절...

(축하, 감사, 초청... 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그네들은 송주가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었는지 다는 모를거야. 그걸 탓할수는 없지만... 땀과 눈물,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 모든걸 조그마한 미련도 없이 바쳤지.)

한동안 추연한 생각에 잠겨있던 림태모는 문득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돌아섰다. 연구소 정문접수에서 올라온 전화였다.

《...임송주연구사를 찾아왔다구?! 지금 없소.

미생물비료공장 건설문제를 협의하러 농업성에 나갔소. 래일까지 일을 봐야 할거요. 그렇게 전해주우.》

수화기를 놓으려던 그는 다시 접수를 찾았다.

《가만 누가 찾아왔다구?! 평성탄광 기사 최동림?!》

한순간 림태모의 얼굴이 화석처럼 굳어졌다.

잠시후 그는 한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무엇때문에 임송주동무 만나겠다고?... 아는 사이였다?! 좋소, 들어보내오. 나도 그 동무를 좀 알고있소.》

수화기를 내려놓은 림태모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푸른 담배연기는 동글동글 탈렸다가 구불거리며 느릿느릿 천정으로 퍼져오른다.

(최동림이 나타났단말이지. 최동림이…)

림태모가 최동림이란 이름을 처음 익힌것은 2년전 가을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날 림태모는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임송주를 찾아 그의 구미에 맞을만한 음식을 싸들고 병원으로 찾아갔다.

한밤중 실험실에서 유독성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임송주를 병원에 후송한지 닷새가 되었다. 의사들은 유독성가스도 문제지만 간장기능이 현저히 악화된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들 했다. 집중치료와 함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병원에 최소한 한달 가량은 눌러두어야겠다고 림태모는 단단히 결심했다. 연구소 당조직에서도 세포비서인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면서 송주이름으로 된 료양권까지 준비해주었다.

한때 병원에 도착하여 임송주를 처음 입원시킬때 기억했던 호실을 찾아가니 방은 비어있었다.

마침 어항을 들고 들어오는 간호원에게 임송주의 행처를 물었던 림태모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송주가 퇴원수속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병원을 나갔다는것이다.

《과장선생님께랑 막 눈물이 글썽해서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으면 영평시험장에 애써 키워놓은 종균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물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다는 조건부로 말입니다.》

《연구소와 토의도 없이 무슨 승인이요? 영평에도 다 대책을 세웠는데. 그래 그가 다시 제발로 병원에 돌아올것 같소?》

예쁘장한 입귀에 쌀알말한 까만 김이 유표한 간호원처녀는 자기가 과장이기라도 한듯 몸둘바를 몰랐다.

《제발 연구소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기여들어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있던 림태모의 머리속에는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편뜻 지나갔다. 송주는 이제 한시간후에 영평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고 할것이다. 그를 저지시켜야 한다.

림태모는 울 가망이 된 간호원을 지나쳐 황황히 뺄스정류소로 향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그는 호젓한 역전공원에 홀로 앉아있는 임송주를 발견했다.

일사귀들이 빨강게 물든 단풍나무밑의 의자에 앉아 배낭을 한옆에 놓아둔채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자기를 찾는 목소리에 황황히 눈곱을 훔치며 일어섰다. 처녀의 크고 검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것을 본 림태모는 병원에서 뛰쳐나온것을 책망하려던 생각도 잊고 다우쳐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

송주는 밝은 기색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그 모지름이 림태모의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해주었다. 문득 그의 눈길은 송주의 손에 쥐여진 한장의 종이에 멎었다. 의자우에는 편지봉투가 놓여있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어디서 온 편진데? 내가 좀 볼수 없나?》

《아니 별것 아닙니다.》

송주는 당황하여 편지를 뒤로 가져갔다.

《보자구. 정주에 있는 집에서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게구만...》

한동안 망설이던 송주는 하는수 없이 편지를 내주고말았다. 도착날자가 한주일전으로 찍힌 편지결봉의 보낸 사람 이름란에는 《령성 탄광 기술과 최동림》이라고 적여있었다.

《동림이란 누군가?》

림태모는 삽시에 감빛으로 타오르는 송주의 얼굴을 보자 더 묻지 않고 편지에 시선을 박았다.

《...송주, 동무는 나를 기만하였다.》

언제인가는 이 령성땅에서 동무를 맞이하게 되리라던 나의 5년간의 꿈은 너무나도 허무한것이였다. 나는 지금 최후의 대답을 요구한 나의 편지들에 대하여 1년만에야 받아본 동무의 회답편지를 다시금 읽어본다.

<전 이곳을 떠날수 없습니다. 저의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령성으로 떠나는것을 과학자로서의 저의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지금껏 절 기다려준 동림동무에게 이 말만은 정말 힘겹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차거운 동무의 글이였다. 하기는 싸늘히 식어버린 사랑에 그 어떤 기대를 품는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일것이다. 동무는 애초에 여기 령성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동무의 아름다운 현재의 생활이 있는 수도와 여기 탄광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에 한시절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웠다 한들 동무의 운명적인 선택은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것이다.

인제는 모든것이 명백하다. 파멸이다. 나는 지금껏 사랑해 온 처녀가 결국은 너무나도 평범한 도시처녀, 그보다는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피로움에 가슴이 찢긴다....

얼굴이 꺼렇게 질린 림태모는 더 읽을 생각을 못하고 돌덩이처럼 멍그려진 주먹만 후들후들 떨었다.

《위선자?! 제가 뭘 안다구 함부로!》

그는 편지를 와락 구겨쥐었다.

《아니 선생님!》

송주가 다급한 소리와 함께 막 편지를 찢어버리려는 림태모의 손에 매달렸다.

《왜 그러나? 이따위 터무니없는걸 찢어버리지 않구...》

《아니 그 편질 저한테 주십시오.》

무한한 슬픔과 애원이 한가득 고여있는 처녀의

눈을 바라보던 림태모는 그만 손맥이 풀렸다.

송주는 험상하게 구겨진 편지의 주름살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어줬다.

끝끝내는 맑은 눈물이 거칠은 글씨우에 떨어져 조그마한 꽃송이처럼 퍼져나가는것을 본 림태모는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그게 뭐라구… 찢어버려두 속이 풀리지 않을텐데.》

송주는 눈물에 젖은 시선을 들었다.

《선생님, 그 동문… 그만큼 저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어떤 험한 말이라 해도… 저에겐 소중한 겁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은 구슬처럼 맺히어 반짝이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슬픔을 덜고 일어서려는 모질고도 억센 힘이 뜨겁게 불타는 눈동자.

림태모는 가슴이 후두두 떨리며 한동안 단풍나무를 짚고선채 누웠한 구름이 떠흘러가는 하늘가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는데 꼭 쉬어버린것 같은 목소리에 자기도 놀랐다.

《이보라구 송주, 결혼을 한다구 해서… 연구가 중단될거야 없지 않나?》

송주의 얼굴에 한줄기 연한 홍조가 피어오르더니 점차 노을빛으로 번져갔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탕개를 낮추고 적당히 할바에는 차라리 포기하는것이지 저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할겁니다. 선생님도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떨리는 송주의 목소리가 림태모의 가슴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더 말을 잇지 못한 림태모는 송주에게로 돌아섰다.

《그래 언제 돌아오겠소?》

이 말을 해놓고야 림태모는 송주의 출발을 기정 사실처럼 말해버린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이 불행이같은 처녀의 앞길을 막기에는 자기의론리가 너무나도 빈약했다.

《인차 돌아서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구. 우리 로친이 꾸려주던데도중식사로 넣고 이건 약들이요. 사용방법은 다 써넣었으니 시간을 꼭 지켜야 돼. 그리구 돌아오는 길로 우리 집에 곧장 들리라구.》

새빨간 단풍잎이 별모양으로 차분히 내려앉은 송주의 배낭속에 꾸레미를 꿇꿇 다저넣는 림태모는 허리를 펴며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시간이 됐구만. 제발 몸조심하라구.》

《걱정마십시오.》

송주의 얼굴은 밝다. 상실의 아픔도 이 처녀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끌수 없었다. 오히려 그 불길은 비바람을 맞받아 더 세차게 날아오른다. 눈물마저 격동하는 시대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길속에 연소시키

며 송주는 승강대에 서서 웃음을 날렸다.

《실장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만 림태모는 아무 응답도 못하고 서둘러 개찰구쪽으로 돌아섰다. 송주에게 힘은 주지 못할망정 눈물을 보일가 두려웠던것이다. 자기 둘째딸과 동갑벌이 되는 이 처녀가 산전수전을 겪으며 두터워진 가슴을 이처럼 세차게 흔들어 놓을줄은 미처 몰랐다.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때 렬차는 이미 시야에 없는데 멀어져가는 기적소리만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고있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림태모는 서둘러 눈굽을 짚었다.

《들어오시오.》

문가에는 단긴깃양복을 입은 후리후리한 키골에 준수한 얼굴생김의 청년이 서있었다.

여느 사람들보다 좀 희게 느껴지는 얼굴빛에 먹물처럼 검고 굵은 눈썹이 유난스럽다.

밝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서던 청년은 혼자 앉아있는 림태모를 보자 무춤했다.

《령성탄광의 최동림동무요? 난 임송주동무와 함께 일하는 실장인데 거기 좀 앉소.》

림태모는 의자에 앉는 청년의 손에 들려있는 빨간 꽃 한송이를 얼핏 보았다. 임송주에게 주려는 축하의 꽃송이?!

《그래 어떻게 왔소?》

림태모의 실무적인 어조에 청년은 약간 얼굴빛이 붉어졌다.

《전 임송주동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선 그의 성과를 축하해주고싶었고 또…》

《축하?! 축하한단말이요?》

림태모는 청년의 말허리를 끊으며 불쑥 소리쳤다. 그의 눈썹우의 허물이 급기야 흰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제는 것처럼 순결한 처녀의 마음에 위선자니 뭐니 하면서 칼질을 하구 오늘은 꽃송이를 들고온다?! 사람이 철면피해두 분수가 있지. 응?!》

흠칫하니 눈길을 들었던 청년은 파란 불꽃이 튀기는 림태모의 시선과 부딪치자 고개를 떨구었다.

《동문 송주를 만나기는 커녕 이 연구소주변에 나타날 자격조차 없소. 그대두 한 때는 사랑했단구? 여보, 내 초면이지만 우린 젊은 시절에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소. 갱에 폭포같은 석수가 터졌을 땐 함께 가슴을 내댔구 착암기의 정대를 받들고 선 처녀의 손이 해갈라졌을 땐 내의를 찢어서 싸매구 다시 돌렸소. 함께 심장을 덥히면서 전진했던 말이요. 우린 자기라는 울타리안에 가둔 사랑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온몸을 내대는 사랑을 했구 그 사랑으로 오늘을 창조했던거요. 한데 동무는…》

청년의 손에서 꽃송이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못느끼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동문 한 처녀를 안해로 맞아들일 생각은 했지만 사랑만은 못했소. 처녀를 사랑하는 심장은 먼저 시대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심정이란 말이요.》

그때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얼굴을 들고 무엇인가를 말할듯했으나 다시 떨구었다.

《전…가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섰다. 쿵쿵 무겁게 복도를 걸던 발자국소리가 문득 멎었다. 다시 들어오려는가.

아니, 그래도 멀어져간다.

자리에서 일어선 림태모는 바닥에 떨어져 튕구는 꽃송이를 집어들었다. 장미꽃이었다. 임송주가 남달리 사랑하는 꽃, 그저 꽃이, 아니라 순결한 대지의 마음이 뿜어올린 열정의 불덩어리라면서 언제인가 영평에서 뿌리채 배낭에 옮겨다가 연구소 정권에 심고 애지중지 키웠다. 금년에도 그 꽃나무에 이런 불덩이같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었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던가…》

부지중 림태모의 입에서는 후회 비슷한것이 흘러나왔다. 가슴속에 서리서리 쌓였던것을 다 터치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흥분했던 자신에 대한 불만이 그자리에 가득히 들어앉는것이였다. 손에 들고있는 꽃송이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때문인지...

언제인가 송주가 들려준 이야기가 불현듯 그의 머리속에 선히 떠올랐다.

임송주가 미생물비료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3년째 되는 해의 어느 겨울날 그는 시주변협동농장에 나가 세균배양체로 쓸 흙을 종류별로 한배낭 채취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고있었다.

눈이 녹아 살얼음이 진 30리 농촌길이라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버스정류소에 도착한것은 황혼이 곱게 번질 무렵이였다. 배낭을 내려놓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송주!》 하고 찾는다. 이 외진곳에서 자기를 찾을 사람이 누굴가 하는 생각에 뒤이어 전신을 휘감는 이상한 예감에 뒤돌아보던 송주의 눈은 놀람과 기쁨으로 확 커졌다. 뜻밖에도 가방을 멘 최동림이 그로부터 서너발자욱뒤에 바위처럼 우뚝 서있는것이였다.

《동림동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네?》

말없이 빙글거리던 동림은 자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저쪽으로 감시다.》 하고 송주의 배낭을 땀큼 돌려줬다.

《언제 올라오셨어요? 오신지 오래 됐어요?》

아이 말 좀 하세요.》

채굴공학연구소에서 자원하여 탄광으로 내려간지 만 1년이 넘도록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다

며 평양에 발길을 얹던 그가 이렇게 불쑥 나타난 것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송주였다.

《사흘전에 왔소. 과학기술통보사에 유압변자료 열람때문에 왔다가 오늘 오후에 연구소에 들렀댔소. 그래서 이렇게 <매복>을 했는데 혹시 이 이 악재이가 빠스도 타지 않고 곧장 걸어들어갔으면 어쩔가 하고 걱정이 되더라말이요. 하하...》

흥분으로 얼굴이 빨강게 달아오른 송주를 바라보며 동림은 즐겁게 웃었다. 하지만 송주는 웃을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해전 평양을 떠날 때보다 관자뼈가 더 두드러진것이며 날이 서있지 않은 와이사 쓰깃이 애뜻한 아픔을 자아냈다.

《올라오시는 길로 저한테 먼저 들리실걸 그랬어요.》

《아니, 송주도 무척 바쁜데. 우리 빠스가 올 때까지 저기 좀 앉을가.》

그들은 길가에서 좀 떨어져 소잔등처럼 평퍼짐한 너럭바위로 걸어갔다.

《춤지. 불을 좀 피우지요.》

《괜찮아요. 빠스가 인차 올텐데.》

《글쎄 빠스가 올 때까지만.》

동림은 서둘러 침엽수가 울창한 숲자드락으로 들어가더니 인차 풀덤불이며 실한 삭정이를 한아름이나 안고 돌아왔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피울바에야 몸을 녹일만큼은 돼야지.》

불은 인차 피어올랐다. 겨우내 바짝 마른 삭정이여서 탁탁 불씨를 튀기며 불길은 곧추 일어서기세 좋게 날아오른다. 송주의 심정처럼 바글바글 끓어오르던 진액조차 파르스름한 연기에 휩싸여 소리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송주는 무슨 죄를 지은것 같아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렇게도 기다려 온 상봉이 이렇듯 엉성한 곳에서 뜻밖에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였다. 그래서인지 만나면 꼭 하리라 참아두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이 순간에는 모두 흩어져버리고 그저 가슴이 옥죄여드는 느낌뿐이였다.

《이렇게 만난것이 휴식이지. 이제 그 시료요?》

동림은 송주가 메고 온 배낭의 아구리를 헤쳤다. 언 땅을 까고 파왔는지 하얀 얼음버께가 반짝이는 흙덩이를 한줌 쥐어보며 무엇인가 생각하던 그는 문득 입을 열었다.

《손을 좀 보지요.》

《뭇때문에?》

《좀 보자는데두.》

동림은 기어코 자기의 크고 화끈화끈한 손을 송주의 손을 움켜쥐었다. 하얗고 매끈하던 손등이 터슬터슬 거칠어지고 살갗이 튼 자리에는 새

빨간 실금처럼 피가 내배였다.

《이건 왜 그렇게 됐소?》

형짚에 대충 싸맨 오른손의 약손가락을 두고 묻는 소리였다.

《배양기를 만들 철판을 실어오다가... 인차 아물거예요.》

송주는 얼른 손을 빼며 아무렇지 않다는듯 말했다. 하지만 동림은 무거운 표정으로 물끄러미 배낭을 주시할뿐이다.

꽁꽁 언 흙을 삽으로 뜯어내다가 곡괭이로 찍어내고 그 덩어리들을 부스러뜨려 한줌두줌 배낭을 채웠을것이다. 이 한배낭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으랴. 연구소에서 들으니 각이한 성분의 토양시료를 얻으려 일요일마다 이런 걸음을 걷는다고 한다.

《피아노를 타던 손이라고 믿기 힘들구만.》

《아이 참.》

처녀의 얼굴은 곱게 물들었다.

동림의 말은 사실이였다. 도예술단의 일류급 피아노연주가였던 어머니의 손끝에서 송주는 유치원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대학시절에는 그 연주기량이 전문가를 뒤통아할 정도여서 전국대학생경연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한적도 있었다.

같은 대학의 물리학부에서 공부하던 최동림과 인연을 맺어준것도 그 피아노였다. 그때 대학예술포럼에서 남성고음으로 이름이 높았던 동림은 몇시간이고 송주의 피아노곡을 듣는것을 무척 즐겼었다. 언제인가 대학강당에 홀로 앉아 송주의 피아노선율에 심취되어있던 그는 음악이 끝나자 후하고 긴 숨을 쉬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다.

《생물학부의 일인자 최우등생에게 이걸 안된 말이지만... 동문 예술가가 될걸 그랬소.》

그리고는 어디론가 훌 나가버리던 일을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웃음을 걸잡던 송주는 동림의 묻는듯한 시선과 부딪쳤다.

《그래 꼭 이렇게 언 흙을 캐서 지고 다녀야만 되는 일이지?》

속깊은 아픔이 배인 목소리였다.

《전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뭐 땅이 녹기를 기다리면서 멈춰서있을순 없지 않아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듯 처녀는 방긋 웃었다. 그 웃음에 눈처럼 희고 고운 이새가 옥돌처럼 반짝거린다. 가슴속에 끓는 열기와 랑만이 그대로 내비친듯 빨간 입술우에서 물결치는 그 웃음에 동림은 가슴이 훈훈해지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멈춰설수도 기다릴수도 없지.》

자리에서 일어서 음달쪽의 흰눈을 밟으며 거닐던 그는 무엇때문인지 좀 어색한 표정으로 송주를 바라보았다.

《송주, 오늘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내 하나 가지 온것이 있는데...》

그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송주의 배낭옆에 세워두었던 가방에서 비닐구역을 꺼냈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그의 거동을 살피던 송주는 구력에서 나오는 진한 붉은색 목수건을 보는 순간 가뜩이나 큰 눈이 더욱 커졌다.

《이번 출장길에서 맞다들었는데 보는 순간 송주동무생각이 떠오르더라말이요. 꼭 어울릴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떻소?》

그것은 요즘 유행되고있는 굵은 털실로 뜬 기다란 목수건이였다. 색이 막 붉다못해 약간 거무스레한 빛까지 돈다.

《종군요. 하지만 전 지금 쓰게 좋아요.》

《이 수건이 더 두텁고 따뜻할거요. 농촌길을 많이 다니면서 찬바람을 맞는데... 이 목수건을 쓴 송주동무 몇번이고 상상 해보면서 내내 즐거웠소. 내 기쁨을 빼앗지 말아주요.》

《저한테 지내 화려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요? 창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감수할 권리가 있단말이요.》

《무슨 굉장한 철학같은요. 전 아직 창조자가 못되는데.》

《그런 말 말고 어서 한번 써보요.》

무슨 중대한 사변을 치르는듯 초조하고 긴장한 기분에 싸여있는 동림을 바라보던 송주는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그 목수건을 둘렀다.

정말 그것은 송주에게 놀랍게도 잘 어울렸다.

칠혹같이 검고 치렁치렁한 머티래와 부드러운 털실이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며 조화되는데 무엇보다 그 불길같은 빛이 흰 살결에 그대로 번져 처녀는 그 어느때보다 아름다웠다.

자기 모습에서 황홀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동림을 바라보며 송주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이걸 쓴것이 그렇게도 기쁘세요?》

《그럼!》

그 솔직한 목소리가 송주의 가슴에 몽클하니 젖어들었다. 어느때에는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다는 평을 듣군하는 이 억센 사나이의 가슴속에 이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이 자리잡고있었다는 사실이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데 전 아무것도 준비한게 없군요.》

《아니, 송주가 나에게 준 기쁨이야말로 귀중한 것이지.》

어느새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숙어들고 숯불이 타고있었다. 벌겋게 단 쇠토막을 쌓아넣은것처럼 이글거리는 숯불의 열기가 나란히 앉은 그들의 얼굴에 확확 미치고있었다.

물끄러미 그 불을 바라보던 동림이 문득 입을 열었다.

《이 불처럼 뜨겁게 언제나 송주를 덥혀줄래요.》 《아이참.》 살짝 붉히는 송주의 얼굴에는 행복의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 불길은 동림의 얼굴에서도 피고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고뇌도 번민도 실패도 다 잊고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속삭였다. 희색빛 구름의 번두리마다가 빨강계 물드는 하늘을 이고 빠스는 벌써 석대째 그들을 지나쳐 시내로 들어가고있었다...

그날밤 9시가 넘어서 퇴근준비를 하고 연구소 정문을 나서던 림태모는 누군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놀랐다.

《안녕하십니까?》

가로등의 희여스름한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오전에 찾아왔던 평성탄광의 그 청년이었다.

《동무가?! 아직 여기에 있었소?》

《전 실장동질 꼭 다시 만나고싶었습니다.》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내린것 같은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던 림태모는 무뚝뚝하니 물었다.

《무슨 일이요?》

《전 사실 최동림이 아닙니다.》

《뭐라고?》

림태모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전 최동림과 기술과에서 같이 일하는 박태석입니다.》

한참이나 아연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던 림태모는 무엇인가 불끈하고 속에서 치미는것을 느꼈다.

《뭇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소?》

《전 임송중동무를 만나러 온것이였지 실장동지를 만나러 온것은 아니였습니다.》

어지간히 흥분한 태석의 목소리에 림태모는 그만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흠 그렇겠군. 글썄... 그럼 애매하게 됐구만.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은 격이요.》

하지만 태석의 표정은 정숙했다.

《전 실장동지앞에서 뽀쳐나온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만나 저의 친구 최동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었습니다.》

《친구라?!... 하여튼 나도 동무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했소. 저기 좀 앉지요.》

그들은 정문에서 좀 벗어나서 느티나무밑에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밤이 이슬한 때여서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이따금 아릅드리 느티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을 건드리며 소슬한 바람이 불었고 그때마다 누런 잎사귀들인 발아래로 떨어지곤했다.

생각을 고르듯 한동안 잠자코 있던 태석은 진주알의 섬광과도 같은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전 최동림의 중학동창입니다. 군사복무 뒤끝에 석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평성탄광 기술과로 배치되어 오니 나보다 먼저 Z대학을 졸업한 동

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제일먼저 알게 된것은 그에게 붙어있는 <실패한 총각>이라는 별명이었는데 거기에는 몇해동안 유압동발연구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부진 기사라는 뜻과 나이가 서른세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로총각이란 뜻이 동시에 담겨져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제마는 우리 나라 중부지구탄광들의 현실적조건에 적응한 <중-98>유압식종합기계동발이 있는데 유압의 세기를 조종하는데서 컴퓨터까지 도입한 이를테면 현대적인 설비였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난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어쨌든 완전한 유압동발의 탄생이 아니라 서른네번의 시험실패기록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탄광기술과의 사업총화보고에 앉은 걸음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곤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슴아프게 한것은 그가 과묵하고 침울한 사나이로 변해버린것이였습니다.

중학시절에는 창공을 나래쳐 푸른 꿈으로 가슴이 활짝 부풀어있고 그 꿈이 아름다운 선물로 울려나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그가 오늘은 중학동창에게도 좀처럼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것이였습니다.

제가 배치되어 온지 두어달쯤 되었을 때 누가 최동림의 연구조에 망라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술과의 조치로 원래 두명의 기사가 동림을 방조하는데 모두 계속되는 실패에 환멸을 느끼고 연구조에 탈퇴하여 독자적인 과제를 맡았다는것입니다. 전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연구사업을 협조하면서 저는 중학시절에 친구를 결코 빗본것이 아니라는것을 확신했습니다.

유압동발실험에 대한 그의 꿈은 세계적수준을 돌파할 목표에 이르고있었고 그 목표는 그의 명석한 두뇌와 완강한 의지로 담보되고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른다섯번째 시험을 암질조건이 제일 나쁜 충동갱의 3호막장에서 진행할것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모험은 아니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지금까지의 실패원인들을 분석하고 새롭게 찾아낸 기술적대책들로 안받침되어있었기때문에 저뿐아니라 갱일꾼들을 납득시킬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의자우에 떨어진 느티나무의 잎사귀들을 하나 둘 모아 곱쌌었다. 그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림태모는 주머니에서 담배파를 꺼냈다.

《한대 피우오.》

《전 피우지 않습니다.》

가볍게 사양한 태석은 다시금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무참한 실패였습니다. 유압동발을 설치하고 조종반을 통해 가동시켰는데 20

분후에 뜻밖에도 유압변이 터져나가면서 동발이 천반침하속도를 이겨내지 못해 붕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험도 시험이지만 귀중한 설비와 함께 작업장을 붕락시킨것때문에 모두 얼굴이 새까매서 허둥거리는데 당자인 최동림은 얼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막장에 돌만이 남았을 때 전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라니? 이제 무엇을 더 할수 있겠나?

난... 난 모든걸 다했네. 그런데 이젠... 너무나 구만.>

불과 한두시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풀썩할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럼 포기하려나?>

아마 내 물음에서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울렸는지 동림의 눈길에 사납게 번쩍였습니다.

<자네 날 비웃는건가? 자네가 뭘 알기에.

내 가슴에 흐르는 피를 자네가 보았나? 내 손으로 하나하나 쓰다듬어 조립한 부속들, 내 살덩이나 같은 그것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가말이야.

난 사랑까지도 바쳤네. 이 탄광으로 내려오길 거절한 처녀의 편지를 받은 날 밤에도 난 저 생명체와 함께 있으면서 슬픔과 분노를 목새겼단말이야.>

노한 사자처럼 울분을 터치던 그는 맥없이 머리를 떨구더니 웅얼거렸습니다.

<내 가슴에... 이제는 싸늘한 재만 남았네.

불길은 다 사그라지고 꺼먼 재만...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할수 있겠나.>

그리고는 힘없이 일어나 비칠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전 어떻게 그를 일으켜세워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것처럼 쓰라린 실련의 고통까지 있었다는것을 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압동발연구가 그 어떤 한두사람의 명예나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것만은 명백했습니다.

다음날부터 3호막장복구가 진행되었는데 동림인 마치 허울만 남은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사고가 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탄광기술과의 아침일과는 레사롭게 흘러가고있었다. 청소를 끝내고 모두 사무실 한복판의 랑수책상에 나앉자 신문독보를 담당한 송인철기사가 신문을 펼쳐들고 일어섰다.

태석은 옆에 앉은 동림을 얼핏 바라보았다.

간밤에도 또 번민으로 밤을 세웠는지 눈가에는 피곤이 별경게 가라앉아있었다.

《오늘 독보는 <조국의 래일에 청춘을 바친 처녀과학자>라는 소개 기사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

다. 미생물연구소 연구사 임송주동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최동림이 전류에 닿은 사람처럼 뒤통을 눌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놀람은 너무도 강렬한 반응이어서 태석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듯 한동안 쏘는듯한 눈빛으로 송인철을 바라보던 동림은 고개를 숙이더니 꼭 틀어진 주먹으로 이마를 고였다.

기사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희여졌다가는 붉어지고 붉어졌다가는 다시 창백한 빛을 띠곤했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었다.

태석은 혹시 이 친구가 속이 말쑥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곧 기사의 내용이 그의 심중에 폭풍을 몰아왔다는것을 직감했다.

독보가 끝나자 모두 자기 책상으로 헤어져 가는데 동림은 곧장 송인철기사에게 다가갔다.

《그 신문을 좀 보지요.》

동림의 말에 레사롭게 신문을 내밀던 송인철기사도 동림의 심상치 않은 얼굴빛에 놀라는것이였다.

파장의 간단한 사업포치가 끝나자 동림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를 따라 나가려고 일어섰던 태석은 멈칫하고 서버렸다.

왜서인지 지금 그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지만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나도록 동림은 복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태석은 마음속에 짊이는곳이 있어 곧장 삼국천 시내가로 갔다.

이 탄광의 첫 조상들이 심었다는 버드나무들이 무성한 그 시내가에 동림이 자주 명상에 잠기곤 하는 《고정좌석》이 있었다. 아니나다를가 동림은 웅단처럼 부드러운 잔디밭에 앉아 푸른 운무에 싸인 먼 산발들을 바라보며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옆에 놓인 아침독보시간의 그 신문이 바람이 불때마다 생명은 지닌 물건처럼 가볍게 퍼덕이고있었다.

동림은 령천탄광기계공장에 가공을 부탁했던 유압실린더를 찾으러 가겠다는 태석의 말에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함께 가자구.》

《나혼자서도 갔다올수 있네. 마침 운수과의 차가 압축기부속을 실으러 가는데 저너까지 올라올수 있을거네.》

《아니, 나도 가겠네.》

동림은 두말않고 풀숲에 놓여있던 신문을 접어 품안에 넣고 일어섰다. 태석은 더 만류할념을 못했다. 령천에 도착한것은 정오무렵이였다.

그곳 가공직장에서 유압실린더를 찾고보니 설계의 요구대로 정밀하게 가공되지 못한 결함이 있어 재가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시 신반기앞에서 땀을 흘리는 사이에 자동차는 탄광에서

기다리는 압축기부속을 싣고 떠나버리고말았다.

탄광쪽으로 가는 다른 차를 얻어타기는 했지만 도중에서 내리다보니 30리는 쫘악없이 걸어야 했다. 스무키로그람은 실히 될 쇠덩이가 든 배낭들을 메고 절반쯤 길을 축내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회색구름장들이 밀려오더니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비겠거니 하고 걸음을 다그쳤지만 비방울은 점점 더 굵어져 억수로 내리퍼붓기 시작했다.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들판길이라 어디 피할데도 없었다. 마침 뽕안 비줄기사이로 논란 한가운데에 있는 양수장비슷한 건물이 바라보였다.

《저기서라도 비를 굶고 가는게 어떤가?》

태석의 말에 내내 앞서 걸던 동림이 뒤돌아보았다. 회색샤쓰며 바지 어디라 할것없이 화락하니 젖었는데 턱밑으로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씻어내며 그는 간청하듯 말했다.

《그냥 가세. 시원한게 좋구만.》

다시 수직수직 걸음을 내짚던 동림이 문득 말을 꺼냈다.

《태석이, 요전번 내가 소리친 일을 용서하겠나?》

《용서라니? 난 자네 심정을 리해하네.》

동림의 젖은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서글픈 미소였다.

《리해?! 아니 동정이겠지. 약자의 몸부림에 대한… 하지만 송주는 날 후려쳤네. 사정없이 내 뺨을 갈겼어.》

《송주?!》

《신문에 실렸던 그 임송주말이네. 그 처녀가 바로 나의 옛 애인일세. 내가 지금껏 언제인가는 만나려고 버르던 그 처녀가 오늘 신문에 실려 날 찾아왔단말이야.》

한동안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동림은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임송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5분가량 종이 퍼붓던 비는 어느덧 힘이 진했는지 보슬비로 바뀌었다. 낮추 드리웠던 구름장들이 엷어지면서 사방이 흰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편지에서 그를 배반자, 위선자라고 규탄했지만 누워서 침뱉기라더니 결국 그의 순결한 사랑을 저버린 너절한 작자는 바로 날세.》

그때 그는 진창에 미끄러졌는지 금시 엎어질듯 비칠거렸다.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주던 태석은 그의 몸에서 후끈후끈 풍기는 열기에 놀랐다.

《자네 몸이 뜨겁구만. 탈을 만난게 아닌가?》

《비 때문에?》

동림은 빙그레 웃었다.

《비가 좀더 내렸으면 좋겠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온갖 너절한 쓰레기를 짱그리 씻어내주었으면 하네. 고마운 비…》

《너무 흥분하지 말게.》

동림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흥분이 아니라 진짜의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의 경악일세. 태석이, 난 이번 시험에 내 운명을 걸었네. 땅에 떨어진 명예의 회복,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배반당한 사랑에 대한 복수… 결국 도박을 한셈이지.》

태석이, 나란 도대체 어떤놈인가. 리기심의 높다란 울타리속에 갇혀 시대의 한복판을 넘볼수도 없었던 내가 무슨 성공을 기대한것이 가공한 행위가 아니란말인가?》

동림은 열에 떠서 부르짖었다.

사방에는 물소리가 가득찼다. 길옆도랑으로는 풀덤불이며 나무토막들을 떠실은 뿔건 흙탕물이 누런 거품을 일으키며 팔팔 흐르고있었다.

《저기서 몸을 좀 말리우세. 아직 시오리길이 남았는데.》

태석은 다짜고짜 동림의 손을 잡아끌어 길가에 선 바위밑의 공지로 들어갔다.

배낭을 벗어놓은 태석은 삭정이를 주어다 곁돌을 일구었으나 불이 잘 달리지 않았다.

젖은 삭정이에서는 식식 소리가 나더니 매운 연기를 뿜어올렸다.

무릎을 꿇고 한쪽불이 땅에 닿을듯이 엎드려로 입김을 불어대던 태석은 연기에 쏘인 두눈을 비비며 황급히 물러났다.

《에 키… 피라는 불은 안피구.》

《그만하게 불은 이 심장에서 핀다네.》

문득 동림은 품속을 뒤지더니 신문을 꺼냈다.

《여기 와 앉으라구. 송주가 피운 불로 우리 마음을 덥히자구.》

비에 젖고 우그러든 신문은 이미 그 활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동림은 보풀이 인 신문을 들고 뜬금으로 읽었다.

《자기의 힘만을 믿고, 두뇌만을 믿고 떠났다면 오늘의 강행군길을 끝까지 갈수 없을것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휘황한 우리 조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뜨거운 심장만이 온갖 시련을 딛고올라 오늘의 이 간고한 행군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림의 눈은 숯불처럼 번쩍이고있었다.

《이건 나에게 한 말일세. 내가 들으라고, 나를 불려일으키려고, 내 가슴에 불을 지피려고 송주가 이 말을 한거야. 그렇지 않나?》

동림의 목소리에 그 모든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이 뜨겁게 울리고있어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비는 완전히 멎었다. 비에 씻겨 더욱 싱싱하고 푸르러진 들은 선명한 색조를 띠고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탄광에 도착한것은 밤이였습니다. 동림인 집

으로 함께 가자는 내 말을 뿌리치고 합숙으로 갑니다만 아무래도 미타했습니다. 그래 합숙으로 찾아가니 그는 방안이 좁다하게 설계도면과 시험 일지들을 널어놓고 실패원인때문에 모대기고있었습니다. 다시 유압동발을 붙든것은 반가웠지만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가쁜 숨을 내쉬는 걸 보니 탈을 만난것이 분명했습니다.

합숙에서 먹으며 말며 자며 말며 오래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진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를 쓰다싶이 해서 약을 먹이고 자리에 눕히는데 누워서도 내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갯에 들어가봐야겠는데.>

전 동림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닷새만 있으면 갯복구가 완전히 끝나네. 그때 들어가보세.>

동림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전 하루쯤 쉬라고 그에게 이르고 혼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친구의 몸을 추세우라고 안해가 싸주는 닭곰단지를 들고 동림을 찾아가니 방은 비어있었습니다.

옆방사람들은 그가 퇴근시간 무렵에 안전등을 들고 3호막장으로 가는것을 보았다는겁니다.

안전등이란 말에 전 가슴이 섬찝했습니다.

더 생각할사이 없이 3호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퇴근시간 사람들이 비는 틈을 타서 동림이 봉락된 갯속에 들어간것이 확실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것은 목숨을 내대는 행위였습니다. 절반쯤 복구했지만 파손된 유압동발이 있는 구간은 아직 손을 못댄데다 봉락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막장에 도착하니<셋! 위험!>이라고 쓴 <X>자형 판자들은 제껴져있었습니다. 전 목청껏 동림을 찾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막장에 내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릴뿐이었습니다.

등으로는 차거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와락 판자를 뜯어버리고 막장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맞받아 날아왔습니다.

<들어오지 말게. 내 인차 나가겠네.>

동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반가움보다 불길 같은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오라구. 빨리!>

한참후에 어둑속에서 저벅거리는 발자욱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를 소중히 안은 동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며 작업복이 온통 새까만 얼룩투성이인데 눈만은 억제할수 없는 기쁨으로 번쩍이고있었습니다.

<찾았네. 찾았던말이야.>

그는 시퍼렇게 성이 난 내 인상쯤은 아랑곳하고 내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이 주밀폐바킹이 미끄러지면서 38호 유압변이 터져나갔네. 왜 그렇게 되였는가를 보니...>

그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천반침하가 어떻고 유압변들의 작용상태가 어떻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바람에 전 어쩔사이없이 그의 흥분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실패원인도 찾고 앞으로의 대책도 다 토의하고 나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1시가 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함께 갯을 나섰습니다.

그날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습니다. 구름속에 잠겼다가는 그 허울을 벗어던지려고 모지름을 쓰던 끝에 다시금 휘영청 푸른 밤하늘을 뚫뚫 떠흘러가는 달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명상에 잠겨 그 달을 바라보며 걸던 동림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라구. 내 어제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썽 송주동무가 보이더라말이야. 눈부시게 핀 옷에 흰 가방, 흰 구두를 신은 그가 내 앞에서 걸어가는게 아니겠나. 그는 멀리 더 멀리 걸어갈 차비였네.>

난 그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들어야지.>

순간 저는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언제인가 재만 남았노라고 울분을 토하던 이 친구의 가슴에 다시금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네 임송주를 사랑하지?>

내 물음에 동림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니, 난 내 손으로 행운을 버린 사람일세.>

글썽... 한때 사랑을 했구, 함께 사랑의 불을 지피기는 했지만 그 불은 서로 다른곳에서 타올랐네. 송주는 시대의 한복판에 그 불을 피워올렸지. 바람이 세찰수록 그 불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지만 나라는 인간의 조그마한 울타리안에 피웠던 불은 너무나도 쉽사리 꺼지고말았네. 송주는 자기의 불에 래일로 끝까지 갈 의지를 버렸다면 난 나 하나의 몸뚱이를 덥히려 했거든. 신문의 구절이 생각나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우리의 물음에 임송주동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 아직 저를 그 어떤 성공자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에 만족한다면 래일은 더욱 멀어질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성공의 비결이며 래일을 향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우리 조국이 가야할 행군길우에 변함없이 서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잘 썼네. 아마 기자가 총각이었던가

봐.>

그 말을 들으며 전 여기로 떠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 임송주동무가 새로운 길동무를 만났다 해도 그는 동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보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동림에게 보다 큰힘이 됩니다. 막장과 설비를 파손시킨것때문에 열리는 사고심의회가 이틀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고심의회에서 변명할 준비를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을 위해 불덩이처럼 뛰고있습니다. 전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의 변열을 식히려고 잠간 말을 끊었던 태석은 후-하고 단김을 내뿜었다.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이상입니다.》

림태모는 자리에서 일어서 몇걸음 앞으로 내짚었다. 발밑에서 사르럭거리는 락엽의 금속성 비슷한 음향에 귀기울이듯 한참동안 잠자코 있던 그는 문득 입을 열었다.

《그래 언제 떠나겠소?》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인듯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긴 어디겠소. 탄광이지.》

《전 임송주동무를 만나면 오늘밤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태석의 어조에서는 움직일수 없는 완강성이 느껴졌다. 그것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하듯 한동안 번뜩이는 눈길로 태석을 바라보던 림태모는 의자우에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래일모레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지요. 그때 임송주를 만나게 해주겠소. 그럼 잘 가요.

시간을 잊지 마시오.》

통명스러운 어조로 매듭을 지은 림태모는 거리쪽으로 걸어갔다. 태석은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아연한 표정으로 한동안 서있었다.

이틀후 약속한 시간보다 한시간이나 앞서 연구소정문앞에서 서성거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는 태석의 옆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운전칸문이 열리며 밤색잠바차림의 림태모가 내렸다. 그는 서둘러 달려와 인사할 생각도 있고 자기 뒤만 살피는 태석을 보더니 《흠》하고 뜻모를 코김을 내뿜었다.

《임송주동무 어디 있습니까?》

《안됐소만 송준 먼저 떠났소.》

《떠나다니요?》

림태모는 흘깃 태석을 바라보더니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령성으로 떠났단말이요. 어서 차에 오르오.

그곳 탄광에 보내는 우리 연구소 지원물자를 싣고가는 차요. 떠날 차빈 했겠지.》

《예. 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석은 좀 얼떨떨한채 림태모의 뒤를 따라 적

재함에 올랐다. 지함들이며 탄광기계부속품들, 공구류들이 실려있는 적재함의 안쪽에 서너사람이 앉을만한 자리가 준비되어있었다.

《자, 떠나지요.》

차는 흠칫 몸을 떨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장동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풀길없는 의혹이 가득히 서린 태석의 얼굴을 바라보던 림태모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에 60대의 장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천진한 그 무엇이 반짝이고있어 태석은 저으기 놀랐다.

《어떻게 되긴, 다 자기 길을 가는것이이지.》

차가 들추는 속에서도 용케 라이트를 켜고 담배를 피워 문 림태모는 태석의 초조한 시선을 느끼자 다시 입을 열었다.

《송주는 이미 한달전에 령성군에 새로 건설되는 복합미생물비료공장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했소.

그가 현실에서 연구사업의 폭을 넓힐 결심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나나 동무에 못지 않게 최동림에 대해서 알고있었던것이지요. 그의 어제와 오늘을 모두... 아마 그가 동림이한테 쓴 편지만 해두 서너책은 잘 될거요. 한번도 보낸적은 없지만 올면서 웃으면서 쓴 편지들이였지.

그래서 송주가 령성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난 너무 가까운 생각에 반대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탄광에서 편지 한장이라도 오지 않겠는가 하고 기다렸겠소. 한데 동무가 불쑥... 사실 오늘 이 자동차를 타고 함께 떠나자고 했겠소. 송주가 어제 오후 실에 돌아왔길래 동무가 찾아온 소리를 했더니 사고심의회가 열리기전에 동림일 만나겠다고 밤차로 떠나는게 아니겠소. 어디 막을수가 있어야지.》

뜨직뜨직한 그 목소리가 채 끝나기 도전에 흥분과 걱정으로 얼굴이 활짝 붉어진 태석이 두눈을 습벅이며 림태모의 손을 짝 부둥켜잡았다.

《아바이, 아니 실장동지,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난 반대를 했는데. 한데 이보라구. 난 밤새 궁싹거리며 저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가 하구 상상해 보았는데 그럴사한게 떠오르지 않더군. 동무 생각엔?》

《글쎄말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우두거니 마주 보기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둘러리구실은 멋있게 하겠습니다. 하하...》

두사람은 즐겁게 웃었다. 자동차는 바람을 맞아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임송주가 온밤 달렸을 그 길- 지금은 그들이 서로 만나고있을 령성은 점점 마주오고있었다. 두번째 불무지가 피어오르는고 있는 그곳이...

로동계급의 새 모습을 그려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고있는 로동계급!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머나먼 로정마다에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신 그들의 모습에서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다면 올해에 나는 무엇을 쓸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문학의 인간성격은 작가자신이 발견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인공이 지닌 남다른 성격을 발견하지 못한 작가는 붓을 들 권리가 없다. 작가는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뜻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로동계급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로동계급에 대한 똑똑한 글 한편 써내지 못한 저로서는 새해를 맞으

며 자연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민이 바라는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지향은 또 무엇인가, 단 한편의 글을 써도 그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고 삶의 교과서로 될 시대의 명작을 써내는것이 작가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올해에 로동계급의 새로운 성격을 형상한 작품을 써낼 결심입니다. 제국주의 포위속에서도 변함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모습.

아름찬 생각도 없지 않지만 기어이 해낼 결심입니다. 그 창작과정에서 끝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과정으로 되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이것이 새해를 맞으면서 다지게 되는 저의 결의입니다.

소설가 이정옥

풍성한 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새 세기를 마중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금세기의 마지막해를 맞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인지 새해를 맞는 기분이 여느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가슴은 자꾸만 뜨뜻이 젖어들고 뭔가 생각도 많아집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21세기라는것이 우주의 한끝에나 있는것처럼 그렇게 아득히 여겨지더니... 그런데 이제는 그 턱밑에 이르렀습니다.

한세기를 달려온 우리의 행로를 마라손경기에다 비긴다면 우리는 지금 결승테프가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주로에 들어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마라손선수들은 있는 힘을 다 내어 속도를 높이기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처럼 나는 새해에 최대한 속도를 높여볼 결심입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초고를 댔 혁명 전통주체의 장편소설 《붉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완성하여 출판에 넘기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계획외에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단편소설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단편소설 한편을 더 쓰려고합니다.

일을 많이 하자고 보니 나이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순고개가 눈바투 바라보입니다.

18년전에 쓴 첫 증편소설, 《희망》의 한 대목이 문득 생각납니다. 작품에 나오는 농장의 실농군 오칠성로인은 어느날 청년분조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한생은 결코 긴게 아니야. 저 해를 바라.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있을 때는 마냥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일단 서산머리우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거던.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땐 시간 귀한줄을 모르고 일을 늦잡지. 그러다가 서천으로 기울어 진담에야 <어이쿠! 날이 다 저물었군.> 하면서 바빠 서두른단 말이야...》

나는 자신의 한생이 《어이쿠! 날이 다 저물었군.》 하면서 바빠 서둘러야 할 바로 그런 대목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됩니다.

시간을 아껴 일해야 할 인생의 황혼기, 나는 새해의 하루하루를 금싸래기처럼 아껴가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주로에 들어선 마라손선수마냥 속도를 높여 힘차게 내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때보다 풍성한 창작의 로적자리를 높이 쌓고 긍지롭게 새 세기를 마중하겠습니다.

아동문학자가 리준길

다시본 모습

김혜영

인민대학습당 사서인 한명희는 오늘도 밤 10시가 지나서야 퇴근하였다.

집 현관으로 들어서던 그의 얼굴에는 방긋 웃음이 어렸다. 문이 활짝 열려진 승강기실 안에서 회색 양복차림의 청년이 책을 보며 서있었다.

《석천동무! 오늘 퇴근이 늦었구만요?》

명희는 다정히 말을 건ნი며 안으로 들어섰다.

《아, 한선생님이세요?》

석천이도 책을 보던 눈길을 들고 반색하였다.

운전공이 단추를 누르자 승강기는 곧 문을 닫고 가볍게 미끄러져 올라갔다.

《석천동무의 학사학위논문이 잡지에 실렸더군요. 축하해요!》

《뭐 별로 요란한건 못되지요.》

줄음에 취해있던 운전공 녀인이 눈을 번쩍 떴다.

《아이구, 학사라니? 그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구만. 이젠 우리 호동의 자랑일세.》

석천이는 쑥스러운듯 빙그레 웃으며 눈길을 내리었다. 잔잔하고 리치적인 눈매, 곧게 미끄러져내린 코날, 그린듯 선명한 입술, 거기에 붉은 바탕색의 줄무늬넥타이와 은근한 회색양복이 어찌나 잘 어울렸던지 보는 사람의 마음조차 온화해질 정도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생인 이 청년은 명희와 한층을 사이두고 산다.

《저렇게 안팎으로 잘난 총각한테 어떤 처녀가 찾아들겠는지? 아직 말아둔 대상이 없다면 내가 좀 욕심을 부려볼까?》

《에에? 아니...》

석천이 당황해하자 명희가 변호하듯 말했다.

《석천동무한테 아마 약속한 처녀가 있을거예요. 아주머닌 아예 미련을 안가지는게 좋아요. 호호...》

명희의 의미있는 눈길과 마주친 석천의 얼굴은 더더욱 붉어졌다.

《에그, 그럼 난 멀찌감치서 색시 데려오는걸 구경이나 해야겠군그래, 부럽게 말야. ...호호...》

그러는 사이에 승강기는 어느덧 8층에 이르러 스프링 문이 열렸다.

석천에게 눈인사를 남기고 승강기에서 나와 집앞에 이른 명희의 얼굴은 금시 환해졌다.

신문통에 하얀 편지봉투의 한 귀퉁이가 삐끗히 내보였던것이다.

서둘러 꺼내보니 봉투앞면에서 《은옥》이란 이름이 첫눈에 안겨왔다. 기쁨이 확 솟구쳐올랐다.

기다리던 편지였다.

허나 방으로 돌아가 편지를 뜯으려던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주춤 손을 멈추었다.

비로소 편지가 두툼하다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 다.

아니나다를가 속지가운데 명희가 보냈던 석천의 독사진이 묻어나왔다. 웃음머금은 그 얼굴이 실망의 쓰거움에 이그러진 얼굴로 보였다.

명희는 그만 멍청해 저서 편지 권 손을 맥없이 떨구었다. 너무도 예상밖의 일이었다.

(은옥이, 네가 어쩌면... 약속을 어기다니...)

한동안이 지나서야 명희는 편지지를 펼치었다. 의혹과 함께 한가닥의 미련이 그의 눈길을 이끌어갔다.

X

명희언니!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았어요. 먼곳에 있는 저를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주는 언니의 성의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할지...

이 장문의 회답편지가 언니에게 실망과 노여움이 될는지 아니면 이해와 공감을 주게 될는지 아직은 단정할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가 이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너무도 솔직한 이 마음의 고백을 결코 비난하고 욕하지만은 않으리라 믿어요.

언니, 생각나세요? 3년전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던 일이...

찌는듯 무더운 8월의 그날, 새 손수건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트렁크와 책가방을 량손에 들고 첫 배치지로 들어선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이가 바로 언니였어요.

한번도 와본적 없는 생소한 고장에서 뜻밖에 대학선배를, 그것도 학부 사로청위원장으로 제대군인 대학생들까지 호락호락 휘여내던 씨원스럽고 드살찬 언니를 만나게 된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수 있었겠어요? 온갖 근심걱정은 홀연 사라지고 그대신 산같은 믿음과 의지가 기둥처럼 마음속에 들어앉았어요.

그러나 그 상봉의 기쁨에서 벗어나기도전에 난 작별의 아픔을 느껴야 했어요. 언닌 이미 며칠전에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학급과 과목을 인계받을 새 선생을 기다리던중이었어요.

합숙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도

눈물이 글썽해서 입술을 깨물며 앉아있는 나에게 수저를 쥐여주면서 언니 말했지요.

《네 그 감상적인 성격은 여전하구나. 그건 나약성의 표현이야. 인간생활엔 이런 작별 따위와는 대비할수도 없을 그런 정신적아픔도 있다는걸 알아야 해. 참, 은옥이! 앞으로 네 대상자는 내가 평양에서 골라줄테니 그때 가서 우리 함께 이웃해서 살자꾸나, 어때?》

그래요, 언니! 이제라도 평양으로 달려가 언니와 한지붕아래서 살면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하지만 언니와 헤어진 이 3년간의 생활은 저를 그때의 리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실어와버렸군요.

언니, 그날 오후 제가 언니에게서 학급을 인계받을 때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문건인계가 끝난후 교실을 돌아보려 갔을 때 벽에 걸린 《영예의 붉은기학급》 표창장을 보고 난 기뻐서 말했어요.

《이제 <2중붉은기>만 하면 되겠군요, 쫓기는 헛것이지요?》

그러자 언니 머리를 짓더니 동정인지, 한탄인지 모를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네가 2중을 하겠다면 저쪽 학급에선 아마 3중을 하겠달거야.》

《저쪽학급이라니요?》

《우리 4학년 2반의 경쟁대상인 4학년 1반말이다. 그 학급은 이미 <2중붉은기>학급에 <7.15최우등학급>까지 되었단다.》

《예에?》

엄청난 산악을 마주한듯한 그 어떤 감정... 그것은 분명 감탄과 부러움을 초월한 두려움에 가까운 위압감이었어요. 흔히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데는 절대적인 기준치보다도 상대적인 대비가 더 큰 작용을 하는 법인데 글썽 나 같은 헛내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학급과 맞서게 될건 뭘겠어요?

《놀랍군요. 언니보다도 더 이악한 선생이 있다는게...》

《그러게 끝내 기권해버리고말지 않았니? 아무리 애를 써두 기껏 그의 뒤통리를 쫓다 마는걸댜.》

《어마나, 어떤 처녀길래...》

《처녀? 호-은옥인 마치고 <처녀>란 말이 이악성의 대명사인줄 아는게지?》

《그럼, 아주머니?》

《아니, 총각.》

처음엔 선뜻 믿어지질 않더군요. 《이악쟁이》에 《총각》이란 말이 우습강스럽게만 들렸어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학교에 있겠지요?》

《학생들을 데리고 야영을 갔는데 인차 돌아올거야. 참, 은옥이도 혹시 알수 있겠는데... 우리 대학

수학부에 진승일이라고.》

《진승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긴 모를수밖에... 3년 우인데다 특별나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너도 지내보면 알게 될게다. 다들 <진드기 진>자에 <이길 승>자라고 놀려주는게 우연치 않다는걸...》

언니 그이상 더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의 눈앞엔 나의 경쟁자로 될 미지의 그 남자에 대한 표상이 방불히 떠올랐어요. 양보심없고 호방하지 못한 잘고 좀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사람과 맞서 그 무엇을 겨루고싶은 의욕은 조금도 없었어요. 랑심껏, 능력껏 일하리라! 누가 어떤 평가를 해주든 말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양하는데 나의 정의가 있었지요.

하여 나는 그 어떤상대에 대응하고 그를 타승할 작전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능력에 맞는 내 나름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를테면 아이들을 착하고 의로운 인간으로 키울 사상교양계획, 공부를 잘 시켜 대학에 보낼 학습지도계획, 체력과 정서를 키워줄 다양한 과외사업계획들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어요.

그날도 새학기 교수준비때문에 걸그림들을 완성하느라 저녁 늦게야 합숙으로 들어가던 나는 운동장의 방울나무밑에서 들러오는 왁작거리는 소음에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두워서 검스레한 형체만 알리는 스무나문명의 사내애들이 두패로 마주서서 치고받고하는데 《앗!》 《덤벼라!》 《훗!》 하는 심상치 않은 목소리들이 가슴을 서늘케 한것이였어요.

패싸움인가?

무서운 예감에 황황히 달려간 나는 야무진 소리로 웨쳤어요.

《이게무슨 짓들이예요? 어서 물러들 서요!》

때말리기 힘들리라 생각했던 나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였어요.

《패싸움군》 들은 깜짝 놀라며 순순히 물러서더군요. 이어 《누구야?》 《글썽...》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니 그들중 허우대가 남달리 커보이는, 체격상 대비도 안되는 작은 상대와 마주서 있던 남자가 웅글은 목소리로 묻는것이였어요.

《실례지만 거긴 누구니까?》

난 두려워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위엄있게 대답했지요.

《이 학교 교원이예요!》

《아, 그렇습니까? 새로 오신 모양이군요. 이거참 반갑습니다.》 하고 그는 내앞으로 다가오더니 유심히 날 들여다보며 말하했지요.

《저도 이 학교에 있습니다. 밤에 소란을 피워안됐습니다. 지금 태련도 맞서기 훈련을 하던중이지

요. 허허…》

《예예?》

그러자 아이들속에서 와하하 웃음이 터져올랐어요.

난 그만 모닥불을 들썩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어둠이 나의 붉어진 낯색을 가리워주고 있다는것도 모르고 무작정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합숙으로 달려왔지요.

밥상을 차려주던 합숙어머니가 의아해서 무슨 불편을 당했느냐고 자꾸 묻질 않았어요?

난 울상이 돼서 어머니의 두손을 마주잡아 막 혼들었어요.

《글쎄 이런 망신이 어데 있어요? 체육선생이 소조원들에게 태권도훈련을 시키는걸 패싸움하는줄 알고 욕을 했지요 뭐, 아이 정말…》

《저런, 손님이 주인을 욕한 셈이 됐구만. 호호…》

《아니, 교원이 그렇게 학생들과 간격없이 마구 휩쓸러 치고받고하니 나야 선생을 못알아볼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선생이…》

나는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밖에서 신발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럭 열렸던거예요.

그쪽을 보는 순간 난 기겁을 해서 합숙어머니의 등뒤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는 바로 방금전 날 망신시킨 그 선생이였어요. 내가 자길 욕하는 소리 다 들었을테니 어쩌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더욱더 놀란건 다음 순간이였어요.

《아이구, 진선생이 이제야 오누만. 그새 객지애 나가 고생 많았겠네. 참 식사부터 해야지.》

반색하며 일어난 합숙어머니 날 홀로 남겨두고 부엌으로 나가버렸어요.

난 너무도 놀랐던 나머지 부끄러움도 잊고 눈이 동그래서 그 선생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야영에서 돌아오는 진선생이었던 말인가?)

별에 익은듯 불그레한 얼굴의 우묵한 눈확속에서 끝이 약간 들린 큰 눈이 선량하게 껌벅이며 날 내려다보고있었어요. 가운데 꿀을 타고 미끄러져내려량이마를 덮은 술많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썹썹 쓸어넘기면서 스스럼없이 내앞에 마주앉더군요.

《허허… 이거 초면인사가 좀 미안하게 되었고요.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의혹을 금할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언니가 말하던 그 《진드기선생》이 웅단말인가, 것처럼 체격도 크고 생김도 선량하고 순박해 보이는 그의 모습 어느 구석에 야심 비슷한것이라도 깃들 구석이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우기는 언니가 분명 총각이라고 한 그가 실지 보태는 서른이 지난 중년나이에 가까와 보였던거예요.

요.

그러자 어쩐지 동정심같은것이 생기면서 그냥 새침해 앉아있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그런데 야영갔다오자바람으로 무슨 태권도훈련을 하겠는가요?》

《예?… 예-》

진선생은 습관처럼 또다시 손을 들어 앞머리카락을 쓸어넘기더니 어쭙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힘들지만 그냥 돌려보낼수가 없었지요. 글쎄 야영기간 내내 1등만 하던 우리 학급이 맨 마지막날 태권도경기에서 우승기를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패한 기분으로 휴식을 한들 마음들이 편할리 없었지요. 그래서 한바탕 대전을 가상하고 맞서기 훈련을 해본겁니다.》

《어마나… 선생님은 정말…》

나는 놀라웁게 진선생의 모습을 마주보았어요.

식사후 그가 자기 방으로 건너갔을 때 난 합숙어머니의 설것이를 거들어주며 소곤소곤 그가 총각인가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럼! 장가를 안갔으니 총각이지 뭐냐?》

《나이가 펍 들어보이던데요.》

《후유-글쎄 서른둘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질 않나?》

《서른둘이요?》

난 저으기 놀랐어요. 그러니 나보다 거의 10년이 나 우인셈이였지요.

《그런데 왜 아직…》

《군대복무하구 대학을 나와서 원체 나이를 먹은 데다가 선생을 하면서두 벌써 3년이 지나질 않았나. 그런데두 장가들라구 하면 때가 아직 안됐다고만 하니 어디 속을 알겠나? 그저 아이들속에 파묻혀 사니 저두 야인줄 아는 모양이지.》

어머니의 서글픈 어조에서 난 그 선생의 지나온 생활에 꼭 무슨 곡절이 있었을것만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

명회는 더이상 편지를 읽어내려가지 못하고 그만 두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다.

(은옥이! 그만해! 제발…)

마치 은옥이가 앞에 마주앉아 이야기하는것만 같아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진승일- 그는 시간의 도움으로 잊어버리기엔 너무나도 예리한 인상으로 기억속에 새겨져있었다.

진승일과 한명회는 한대학의 동기동창이였다.

한명회가 당시 외국어학부 사로청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내고있을 때 진승일은 수학부의 평범한 학생으로 공부에만 몰두해있었다. 생김새도 녀성들의 인기를 끌만큼 매력적으로 생기지 못했거니와 내성적이고 파묵한 성격으로 하여 그는 자기 학부안에서조차 존재가 미미했다.

명희가 진승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의식한것은 언젠가 도서관의 열람실에서였다.

두툼한 영문소설원서를 번역하느라 여념이 없던 명희는 만년필의 잉크가 툭 떨어져버리는바람에 안타까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날따라 낮익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옆자리에는 술많은 머리칼을 량이마에 드리운 남학생이 깨알같은 수자들과 이름모를 부호들로 가득찬 과학기술잡지에 고개를 바투 숙이고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가고있었다.

잠시라도 이쪽에 주의를 돌려주었으면 좋으련만 고개를 수गत한것이 주위세계는 감감 잇고있는 모습이었다. 소리를 내어 물어보기도 저어되어 명희는 생각끝에 종이쪽지에 큼직하게 글을 썼다.

《청색잉크 좀 없습니까?》

그것을 그가 눈을 붙이고있는 책우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그제야 그 남자는 쪽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돌리었다. 주저없이 마주보는 처녀의 서늘한 눈길에 주눅이 들었는지 그는 얼굴색이 불그레해지더니 가방에서 원주필을 꺼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없이 다시 책을 들여다보는데 열람시간이 끝날 때까지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명희는 그가 책을 거두며 일어설 때에야 원주필을 내밀며 말을 건넸다.

《잘 썼어요. 이 신셀 어떻게 갓올가요?》

《됐습니다. 마저 쓰십시오.》 하고 그는 가방을 들자 도망치듯 급히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아니, 저...》

명희는 원주필 든 손을 쳐든채 몇걸음 따라 나가다가 그만 멈춰서고 말았다.

그후부터 명희는 대학구내에서 마주치는 그를 무심히 볼수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늘 책을 펴들고 보느라 앞에서 누가 오는지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쪽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명희는 그에 대해 더 알고싶은 알곳은 심사를 느끼게 되었다.

학부간 체육경기때나 명절날 무도회장에서나 은근히 그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진승일의 모습을 정서생활의 세계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도서관에 가야만 책에 정신을 묻은 그를 볼수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그들은 또다시 단독으로 마주설 기회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적인 문답식경연때에 있는 일이었다.

아슬아슬하게 승부를 다투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명된 명희는 기본대답끝에 보충질문할 번호를 짚는다는것이 공교롭게도 수학부의 진승일을 일으켜세운것이였다.

명희는 가슴이 조여졌다. 충분히 대답하느라 했지만 어느 틈에서 어떤 묘한 질문이 나올지 알수없

었다. 다행히도 그는 상식적인 술어해설 문제를 제기하고는 명희의 류창한 대답에 한마디 반박도 없이 잤아버렸다.

언제나 책밖에 모르는 진지한 탐구자세, 어디서나 남에게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순박하고 양보심많은 성격-명희는 자기의것과 상반되는 이러한 성격에 차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것이다.

그 어떤 운명이 준 필연인지 얼마후 대학을 졸업하고 한 학교로 배치장을 받은 그들은 서로가 다 뜻밖의 일치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위원장동무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능숙한 통솔력이랑 사업방법을 많이 배워주시오.》

《월요, 제가 오히려 진동무의 탐구심을 따라배워야지요.》

명희는 미구에 다가올 행복에 대한 예감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명희는 더 생각하기조차 피로와 떠오르는 기억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흔들며 버리고 다시 편지지에 눈길을 실었다.

×

나이 서른이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 평범치 않은 처지는 나로 하여금 그에 대한 존경심과 동정심, 녀성적인 의협심까지 가지게 했어요. 같은 합숙생으로서 될수록이면 그를 따듯이 대해주고 힘자라는것 생활상방조를 주리라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새학기가 시작되어 며칠이 못가서 전혀 다른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감정은 개교전날 교실순회검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거예요. 어느 교실이나 다 환하고 알뜰알뜰하였지만 진선생네 교실에 들어서면 교원들과 책임일군들은 입을 딱 벌리고 멈춰섰어요. 그저 깨끗하고 알뜰하다고만 하기엔 표현이 너무도 모자랐지요. 수도꼭지까지 단 음료수통, 새로 문양을 넣어 짠 음료수통발치개, 마흔개의 하늘색비닐고뿌들이 들어찬 고뿌함과 그우의 연분홍색 비닐레스, 세개의 창문턱에 똑같이 놓인 닭알색사기화분과 그우에 활짝 핀 《김정일화》, 진폴색 에나멜을 먹어 새것처럼 반짝반짝해진 책상들, 일식으로 꽃방석을 해씩운 결상들...

하여튼 그의 교실은 눈이 번쩍 뜨이도록 이채로왔고 구석구석마다 교원의 알뜰하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남보다 특별히 두드러져보이려는 녀성적인 이악심이 엿보이는것이였어요.

언니! 이러한 진선생에 대해 《녀성다운 의협심》을 운운했던 제가 얼마나 허망한 녀자였겠나요?

그뿐이 아니였어요. 개학날 옷차림검열, 사열행

진, 군중무용에서도 다른 학급을 엄청나게 압도하더니 9. 9절특간호 전시회에서 1등, 태권도 틀경기에서도 모범출연, 하여 우리 학급애들은 매년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야 했지요. 이 모든것은 저의 가슴속에서 동정심과 의협심을 들어내고 불길같은 자존심을 황황 일쿠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과외체육시간이었어요. 우리 4학년은 집단달리기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글썽 뛰는 도중에 순너라는 몸이 약한 학생이 쓰러질듯 비칠거리며 더는 못뛰겠다고 울먹이는게 아니겠어요?

무작정 데리고 뛰자니 쓰러지길라도 할가봐 겁이 나고 또 그애 하나때문에 학급의 속도가 지연되는게 안타깝더군요. 그래 길옆 양수장뒤에 피신해서 숨을 좀 돌리고 돌아오는 길에 따라 뛰라고 이르고 말았지요. 그때 앞에서 먼저 출발한 4학년 1반대렬의 맨뒤에서 진선생이 얼핏 이쪽을 돌아보다더군요.

(보았구나! 하지만 일없어. 남자가 이쯤한걸 가지고 걸고들라구?)

온몸이 땀에 젖고 숨이 턱에 닿아 학교에 이르니 초시계를 들고있던 소년단지도원이 《15분20초》라고 알려주었어요. 난 먼저 도착한 4학년1반의 기록시간을 알아보고싶어 슬그머니 다가가 수첩장을 넘겨다보았어요. 《15분 22초》라는 수자를 보았을 때 난 얼마나 기뻐던지...

아이들에게로 막 달려가려 했을 때 수도간에서 세수를 하고 오던 진승일선생이 물이 똑똑 흐르는 얼굴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것이었어요.

《아까 보니 은옥선생네 한 학생을 도중에 떨구었더구만. 말자체로 집단달리기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어마나...》

난 아연해서 얼굴을 허둥거리며 떠듬거리었어요.

《그댄 몸이 약해서...울기까지 하는걸 어떻게...》

《그럼 일단 유사시에도 몸이 약하다구 그렇게 하겠소? 그건 적들에게 그댈 내맡기는거나 같단말이요.》

《뭐라구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입술을 떨었어요.

그날 과외체육총화에서 진선생은 자기네 학급이 우승으로 발표되었을 때 조금도 멋적어 하는 기색이 없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며 싱글벙글하더군요. 그걸 보는 저의 눈에선 맵고 쓰린 눈물이 방울져내렸어요.

×

명희는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은옥아!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단다. 아이들앞에서 어른이라는 위신도 없는 사람, 처녀앞에 총각이라는 체면도 모르는 사람... 그의 생활엔

그 모든 인격보다도 《1등》이라는 하나의 위치만이 필요한거야. 《1등》이 그의 생의 리상이고 기쁨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1등! 물론 그 1등에서 명예가 빛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예가 곧 인간의 존엄은 아니지 않니? 야심으로 얻어진 명예는 오히려 사람을 유치하고 졸렬하게 만드는 법이지.

은옥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와 맞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넌 끝내 나의 전철을 밟았구나.)

애써 잊으려 했던 불쾌한 추억은 검질기게도 새록새록 되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교단에 선 명희의 포부와 리상은 컸다. 그는 천성적으로 가지고있는 자기의 결패와 이악성을 믿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아닌 진승일의 존재로 하여 빛을 잃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공교롭게도 1학년의 두 학급을 나란히 맡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히 모든 일에서 승부를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진승일은 전혀 판사람으로 변해갔다. 대학시절의 그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싫어하던 순박한 청년, 하여 그토록 명희를 매혹시켰던 그 《지성인의 전형》이라는 외피는 멀리 벗어던져버렸다. 천진한 아이들이 가질수 있는 그런 아이적인 승벽과 처녀들에게서 흔히 보는 그런 야심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명희를 이기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에는 환멸이 갈 정도였다.

물론 명희의 학급을 도와 목수일이나 미장일, 전기수리같은것을 도맡아 해주다싶이 하였으나 명예를 내걸고 승부를 가르는 일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맞서는데 명희로서는 그 이악성을 뽐낼만한 용기가 모자랐다.

차츰 그는 사내다운 아량도, 양보심도 없는 저런 사람을 한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자신에 대해 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은 참다못해 이렇게 내쫓았다.

《진 진선생이 그렇게까지 욕심쟁이인줄은 몰랐군요. 남에게 1등을 양보하기가 그렇게도 가슴아픈가요?》

《허허... 천만의 말씀이요. 난 명희선생이 언제든지 나를 뽐나해서 1등보유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오.》

《뭐라구요? 절 놀리지 마세요. 제가 선생을 이기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모습을 보기가 좋다는건데... 어찌면...》

명희는 격분하여 뺨 돌아서버렸다.

(그래, 내가 왜 이때껏 그의 뒤쫓리를 잡느라 헛되이 따라다녔단 말인가? 그래서 얻은것이 무엇이었던가? 그 사람에게 승자의 쾌감을 안겨준데서 난 만족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기권하고말자. 난 마라손경기에서 자기가 등수권내에 들수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 뛰는것과 같은 그런 바

보가 아니야!)

명희의 자존심에는 증오와 비난의 대상으로는 될지언정 동정의 대상으로는 되고싶지 않았다.

하여 그때부터 명희는 승일이앞에 1등을 못해 안타까와 뛰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승일이 진땀을 흘리며 복습지도를 하고있을 때 명희는 보란듯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내보내 축구와 유희를 하게 하였고 승일의 학급이 복습후 경기를 걸어오면 수영장으로 몸을 씻으러 보냈다. 복습지도를 해도 그전처럼 옆방에서 다 들리도록 목이 설 정도로 피타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학에서 간혹 자신도 모를 문제가 생기면 그전처럼 자기가 쿵쿵 뛰여가지 않고 과목책임자 학생을 보냈다.

확실히 명희의 이 뻥담하고 무심한 태도는 진승일에게 자극이된것 같았다. 늘 열에 떠서 의기양양해 뛰여다니던 그의 얼굴에 그 어떤 근심과 위구의 그늘이 비끼는것 같았다. 무슨 의견이 있는가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였지만 명희는 아니라고 태연하게 대답해버렸다.

어느덧 3학년말 시험기간이 닥쳐왔을 때였다.

수학시험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 깜박 정전이 되는바람에 명희는 학생들을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조를 짜주고는 돌려보내고 말았다.

학생들이 복도가 떠들썩 울리도록 찾고 부르고 하며 나가는데 열쇠를 채우는 명희에게 옆교실의 진승일이 다가왔다.

《학생들을 그저 다 돌려보내면 래일 시험을 어떻게 보장하겠소? 응용문제나 기하에서 아직 약한 학생들이 있는것 같은데...》

《제 학급은 제가 책임질테니 걱정마세요.》

명희는 쌀쌀하게 대꾸하고 꺾끗이 걸어 나오면서 도 승일의 교실문쪽을 얼핏 돌아보았다.

열려진 문으로 여러대의 초불이 내는 환한 불빛 흘러나왔다. 정전이 되었는데도 초불을 동원하는 학급은 유독 《진드기학급》하나라뿐이었다.

어째선지 《호-》 한숨이 새어나갔다.

이튿날 진승일은 시험이 끝난지 몇시간도 안되어 채점한 시험지뭉음을 들고 찾아왔다.

아무말없이 성적분석표를 내밀어 놓고는 의자를 당겨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명희는 가슴이 절렁해졌다. 최우등생 10명, 우등생 12명, 보통생 9명...

수습할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처럼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드는듯싶었다.

다른 과목에서 땅땅 5점을 맞아오던 학생들이 수학에서 4점으로 떨어진것도 있고 우등생들이 보통으로 떨어진것도 있었다.

이것은 명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이러한 죄책감을 다른 사람 아닌 진승일선생앞에서 느껴야 한다는것이

였다.

《명희선생, 어쩌면 이럴수 있소? 난 도저히 리해할수가 없구만. 무슨 생각으로 학급실력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말이요.》

진선생은 분명히 《무슨 생각으로》라는 말에 력점을 찍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수가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속에 불꺼진 담배를 줍안에 와락쥐었다놓은 진선생은 조용히 말하고 일어났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후과가 빚어지지 않게 노력해주기 바라오. 물론 과목담임인 내 책임이 크지만...》

명희는 솟구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눌러내고 마치 도 귀먹은 사람처럼 꼼짝없이 앉아있었다.

진선생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으나 그가 남긴 말은 마디마디가 오래도록 아프게 가슴을 찢어댔다.

그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년간사업을 총화하는 교원총회가 열렸다. 교장은 두 학급의 점수차이를 대비적으로 분석하면서 학급담임의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고나서 《확실히 명희선생은 근래에 와서 정열이 식어졌습니다. 그제 바로 학생들의 성적에 나타났거든요...》 하고 말했다.

명희는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교육자의 책임에 대해서, 학급담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장의 말이 어쩌면 진선생의 말과 같은지...

온몸이 화들화들 떨리고 눈앞이 뿌얘졌다.

이튿날 방학으로 그와 마주설 기회가 드물었으나 새학년도에 그의 존재를 매일 매시각 곁에서 느끼며 생활한다는것이 생각만해도 괴로웠다.

교수강습이 끝나자 바람으로 휴가를 받고 집에 올라간 그는 (학교조동문제를 아버지와 토론할 생각이였다.)년초부터 부모들이 여러차례 편지와 사신을 보내면서 부추기던 혼사에 응해버리고말았다. 그의 급작스러운 결혼에 누구보다도 놀라와 하는것은 진승일이였다.

《명희동무, 난 동무가 이렇게도 빨리 떠나가버릴 줄은 정말 몰랐소. 동무의 결혼 그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끝내 내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고 떠나는것이 가슴아프단 말이요.》

왜서인지 그의 마지막말이 명희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명희는 깊은숨을 내쉬고나서 다시 편지에 눈길을 실었다.

×

집단달리기가 있는 그날밤, 나는 잠들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격한 반발심이 온몸을 달구었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난 나는 이튿날 저녁 퇴근후 식사시간도 잊고 락오자로 되었던 순너를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반발심이 그대로 무서운 정열이 되

여 순서를 엄하게 다 물었지요.

《순녀, 여기가 놈들의 포탄이 날아오는 포사격구간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순녀는 숨이 차다고 주저앉겠어?》

《흑... 아닙니다.》

순녀는 용케도 울음을 씹어삼키며 입술을 깨물고 따라 뛰었어요.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그애를 힘껏 부축하고 학교운동장까지 이르렀을 때 우린 둘다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비오듯 흐르는 땀방울들이 안개처럼 눈앞을 가리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발자국소리가 다가왔어요.

《자, 은옥선생!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이라도 마시지요.》

진선생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당황해서 급급히 눈두덩의 땀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진선생은 들고온 사이다병의 물을 고뿌에 따르더니 나에게 먼저 내밀더군요.

질은 황혼빛이 어려선지 더욱더 붉어보이는 진선생의 얼굴에 어떻게 이름 못할 야릇한 감정의 잔파가 일고있었어요.

나 역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어우러진 어색한 감정속에 어쩔바를 몰랐어요.

《어서요, 이거 팔목 떨어지겠습니다.》

그제야 난 물고뿌를 받아 입에 가져갔지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짜릿하고 달고 향기로운 사이다가 입안에 흘러들었어요. 아마 진선생이 실험실적 방법으로 직접 만든 모양이었어요.

순녀도 사이다를 마시더니 금시 빠졌던 맥이 다 살아오른듯 방글거리었어요.

난 순녀를 집에 돌려보내고나서 진선생과 함께 나란히 합숙으로 향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옥선생이 나의 충고를 그렇게 리해하고 받아들여주니 얼마나 기쁜지...》

《선생의 비판은 옳은것이였어요. 전 오늘 우리인민이 헤쳐나가고있는 의지의 강행군에 마음과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있었어요.》

내 진정의 토로에 그는 얼른 대답을 못했어요.

《참, 오늘밤 무슨 일이 계획되어있는지...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내줄수 없겠소?》

《무슨 일인데?...》

《사실 내 영어공부를 좀 하겠는데 모를것이 많아서 그러오. 이런줄 알았으면 대학때 로어, 영어 다 공부했어야 할걸...》

《영어공부는 왜요?》

《다음주에 외국어학과 경연이 있는데 뭐 좀 알아야 학생들을 지도할수 있을게 아니요? 3학년까지는 자습으로 꽤 했는데 4학년이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만.》

난 의아해서 그를 돌아보았어요.

《아이, 과목담임이 있는데 뭇뻔에...》

《과목담임과 학급담임이 함께 지도하면 그만큼 실력이 높아질텐데 나쁠거야 있소?》

순간 나에게도 알지 못할 아심이 솟구쳐올랐어요.

《좋아요. 그럼 약속하자요. 제가 진선생의 영어 학습을 도와드리는데 대신 진선생은 저의 수학학습을 도와줄수 있겠지요?》

진선생은 뜻밖인듯 눈을 크게 뜨더니 꽤히 동의하더군요.

《좋소! 무슨 일이나 경쟁대상이 있어야 더 성수가 나는 법이지.》

하여 그날부터 매일밤 난 그와 함께 학교에 나가 자정이 넘을 때까지 영어문법과 회화를 가르쳐야 했어요. 물론 나도 그에게서 수학을 배우기에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우리들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생기게 될 줄은...

외국어학과 경연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오후 첫시간에 복습지도를 하려고 교실로 가던 나는 우리 담당구역인 1층복도에 물이 쏟아져있는걸 보게 되었어요. 학급에 들어가 청소당번학생들을 추궁했더니 4학년 1반애들이 물바께쓰를 들고 가다가 흘려 놓았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그래 학급장을 시켜 그 학생들에게 복도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주었지요.

얼마후 교원모임종이 울려 교실문을 열고 나서던 나는 그만 못박힌듯 서버렸어요. 글썽 밀대를 쥐고 허리를 구부린채 복도를 닦고있는건 다름아닌 진선생이 아니였겠어요?

글소리가 떠들썩한 《4학년 1반》 교실 출입문과 땀발이 번지르르한 진선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느라니 속이 울컥하더군요!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밀대를 뺏았어요.

《진선생님,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너무하다는거요?》

허리를 펴고 선 그는 제편에서 오히려 의아스럽다는듯 눈을 둥그렇게 치뜨는것이였어요.

난 너무 억이 막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하니 격한 소리를 내쏘았어요.

《저야 복도를 어지럽힌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그런건데 선생님님이 이러시니,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오, 은옥선생! 난 그저 학생들에게 외국어공부할 시간을 더 주자고 그랬지 선생에게 불만이 있는건 아니요. 내가 밀대를 잡은것이 선생의 체면에 손상을 주었다면 용서하오. 그러나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난 상관하지 않소.》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내 가슴엔 날카로운 칼날이 었어요. 난 못박힌듯 굳어진체 어지러워진 밀대를 들고 수도칸쪽으로 멀어져가는 진선생의 뒤모습을 놀라우게 바라보았어요...

얼마후 속보판에 외국어학과경연소식이 나붙었

을 때 1등의 자리에 또다시 대서특필된 《4학년 1반》이란 글발을 더는 무심히 볼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진선생이 매번 차지하는 1등이라는 그 위치에는 단순한 승벽심과 이악성만이 아닌 그 무엇이 깃들어있는것이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된것은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봄철등산의 날이였어요.

언니도 알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나 교원들에게 있어서나 《등산》이라고 하게 되면 명절날과 같은 푸짐한 음식상부터 생각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느때보다도 더 긴장한 봄철에 등산을 조직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하는 문제가 분분한 논의를 일으켰어요.

반수이상의 교원들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불깃을 보고 발을 퍼했다고 지금 식량사정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등산준비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가솔로 미루자고말이에요.

다른 교원들은 묵묵히 생각에만 잠겨있는데 진선생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요.

《전, 등산을 꼭 가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것이 우리당의 뜻이 아닙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 때에 우리 학생들이 등산마저 못하고 맥없이 앉아있으면 좋아할건 어느놈들입니까? 갑시다! 진수성찬은 못차려도 웃음과 노래로 우리의 락관주의를 보여줍시다. 생논을 움켜 먹으면서도 혁명가요를 부르던 투사들의 그 신념이 우리 학생들의 가슴속에 심어지도록 말입니다.》

누구도 이 제의를 반박할수 없었지요.

이렇게 되어 나는 교단에 서서 처음으로 가게 되는 봄철등산을 류다른 흥분속에 준비하게 되였어요. 예술소조준비며 식물채집준비, 옷차림준비로 밤새도록 분주탕을 피웠답니다. 이번엔 꼭 1등을 양보안할테다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운동장에 대렬을 정돈하는 그 시각부터 벌써 진선생네 학급은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는것을 일식으로 갖추었는데 특히 녀학생들은 새하얀 등산모우의 연분홍리봉과 곤청색치마밑에 산뜻이 대조되는 새하얀 무릎양말로 아이들의 모습을 한결 더 생기있고 발랄하게 해주였어요.

난 그만 부러움과 시샘을 금치 못하여 옆에 서있는 진선생의 모습을 흘깃 돌아보았어요. 흐뭇한 웃음을 짓고 서있는 그의 뒤집진 두손은 분홍물감에 빨갭게 물들어있었어요.

과연 저 선생의 듄치막하고 순박해 보이는 몸 어느곳에서 녀성들도 무색케 하는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손재간이 흘러나오는것일까?

행군시에도 학생들곁에 꼭 붙어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불러대는 그 천진한 아이같은 모습에서 난 눈길을 땄수가 없었어요.

도로를 벗어나 목적인 산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산고지 점령 경기가 시작되였어요.

《와-》 함성을 울리며 온 학교 아이들이 산병선을 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학급학생들을 다몰아 숨차게 달리던 나는 앞에 시퍼런 내물이 막아서는 바람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어요.

둘러보니 꼭 아래컨으로 조금 내려가 다리가 나지더군요. 온 학교 아이들이 승벽내기로 그리로 쏠렸어요.

《자-빨리!》 하고 나는 아이들을 이끌고 제일선 참으로 다리에 이르렀어요. 의기양양해서 다리를 건느며 뒤를 돌아보던 학생들이 아연해서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기 1반애들이...》

울상이 되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니 글썽 허리가 지 빠지는 깊은 내물로 진선생을 선두로 한 그 학급 학생들이 침범침범 들어서는것이 아니겠어요. 배낭을 머리로 추켜들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에요.

(?!)

또다시 호된 강타를 먹은 나는 분김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 바라보구 섰어요? 빨리 따라잡을 생각은 없구. 자, 앞으로-!》

땀이 철철 흐르고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달려 올라갔지만 고지꼭대기에는 이미 1분단기발이 꽃혀 자랑스럽게 펴려있고있었어요.

료리경연에서도 이겨 보자고 술선 소매를 걷고 나서 땀을 흘렸지만 진선생은 언제 배워두었던 숨씨인지 누구도 생각 못한 가지순대며 산나물김치, 뽕장어생선국을 내놓아 1등인 우리 학급우에 특등으로 올라갔고야 말았어요. 경총경총 뛰며 만세까지 부르는 아이들속에 휩싸여 진선생이 흐뭇이 웃을 때 난 너무도 속이 빠질빠질 타들어 어린 소녀처럼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어요.

그걸 본 결의 선생들이 껄껄 웃으며 위로하더군요.

《뭘 그다지나 안타까와서 그러나? 아무렴 저 진드기 선생을 이길것 같아서? 1등을 내놓으면 몸살을 앓을 선생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위안되지 않았어요. 잠시후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음식들을 퍼놓고 둘러앉았는데 웬일인지 진선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학급애들에게 물어보니 아래컨 숲쪽을 가리키더군요. 다박술을 헤치면서 얼마간 숲으로 들어가니 어느 한 바위밑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가 보였어요.

《진선생님! 식사하러 가시지요.》

그는 피땀 눈을 뜨더니 《밥은 아이들과 먼저 먹었소.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요.》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어요.

식사후 예술소조경연이 진행되었어요.

마침 저쪽 학급은 담임교원이 참가하지 못하기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1등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순서가 다가오자 어느새 나타났는지 진선생이 학생들의 출연준비를 검열하고있는게 아니겠어요.

《아이, 좀더 쉬지 않고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피곤이 풀린것 같지 않은데요.》

나의 숙대사를 읽었는지 진선생은 학생의 목단추를 채워주다말고 빙그레 웃어보이더군요.

《넌데 덕분에 피곤이 다 날아나버렸소. 가만, 웬일이야, 넌 이게 뭐냐? 단추가 둘씩 없으니...》

진선생은 장난 꺾어보이는 한 남학생의 양복앞섶을 흔들며 꾸짖더군요. 그러자 그애는 웬일이냐는 듯 내려다보더니 울상이 되어버리더군요.

《저, 우리 학급 학생절 바꾸어 입히지요.》 하고 내가 권했더니 《아니, 제각 달아 입히면 되요.》 하면서 어깨에 메고있던 가방을 벗기며 열더군요. 그 안에서 빨간 비닐통을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입을 딱 벌리고말았어요.

여러 색깔의 실토리들과 단추주머니, 가위, 칼, 나일론걸레, 봉대와 반창고, 빨간약, 구멍수...

난 어느새 그에게서 바느질을 뺏어쥐고 단추를 달고 했는지 알수 없었어요. 평소의 그 나무람할데 없는 옷차림과 대렬면모, 병결 한건 없는 그 출석률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 오르더군요.

나는 아이들과 손잡고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는 그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결국 나는 그날 일정의 모든 종목들에서 패자가 되었지만 그전처럼 분함과 야속함만이 아닌 그 어떤 존경심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저녁이었어요.

진선생보다 한발 뒤늦게 합숙에 들어서니 합숙어머니가 식당칸에 저녁상을 차려주며 진선생은 오지 않는냐고 묻더군요.

《분명 앞서오는걸 봤는데, 교실에 갔나?》

《그 사람은 아침에두 점심때 잘 먹겠다면서 식사를 안하구 갔는데 저녁두 또 안먹을 잡도린가?》

그 말에 이상한 예감이 불쑥 들더군요.

《점심도 들지 못했는데... 아니, 그럼 흑시?》

난 얼른 일어나 불꺼진 진선생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문을 열고 전등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난 그만 깜짝 놀랐어요.

옷도 벗지 못한채 침대에 누워있는 진선생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던거예요. 꼭 감은 눈을 뜰념도 못하는 얼굴엔 진땀이 자르르 덮여있었고 이마와 눈귀의 곱게 패인 주름살들과 이그러트린 입술은 모진 진통을 하소하고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부끄러움도 잊고 다가가 손을 이마에 가져갔어요. 불덩이를 만지는듯 뜨거운 열기가 가슴속에까지 흘러들었어요.

그러자 어찌선지 울고싶도록 코마루가 시려오는 것이었어요. 이 몸으로 등산을 떠나다니? 이 몸으로 강을 건느고, 산을 뚫아오르고, 로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더욱더 놀라운것은 이런 고열의 몸으로 그 모든 육체적아픔을 이겨냈다는 그것보다도 한순간도 웃음을 지우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들속에 어울릴수있었다는 그것이었어요.

뒤미처 따라온 합숙어머니가 병원에 왕진을 청하려 가겠으니 그동안 찬물찜질을 해주라고 당부하더군요.

소랭이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 수건을 적서 이마에 올려놓아주어서야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묵한 눈확속의 두눈이 놀라움에 커지며 나를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어요.

《은옥선생이... 어떻게...》

그러자 더 참을수가 없더군요.

《어쩌면 이럴수가 있나요? 어쩌면... 오늘은 수업도 없는데 하루쯤 누워 앓으면... 안되나요?》

《은옥선생같으면... 그렇게 했겠소? 아이들이 섭섭해하겠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진단말이요.》

(그늘... 그늘이 질가봐...)

난 가슴이 뭉클해서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명절날 앓아누웠을 때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키우더군요.

《명절날 어머니가 앓구있으니 온 집안에 그늘이 지는구나.》...

비로소 나는 진선생의 그 승벽심과 이악성이 다름아닌 아이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애당초 그에게 자신이 사나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오직 마흔명학생들을 책임진 교육자라는 자각밖에는... 총각으로서 응당 바랄수 있는 처녀들의 호감같은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같은 절절한 기원과 사심없는 사랑만이 그의 온몸과 마음속에 꽉 차있었어요.

하기에 그의 《1등》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여물고 알찬 모습, 밝고 쟁쟁한 모습이었어요. 진정 그에게 있어서 《1등》은 자신의 만족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훌륭한 미래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

명희는 더 엷어내려가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무도 격한 마음의 충동에 호흡의 부담을 느끼는듯 창가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밤의 깊어짐과 더불어 어느덧 한적해진 거리는 피빛의 가로등불빛에 물들어 야릇한 흥분과 일종의 신비감을 자아낸다. 장식등불빛이 명멸하는 《금강식당》앞으로 한쌍의 젊은이들이 살쾅이 어깨를 기대고 걸어가고있다. 지하도에서 금방 나온 대학생 청년이 머리를 깎고 책을 읽으며 마주 걸어온다. 사랑을 속삭이며 유유히 걷던 젊은이들이 책에 정신을 쏟은 독학자에게 친절히 길을 비키여준다.

명희는 불현듯 눈시울을 치켜들었다. 그 청년의 모습이 신통히도 대학시절 진승일의 모습을 방불케 한 것이었다. 책속에만 파묻혀 결는 한번 안팔던 대학시절 진승일... 그 모습이 이번엔 아이들속에 파묻혀 1등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교원 진승일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헤여지던 날 그가 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다시금 떠오른다.

《난 동무가 끝내 내 심정을 이해 못하고 가버리는게 가슴이 아프오! 아프단 말이요.!!》

명희는 흑 느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진정 가슴이 아픈것은 그자신이였다.

(진동무, 오늘에야 동무의 그 심정을 이해한 절 용서하세요. 만일 동무의 초소가 용맹과 투지를 요구한다면, 동무의 혁명업이 진지성과 근면성을 요구한다면 동문 반드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되었을거예요. 교육이 바로 녀성적인 섬세성과 이악성, 동심적인 승벽심을 요구하기때문에 동문 사나이로서의 인격도 체면도 서슴없이 버릴수 있는거였어요. 이성의 사랑도 뒤로 미루면서...그런데 난...난 동무에게 날 위해 희생한게 뭐가고 물었지요. 난 그렇게도 리기적인 녀자였어요. 그때 내가 바랐던 《1등》은 순전히 나자신의 만족을 위한 명예에 불과했어요. 나를 위해 학생들을 리용하고 희생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

명희는 어느새 두눈을 응건히 적신 눈물의 뜨거운 감각을 느끼며 서늘한 바람에 날리는 문보자락을 당겨 눈가로 가져갔다...

×

그때부터 난 저도 모르게 진선생의 사업방법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일찍 사적비정성작업으로부터 교실청소, 깊은 밤 교수준비와 개별지도, 일요일의 교편물제작과 책걸상수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일과가 그대로 나의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틈없고 휴식없는 그 바쁜 생활이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했어요. 어쩐지 그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조금도 힘든줄 모르고 무엇이냐 할 일을 더 찾고만싶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식사를 끝내기 바쁘게 난 전날 가져다 두었던 판자들을 한아름 안아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진선생이 여느때없이 외출차비를 하고 가방까지 들고나서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명절날이 아니면 집에 가는 법이 없었는데말이에요.)

《아니, 어딜 가시려구요?》

《집에서 전화가 왔구만, 어머니가 앓는다고 왔다 가라구.》

《그래요?...》

난 들고있던 판자들을 털썩떨구어버렸어요.

《아니, 뭘 만들려구 그러오?》

《외국어단어패쪽을 만들어야겠는데, 아니 다음에 해도 돼요. 어서 가보세요.》

난 애써 혼연한 기색을 짓고 그를 바라봤으나 합숙마당의 텅 비는것과 동시에 내 가슴도 비여버리는듯한 공허감을 어쩔수 없었어요. 마치도 그가 《내 가슴속의 모든것을 깡그리 앗아간것만 같이... 다음순간 나는 안정을 잃은 자신의 이상한 감정에 소스라치듯 놀랐어요.

(이제 무슨 일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것인가? 대체 무슨 까닭이람...?)

그다음에 떠오르려는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난 황급히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로 그럴수 없어, 난 그에 대해 조금도 다른 감정을 품어 본적이 없었어. 그건...그건 안될 말이야. 나이도 어린 내가...)

난 모든것을 잊어 보려고 학교로 나가 이것저것 일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일요일의 텅 빈 학교는 역시 적막감을 더해줄뿐이었어요.

새삼스럽게 그와 함께 일하며 뛰어다니던, 그때는 범상하게만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꿈과 열정으로 충만된 벽차고 행복한 순간으로 돌이켜졌어요.

그가 없는 이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던지 한시간이 멀다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창밖을 내다보게 되더군요.

(아니, 그가 오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던 말인가? 내가 정말 왜 이 모양일가?)

난 허구프게 웃고나서 교수안작성에 애써 정신을 쏟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합숙으로 돌아간 나는 뜻밖의 광경에 그만 흠칫 굳어져버렸어요.

툼이며 망치, 나무쪼각들과 톱밥부스레기들이 한벌 널린 마당에서 글썽 그가, 진선생이 대패질을 하고있는게 아니겠어요? 땀찬 이마에 흠어져내린 머리카락을 입바람으로 불어 넘기며 열성스레 대패를 미는데 따라 우둘투둘하던 나무토막들이 반들반들 윤기나게 다듬어지고있었어요.

난 금시 심장이 폭발할것만 같은 충격에 두손을

모두어 가슴을 꼭 눌러댔어요. 그러나 심장의 박동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더 무섭게 뿔뿔여울랐어요.

난 주춤주춤 다가가 그의 한손이 꼭 누르고있는 판자로막을 살며시 맛잡아쥐었어요.

수그렸던 그의 머리가 흠칫 들리더니 그 어지고 순박해 보이는 큰 눈에 웃음이 어리었어요.

《어디… 갔댔소?》

난 기쁨에 겨워 마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설줄은 모르구… 저, 어머님병은 좀 나은 모양이지요.》

진선생은 미소를 담은채 고개를 약간 끄덕이더니 왜 선지 허구픈 웃음을 짓더군요.

《허허… 참…》

《어마나? 왜 웃어요?》

진선생은 대패 권 손을 이윽도록 내려다보더니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것이었어요.

《글쎄 앓는다던 어머니가 날 보더니 무작정 끌고 나가는데…》

(어마나, 그럼?…)

난 가슴이 뻥뻥해짐을 느끼며 물었지요.

《어떻게 되었어요?》

진선생은 불쑥 고개를 들었는데 두눈에 이상한 불꽃같은것이 번쩍었어요.

《그래, 은옥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결혼이란것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더우기 자기사업을 리해해 줄줄 모르고 내심의 진정을 들여다볼줄 모르는 그런 상대와의 결합으로 되고 만다면 거기에 무슨 인간다운 행복이 있소?

참다운 결혼이란 호상 깊은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서로의 지향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으로 떠밀어 주는 상대들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그는 자기 고백에 대한 나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머리를 수긏하더니 그냥 대패질을 계속하는것이었어요.

난 뜨거운것을 삼키며 속으로 부르짖었어요.

(고마와요! 진선생님, 정말 고마와요!)

무엇이 고맙다는것인지 그 순간엔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언니! 그때로부터 어언 두해가 흘렀어요.

서로 지지 않으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똑같이 《2중붉은기학급》으로, 《7. 15최우등생모범학급》으로 된 우리의 두 학급은 얼마전 졸업을 앞두고 똑같이 인민군대에 집단탄원했어요.

졸업식때 정말 눈물겨웠답니다. 일어서는 애들마다 《우리 선생님》노래를 부르는데 그때의 행복이란 정말…

언니! 이제 애들을 초소로 떠나보내고나서 우린 곧 결혼하려고 해요. 제가 왜 오늘 언니의 성의를 받아들일수 없게 되었는지 충분히 리해하고 저의 사랑에 축복을 보내주리라 믿어요.

그럼 건강을 바라며 펜을 놓겠어요.

안녕히. 박은옥 올림》

×

명희는 석상처럼 굳어진체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찰각 찰각》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심장의 박동소리인듯 가락맞게 끊임없이 울렸다.

이윽하여 차곡차곡 편지를 집어놓고난 명희는 책장에서 흰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들고 결상에 앉았다.

종이우에는 정성스런 글자들이 또박또박 적혀나가기 시작했다.

《잊을수 없는 진승일선생에게…》

성 돌

리 동 수

내 조용히

당원증번호를 되새겨보느라만

나와 나란히 어깨를 겨룬

수백만 당원들의 뿔뿔여울리는 심장이

하나의 박동으로 울려오나니

하나로 합쳐진 그 심장 그 마음들은

우리 당중앙을 우리러 받드는

억세고도 거창한 성벽

나는 그 성벽의 하나의 성돌

광풍이 분다 흔들리랴

폭풍이 몰아친다 무너지랴

신념과 량심으로 쌓이고 덧쌓인 이 성벽

장군님 웅위하여 억척같이 다져졌나니

나는 영원히 그 성벽의 성돌이 되리라

호랑이를 탄 도적

19세기초의 우리 나라의 유명한 풍자해학자인 정지윤은 자기의 본명보다도 아명인 정수동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정수동의 성격을 본다면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으려는 자유분방한데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활달하고 너그러운 도량을 지니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가량반이든 조정의 높은 관리이든 개의치 않고 신랄한 야유와 역설로 마음껏 풍자조소하곤하였다. 여기에 그의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정수동은 미끈한 체모에 어울리게 말도 잘하여 언제나 서민층뿐아니라 양반들과 고관대작들 속에서도 일종의 인기를 지니고있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당시의 고관대작들의 총애도 받았었는데 조두순이나 김홍근의 집에는 문객으로서 자유로 드나드는 처지였다.

어느날 조두순의 사랑방에서 있는 일이다.

비단옷차림을 한 양반들이 방에 가득 모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있던중에 느닷없이 조두순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것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무엇인가?》

항상 조두순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가 하던 약바른 한 양반이 제격 범이라고 대답하면서 범의 위엄에 대해 입술에 침을 발라 가며 떠들어대었다. 그에 뒤질세라 저마끔 양반이 제일 무섭다느니, 도적이 제일 무섭다느니 하며 찡구 까불구하는 판이였다.

가만히 뒤전에 앉아서 여러 양반자들과 아침쟁이 문객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있던 정수동이를 보고 조두순이 물었다.

《여보게, 자네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무엇인것 같은가?》

만장의 시선을 받으며 정수동이 뜨직하게 대답을 하였다.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호랑이를 탄 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동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좌중의 시선은 황황히 집주인인 조두순에게로 쏠리였다. 다음순간 모두들 고개를 비틀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는듯 킁득거렸다.

그것도 그럴것이 바로 조두순은 호랑이가죽을 썬 깔개에 앉아 또 호랑이가죽을 썬 안석에 기대여있었던것이다.

그러니 《호랑이를 탄 도적》이란 바로 다름아닌 조두순을 가리키는 말이였던것이다.

조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퍼래졌다 하더니 끝내 큰기침을 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고말았다.

당시의 평의정이면 흔히 말하는 《일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것이다. 그러니 그 권세와 위엄이 어찌 범이나 도적에 비길수 있었을것이며 그 권세와 세도를 리용해 굶어들인 재산 또한 얼마일것인가.

그러니 정수동은 조두순을 《호랑이를 탄 도적》이라고 야유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정수동은 하나의 사물현상속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능란하고 기지있는 언변으로 곧잘 양반들을 곤경에 몰아넣곤하였다.

세도가 당당하던 장동김씨 김홍근의 집에서 있는 일이다. 이날도 김홍근의 집에는 많은 문객들이 모여있었다. 정수동은 비록 그의 문객은 아니였으나 그 재치있는 말주변과 능란한 재주로 하여 김홍근의 집에도 곧잘 다니였다.

정수동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느라니 안채에서 심부름을 하는 한 녀인이 자기의 어린 자식의 배를 쓰다듬으며 울상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아니 여보게, 웬일인가?》 하며 다가서는 정수동에게 녀인은 《글쎄 이 미련한게 동전 한잎을 입에 물고 놀다가 그걸 삼키지 않았겠나요.》 하는것이였다.

녀인은 말하는 속에서도 연신 아이의 배를 쓸어만지고있었다.

《그래 그 돈이 뉘돈인데 자네는 그러도 걱정인가.》

《돈이야 물론 어린것의것입지요. 하두 먹을것을 내라고 칭얼대길래 그거라도 가지고 놀라고 주었더니 이 미련한것이 그걸 삼킬줄이야...》

사랑채에서는 김홍근이와 여러 문객들이 그들의 대화를 귀동냥하며 주시하고있었다. 정수동이 무슨 신통한 약방문이라도 대주는가 했는지도 모른다.

《아하 그런가. 그러면 자네는 조금도 걱정할게 없네구려. 계속 그렇게 배만 잘 쓸어주면 이내 나올걸세. 아 지금 남의 돈 몇만냥을 쓱싹 해치우고도 배탈은커녕 방귀 한번 안귀는데 그까짓 제돈 한잎이 무슨 큰게라구... 하하하...》

정수동의 이 말 한마디에 김홍근의 불그레한 낯색이 점점 하얘지더니 사랑채 문도 콧 닫기고 문객들도 더 있기가 몇적어서 돌아가고말았다. 이것은 정수동이 김홍근이가 장동김씨 세도로 벼슬자리를 주기로 하고 받아먹은 돈바리를 녀두에 두고한 말이였기때문이다.

물론 그이후 김홍근은 항간에 자기의 비평이 퍼질것이 두려워 뽕물받은 몇만냥을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한다.

이처럼 정수동은 부조리한 사회와 양반통치배들의 부패한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남김없이 그대로 면전에서 해학과 역설로 폭로조소하였다.

기쁨에 넘쳐나는 간다

김 오 (남조선)

내 어려울 때 슬플 때
절망의 구렁에서 허우적일 때
나의 온몸을 밝히며
가슴속에 비쳐드는 빛발이 있다
힘이 진한 내 몸을 부축해주고
두려워말고 어서 가라-
살며시 등을 밀어주는
어머니처럼 살뜰한 손길이 있다

다시금 굳세게 발을 디디고 서면
아, 나의 마음속인가
먼 저 하늘길인가
우렁이 떠오르는 고귀한 영상

태양의 광휘 다 받아안으신듯
태양처럼 밝으시고 젊으신 그분
단 한번 화면에서 보왔건만은
나의 뉘를 다 차지하신 **김정일**동지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희망에 넘쳐 나는 간다
어두운 밤도 어둡지 않다
동터오지 않는 려명도 내겐 보인다

그분이 평양에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
사상은 분계선도 국경도 막지 못한다

우러러 따르는 이 마음도 막지 못한다
투쟁의 발걸음은 그것들을 밟고 넘는다

주체의 위대한 기치를 드시고
자주와 진보예로 보다 밝은 앞날에로
그분께선 힘있게 인류를 이끄신다

허나 어디보다도 먼저 여길 걱정하신다
갈라진 조국의 남녘 이 불행한 땅
이 땅의 슬픔과 고통 다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신다

락심말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싸우라고
삶의 의지와 힘을 키워주신다
위대한 글발속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손길따라 미래를 본다

우리는 인간존엄의 그 위대한 진리를
수난의 이 땅을 안아일으키고
싸워 얻은 신성한 기치우에
통일의 려명을 안아오리라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희망에 넘쳐 나는 간다
어두운 밤길도 어둡지 않다
동터오지 않는 려명도 내겐 보인다

복수는 총으로만 하지 않는다

-신천박물관 진렬장앞에서-

허 일

보면 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고 피가 솟는다
이 못, 이 톱, 이 낫으로
신천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다니...

이 못으로 머리를 구멍내 죽이고
이 톱으로 머리를 켜서 죽이고
이 낫으로 만삭인 녀인의 배를 가르고
쏟아진 태아마저
양키들은 히히닥대며 짓밟아 죽였다니

아, 짐승도 낫을 붉힐
미제야수들의 만행
이 못에
이 톱에
이 낫에
검붉게 돋은것은

어찌 죄놈만이라
씻을래야 씻을수 없는
렬사들이 흘린 피의 응어리!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백주강도배들의 최악의 증거물

들려온다,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그 은덕이 고마워
 애국미헌납으로 더웁던 머리
 못에 뿔리고 톱에 커이면서도
 버 베던 그 낫에 배가 갈리면서도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기어이 기어이 원썬을 갚아달라!
 심장으로 웨치던 그 목소리-

오-
 그저 총으로만 잡을수 없는 미제
 그저 총창으로만 죽일수 없는 미제
 노도치는 원썬격멸의 그날
 내 부디 여기에 돌리려니

신천박물관이여 그때 여기 진렬장의
 이 못, 이 톱, 이 낫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유물로만 전시할수 없는
 신천의 피묻은 못과 톱과 낫으로
 천추에 용납 못할 식인종들을 내
 무자비하게 징벌하리라
 살려달라 애걸하며 손 비비는
 그 마지막 한놈까지 태를 쳐 없애리라

똑똑히 알아두라 아메리카의 야만들아
 나는 선언한다
 조선인민군병사 나에게
 추호도 관용을 모르는 총과 함께
 신천의 피묻은 못과 톱과 낫이 있음을
 복수자의 복수는 총으로만 하지 않는다!

로막상식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금강산 만폭동 금강대밀에 있는 만폭교아래 너럭바위에는 《삼선국》(바둑판이라는 뜻)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옛날 삼신산의 《신선》들이 여기 너럭바위에 모여 바둑을 두며 놀곤하였다.

하루는 강생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나무하러 왔다.

원래 강생은 일생 나쁜 일이라고는 한번도 못해본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날도 지주집 나무를 해주려고 새 도끼자루를 맞추어가지고 만폭동으로 들어와있었다.

강생은 너럭바위우에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기에 슬그머니 곁에 가보니 그 바둑두는 솜씨가 흡사 룡과 범이 싸우는 형국이었다.

(이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니구나. 금강산에 신선들이 있다더니 이들인가보다.)

그래서 강생은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구경을 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다과를 내어놓고 먹으면서 구경하는 강생에게도 권하였다.

강생이 굳이 사양하니 한 신선이 《이것은 술이 아니라 <만세로>라는 차물이니 어서 잡수시오.》하며 자꾸 권하였다. 또 다른 신선은 복숭아를 권하

면서 《이것은 <천선도>라는 복숭아로서 맛이 대단히 좋으니 하나만이라도 들어보시오.》하였다.

강생은 그들의 권고에 못이겨 <만세로>를 한잔 마시니 얼굴과 손의 주름살이 펴지면서 힘이 솟았다. 그리고 <천선도>를 먹으니 흰 머리카락이 까맣게 되었다.

강생이 자기의 모습을 내물에 비쳐보니 글썽 내물에는 20대청춘시절 자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신선들이 사라진후 나무하러 도끼를 쳐들려고 하니 아침에 새로 맞춘 물푸레도끼자루가 썩어떨어졌다.

그때 착정이들을 주어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니 자기가 살던 마을은 간곳 없고 새 마을이 생겨났다.

뛰여노는 아이들에게 지주집이 어데 갔느냐고 물으니 《옛날 이곳에 살던 못된 지주놈은 망한지가 이미 삼대가 지났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강생은 이때에야 《허참, 내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몰랐군!》 하고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떠나갔다.

이때부터 금강대밀 너럭바위를 네 신선이 놀았던 곳이라 하여 《사선기반암》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후에 《삼선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한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속담은 재미있는 일해 정신이 팔려 해야 할 일을 잊는다는 뜻으로서 이러한 전설에 근원을 두고있다.